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華夷譯語의 寫音字 비교 연구
—朝鮮館譯語의 음가 추정을 중심으로—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김 지 은

<국문초록>

華夷譯語의 寫音字 비교 연구 -朝鮮館譯語의 음가 추정을 중심으로-

김 지 은

본고는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朝鮮館譯語에 담긴 15세기 국어의 음가를 추정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韃靼館譯語, 畏兀兒館譯語, 回回館譯語, 占城館譯語, 滿刺加館譯語, 安南館譯語, 日本館譯語, 西番館譯語 등 8개 譯語만을 朝鮮館譯語와의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어 음운학의 주요 개념과 15세기 한어의 음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朝鮮館譯語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음계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확정하였다.

확정된 음계를 토대로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음성 전사가 되었으면서도 일관된 표기를 보이는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성격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會同館系 華夷譯語에는 음절 구조와 관련된 사음 원칙과 음성 실현과 관련된 사음 원칙이 있음을 향찰의 ‘첨기’ 개념을 차용하여 밝혔다. 마지막으로,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구체적인 사음자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음계가 지니고 있던 사음 범위를 밝히고, 첨기의 양상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朝鮮館譯語에 담긴 15세기 국어의 음가를 추정하였다. 초성 중 ‘ㄴ’의 음가는 재확인하고, ‘ㄷ’, ‘ㅇ’, 자음군의 음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중성 중 ‘ㄴ’, ‘ㄷ’의 음가는 재확인하고, ‘ㄴ’과 자음군의 음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보이고, ‘ㄴ’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밝혔다. 종성은 종합적으로 모음 음가 추정도를 그려 보았는데, ‘ㅏ’, ‘ㅑ’, ‘ㅓ’, ‘ㅕ’의 음가는 확정짓지 못하고 영역으로 나타내었다.

주요어: 華夷譯語, 朝鮮館譯語, 15세기 국어, 중세 국어, 음가, 첨기

학번: 2014-20080

목 차

국문초록	i
범례	v
1. 서론	1
1.1 연구 목적과 범위	1
1.2 연구 대상	3
1.3 연구사 개관	9
1.3.1 華夷譯語의 연구사 개관	9
1.3.2 朝鮮館譯語의 연구사 개관	14
1.4 논의의 구성	15
2. 기본적인 논의	17
2.1 한어 음운학의 주요 개념	17
2.2 15·16세기 한어의 음계	19
2.3 朝鮮館譯語의 음계	25
2.3.1 초성	25
2.3.2 중성	36
2.3.3 종성	43
3. 華夷譯語의 寫音 양상	47
3.1 華夷譯語 寫音의 성격	47
3.2 華夷譯語 寫音의 원칙	53
3.2.1 음절 구조와 寫音	55
3.2.2 음성 실현과 寫音	58

3.3 성모 표기	60
3.4 운모 표기	70
3.5 첨기	73
4. 朝鮮館譯語의 음가 추정	89
4.1 초성	89
4.1.1 ‘ㄴ’	89
4.1.2 ‘ㄷ’	91
4.1.3 ‘ㅇ’	95
4.1.4 합용병서	98
4.1.5 기타	102
4.2 중성	104
4.2.1 ‘ㄹ’	104
4.2.2 ‘ㄴ’	106
4.2.3 ‘ㄷ’	109
4.2.4 ‘ㄷ’	111
4.2.5 겹받침	112
4.2.6 기타	115
4.3 중성	116
5. 결론	120
참고문헌	125
Abstract	131
[부록 1]-비교 대상 譯語의 이해	133
1. 日本館譯語	133
2. 安南館譯語	136

3. 西番館譯語	140
4. 畏兀兒館譯語	147
5. 韃靼館譯語	153
6. 回回館譯語	157
7. 滿刺加館譯語	162
8. 占城館譯語	168
 [부록 2]-사음자 통계	 176
1. 성모의 표기	176
2. 운모의 표기	201
3. 운모의 구체자 검증	217
4. 첨기	219
 [부록 3]-사음자 목록	 223

범례

1. 본고에는 세 편의 부록이 있다. [부록 1]에서는 譯語별 사음 양상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2]에서는 8개 譯語의 사음자 하나하나가 각 譯語에서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최대한 정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 3]에서는 8개 譯語에 사용된 사음자 전부를 모아 제시하였다.
2. 자료명(資料名), 논저명(論著名), 인명(人名), 한어음계(漢語音系), ‘譯語’만을 한자를 직접 노출하여 표기한다. 譯語는 華夷譯語 내의 朝鮮館譯語, 日本館譯語 등의 범칭이다. 이것들 외에는 각 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 한자를 병기(併記)해주고 이후부터는 한글만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료명이나 논저명에 괄호를 따로 씌우지 않는다.
4. 음소인지 음성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따옴표 ‘ ’를 씌워 준다. 구분할 필요가 있고 분명한 경우에는 음소는 //로, 음성은 []를 씌워 준다.
5. 제시되는 예의 ‘고유번호’는 각 譯語의 주요 참고 문헌에서 부여된 번호에 해당 譯語의 명칭 첫 자를 붙인 것이다.
예) 朝-199, 日-89, 安-100
6. 각 譯語의 주요 참고 문헌에서 사용한 음성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모두 국제음성기호로 통일하여 기술하였지만, 표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때에는 각 참고 문헌에서 제시한 바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7. 각 譯語의 주요 참고 문헌에서 사용한 음성 기호를 국제음성기호로 변환한 내용을 한 번에 보이자면 아래와 같다.

IPA	畏兀兒館	韃靼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j	y	y	y	y	y
w					u, v
ʃ	č	č	č	ch	č
ɖ	ǰ	ǰ	ǰ	j	j
ʃ	š	š	š		ç
r	r	r	r		
ʒ	ž		ž		
z	z				
ŋ				ng	ng
ɲ					ñ
ɛ					ai
ə				ě	ě
ɔ					au
ø					ö
œ					o'
-h				-h	-h
:			-	-	-

* 日本館譯語와 西番館譯語의 주요 참고 문헌은 본래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하였고, 安南館譯語의 참고 문헌도 종합적으로 정리·기술할 때에는 대체로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 'r'가 국제음성기호로 'r'를 나타냈는지, 'r'를 나타냈는지 분명하지 않은 참고 문헌도 있다. 마찬가지로, 'a'가 국제음성기호로 'a'를 나타냈는지, 'a'를 나타냈는지 분명하지 않은 참고 문헌도 있다.

1. 서론

1.1 연구 목적과 범위

국어 음운사에서 중세 국어 음소의 음가 추정은 언제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였다. 이 어려움은 자료의 부족과 해석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점이 컸다. 訓民正音 解例本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음가 추정에 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이 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을 뿐만 아니라 訓民正音 解例本の 용어가 현대 언어학 용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석과 수용에 난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訓民正音보다도 앞선 시기의 국어를 전사했다고 생각되는 朝鮮館譯語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15세기 한어의 음운 체계는 15세기 국어의 음운 체계와 다를 뿐만 아니라 한어로서가 아니라 외국어 사음(寫音) 문자로서의 사음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姜信沆 1980: 30, 姜信沆 1995: 180) 음가 추정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여기에서 ‘사음 규칙’이라 함은 형태론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15세기 한어의 한 음운(혹은 음계)에 허용되는 음성적 범위가 외국어 사음 문자로 사용될 때는 달라졌으리라는 점도 포함한다. 이는 한어가 가지고 있던 음운체계와 대상 언어(목표 언어; target language)가 가지고 있던 음운체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음운 정보의 변환”(김성규 2009: 44)에 기인한 것이었다. 가령, 15세기 한어에 음소 A가 있고 ‘한어’라는 언어 안에서는 음성 a, b, c가 음소 A로 인식된다고 한다면, 이 음소 A가 외국어 사음에 사용되었을 때에는 음성 a, b, c뿐만 아니라 d를 더 포함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한 음성적 범위가 바뀌어 b, c, d를 포함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음 규칙은 朝鮮館譯語만으로는 알아내기 힘들다. 적어도 朝鮮館譯語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여러 자료를 비교해야만 알아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朝鮮館譯語의 사음 규칙이 밝혀진다면 朝鮮館譯語는 15세기 국어의 음가를 추정하는 자료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朝鮮館

譯語는 외파로 떨어져 있는 자료가 아니라 會同館系 華夷譯語라는 대역서집의 일부이다. 후술하겠지만 華夷譯語 안에는 여러 언어에 대한 사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비교해 본다면 朝鮮館譯語의 사음 성격과 원칙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華夷譯語를 분석함으로써 그 사음 성격과 원칙을 찾아내어 朝鮮館譯語에 담긴 15세기 국어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 ‘뵐’, 합용병서 등 소실 문자들의 음가뿐만 아니라 그 동안 ‘현대의 음가로(그대로) 간주되어 왔던 존속 문자들의 음가’(李基文 2006: 52)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때, 이미 그 대상 언어의 어휘항이 모두 로마자로 채구되어 있는 韃靼館譯語, 畏兀兒館譯語, 回回館譯語, 占城館譯語, 滿刺加館譯語, 安南館譯語, 日本館譯語, 西番館譯語 등 8개 譯語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나머지 百夷館譯語, 女眞館譯語¹⁾, 暹羅館譯語, 琉球館譯語는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다.

이러한 작업 결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여러 언어들의 과거 음운 체계는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확정일 수 없으며, 여기에서는 모든 譯語들의 어휘항을 직접 채구하기보다는 기존에 연구된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존에 연구된 자료들에 존재하는 오류가 본 연구에 그대로 반영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외국어 전사 자료 연구를 포기하는 일은 음운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상당 부분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게다가 각 譯語에 반영된 15세기 언어의 음가를 직접 채구하고 재확인한 후에야 해당 자료를 활용

1) 女眞館譯語는 四夷館系 華夷譯語와 會同館系 華夷譯語에 실려 있는데, 이들 중 호어(胡語)의 한자 음역만 아니라 해당 호어(胡語) 개별 문자가 함께 기록된 四夷館系 女眞館譯語에 대한 연구만 清瀨義三郎則府(1973)에서 이루어진 바 있고, 한자 음역만 기록된 會同館系 女眞館譯語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자는 四夷館系 女眞館譯語에도 한자 음역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四夷館系 華夷譯語는 문어에 중점을 두고 편찬되었고 會同館系 華夷譯語는 구어에 중점을 두고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힘들다.

참고로, 清瀨義三郎則府(1973: 13)에서는 四夷館系 女眞館譯語는 “有文字訳語”로, 會同館系 女眞館譯語는 “無文字訳語”로 칭하였다.

四夷館系, 會同館系 등 華夷譯語의 여러 계통에 관한 설명은 본고의 1.2를 참고할 수 있다.

해야 한다면 이러한 연구는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김성규(2009: 43-4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추정치인 외국어의 음가를 정확한 음가로 확정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연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연구자가 그것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원래의 목표였던 중세국어의 음운에 대한 연구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1.2 연구 대상

華夷譯語는 “明의 初葉에서 淸의 中葉에 亘하여 몇 차례에 걸쳐 中國에서 編纂된 漢語와 隣邦 外國語의 對譯語彙集의 總稱”이다(李基文 1957: 11). 李基文(1957)에서는 華夷譯語에 다음과 같은 네 계통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華夷譯語는 한어와 몽고어의 대역어휘집(對譯語彙集)에 문례(文例)를 붙여 편찬한 것으로서 넷 중 가장 오래되었다. 두 번째 華夷譯語는 李基文(1957)에서 四夷館本이라고 불린 것으로서 어휘항마다 한자 음역 외에 해당 언어의 대역도 병기(併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끝에는 문례(文例)도 붙였다. 세 번째 華夷譯語는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會同館系 華夷譯語로서 외국 사절단을 접대하던 역관·통사들을 위해 만들었기에 다른 셋과는 달리 구어를 음역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세 계통의 華夷譯語는 李基文(1957) 이전에 石田幹之助(1931)에서 이미 정리하였는데, 각기 ‘갑종(甲種), 을종(乙種), 병종(丙種)’이라고 불렀다. 네 번째 華夷譯語는 李基文(1957)에서 Fuchs(1931)를 참고하여 소개한 것으로서 사역관(四譯館)과 회동관(會同館)이 1748년에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으로 합쳐진 후, 이 기관에서 편찬한 네 언어의 대역어휘집이다. 참고로, 이 네 번째 華夷譯語를 일본 학계에서는 ‘정종(丁種)’이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이 네 계통의 華夷譯語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각 ‘最古 華夷譯語’, ‘四夷館系 華夷譯語’, ‘會同館系 華夷譯語’, ‘會同四譯館系 華夷譯語’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단, ‘最古’ 혹은 계통에 대한 언급이 없이 ‘華夷譯語’라고만 부르면, 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會同館系 華夷譯語를 뜻하는 것이다.

이제 華夷譯語의 구성 내용, 이본 관계, 편찬 연대 등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華夷譯語에서는 각 어휘항에 해당하는 한어와 외국어 음역자에는 모두 한자만을 사용하였는데, 한어 어휘항을 적은 1단과 외국어 고유어 혹은 독서음(讀書音)²⁾을 음역한 2단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성을 지닌다.³⁾ 비교 대상인 韃靼館譯語, 畏兀兒館譯語, 回回館譯語, 占城館譯語, 滿刺加館譯語, 安南館譯語, 日本館譯語, 西番館譯語 등 8개 譯語는 모두 2단 구성을 취한다. 독특하게 朝鮮館譯語에만 하나의 단이 더 있다. 아래 표에 朝鮮館譯語와 西番館譯語의 구조를 비교해 놓았다.

[표 1]

天	日	月	星	風	天	地	日	月	風
哈 嫩 二	害	得 二	別 二	把 論			你	老	
忝	忍	臥	省	捧	難	薩	麻	瓦	弄

[표 1]에서 보이는 朝鮮館譯語의 3단은 1단 한자의 한국한자음을 음사한 것이다. 이때, 모든 항목이 2단과 3단을 갖춘 것은 아니다. 161항목은 2단이 원결이고, 2항목은 3단이 원결이다(權仁瀚 1998: 14).

華夷譯語에서는 어휘들이 의미에 따라 ‘문(門)’ 즉, 장(章)을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각 譯語의 문(門)은 크기는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래의 [표 2]에 각 譯語의 문(門)을 정리하였다.

2) 다른 譯語와는 달리 安南館譯語는 고유어가 아닌 각 한자를 당시 베트남어에서 어떻게 읽었는지 즉, 朝鮮館譯語의 3단과 같은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고 추정된다.

3) 四夷館系 華夷譯語와는 달리 외국어를 표기하는데 모두 한자음만을 가지고 하고, 조금도 외국문자는 쓰지 않은 것은 最古 華夷譯語와 통하는 점이다. 또 四夷館系 華夷譯語가 어휘항마다 중앙에 한어를 적고, 그 오른쪽 혹은 아래쪽은 외국어 대역, 왼쪽은 한자 음역을 표기한 데 반해 會同館系 華夷譯語는 각 행(行)과 부(部)에 한어를 들고, 그 아래에 한자음으로 대역한 것도 最古 華夷譯語와 통한다.

[표 2]

朝鮮館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天文門	天文門	天文門	天文門	天文門	天文門	天文門	天文門
地理門	地理門	地理門	地理門	地理門	地理門	地理門	地理門
時令門	時會門	花木門	地名門	地名門	地名門	時令門	時令門
花木門	花木門	鳥獸門	時令門	時令門	節令門	花木門	花木門
鳥獸門	鳥獸門	宮室門	花木門	花木門	花木門	鳥獸門	鳥獸門
宮室門	宮室門	器用門	鳥獸門	人事門	鳥獸門	宮室門	宮室門
器用門	器用門	人物門	宮室門	朝儀門	宮室門	器用門	器用門
人物門	人物門	人事門	器用門	人物門	器用門	人物門	人物門
人事門	人事門	身體門	人物門	身體門	人物門	人事門	人事門
身體門	身體門	衣服門	人事門	衣服門	人事門	身體門	身體門
衣服門	衣服門	飲食門	身體門	飲食門	身體門	衣服門	衣服門
聲色門	飲食門	珍寶門	衣服門	器用門	衣服門	飲食門	飲食門
珍寶門	珍寶門	文史門	飲食門	鳥獸門	飲食門	珍寶門	珍寶門
飲饌門	文史門	聲色門	珍寶門	宮室門	珍寶門	文史門	文史門
文史門	聲色門	數目門	文史門	方隅門	文史門	彩色門	聲色門 ⁴⁾
數目門	數目門	通用門	聲色門	通用門	聲色門	數目門	數目門
干支門	方隅門		數目門	珍寶門	數目門	通用門	通用門
卦名門	通用門		通用門	聲色門	通用門		
通用門				數目門			
19門	18門	16門	18門	19門	18門	17門	17門
596항	566항	716항	749항	839항	674항	482항	601항

[표 2]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일단 譯語의 명칭을 첫 번째 줄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 줄부터는 각 譯語의 문(門)을 수록된 순서대로 제시하였다.⁵⁾ 마지막 두 줄에서는 각기 총 몇 개의 문(門)이 있는지와 몇 개의 어휘가 있는지를 종합하

4) 이들 중 占城館譯語에서 ‘聲色門’의 ‘聲’에 대하여 Edwards and Blagden(1939)에서는 ‘顔’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문(門)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러한 내용을 담은 다른 譯語의 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顔’이 아니라 ‘聲’이라고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에는 ‘黃(占-539)’, ‘靑(占-541)’, ‘紅(占-542)’, ‘白(占-543)’ 등 색채와 관련된 어휘가 담겨 있다. Edwards and Blagden(1939: 87)에서도 이 문(門)의 이름을 “Colours”라고 해석한 바, 이 문(門)이 색채 어휘를 소개하는 장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5) 한편, 韃靼館譯語의 각 문(門)의 명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韃靼館譯語의 주요 참고 자료인 越智サユリ(2004)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서울대본에는 韃靼館譯語가 없기 때문이다. 越智サユリ(2004)의 기술을 참고하여 총 17문(門)에 959항이 실려 있음이 확인될 뿐이다.

였다. 서로 다른 譯語라도 문(門)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어 朝鮮館譯語를 포함하여 이들 9개 譯語가 한 기관에서 편찬된 華夷譯語의 일부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譯語마다 문(門)의 명칭이나 개수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실제로 개별 문(門)에 담긴 어휘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점은, 실무자가 서로 달라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각 언어·문화권의 특색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華夷譯語 이본에는 총 8종이 있다. 이 8종의 이본에 대해서는 李基文(1957: 12)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⁶⁾ 이들 이본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아래 표의 내용은 蔣垂東(1998: 74)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표 3]

	런던	靜嘉堂	阿波国	稻葉君	台灣	서울대	하노이	水戸彰
朝鮮館	○	X	○	○	○	○	○	○
琉球館	○	X	○	○	○	○		
日本館	○	○	○	○	○	○		
安南館	○	○	○	○	○	○		
占城館	○	○	○	X	X	X		
暹羅館	○	○	○	○	○	○		
韃靼館	X	○	○	○	○	○	○	X
畏兀兒館	○	○	○	○	○	○		
西番館	X	○	○	X	X	X	X	X
回回館	○	○	○	X	X	X		
滿刺加館	○	○	○	X	○	○		
女眞館	X	○	○	X	X	X		
百夷館	○	○	○	○	X	X		

6) 李基文(1957: 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一) London University college 所藏本
- (二) 正齊書籍考에 著錄된 것
- (三) 彙刻書目外集에 著錄된 것
- (四) Hanoi의 Ecole Frangaise d'Extreme Orient. 所藏本
- (五) 稻葉君山 所藏本
- (六) 水戸彰庫館 所藏本
- (七) 淸 王聞遠의 考慈堂書目에 보이는 것
- (八) 阿波文庫 所藏本

蔣垂東(1998: 74)에 따르면, 하노이본(Hanoi本)은 소재 불명이고 수호창본(水戶彰本)은 소실되었다. 다만 여러 선행 연구(李基文 1957, 文璇奎 1962, 李基文 1968, 姜信沆 1995, 權仁瀚 1998 등)에 따르면 朝鮮館譯語가 이들 두 이본에 실린 것은 분명하고, 石田幹之助(1944: 53)를 참고하면 韃靼館譯語가 하노이본에는 실려 있었지만 수호창본에는 실려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며(越智サユリ 2004: 116), 西田龍雄(1970: 20-21)을 참고하면 하노이본과 수호창본에 西番館譯語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일단 이들에 대해서만 표에 표시해 두었다.

華夷譯語에 속하는 譯語들이 모두 동시에 편찬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렇기에 그 구체적인 편찬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개별 譯語에 대한 언어내적·외적 검토를 거쳐 그 편찬 상한과 하한을 잡고 수정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고찰해 보면 朝鮮館譯語를 비롯한 몇 譯語의 편찬 연대의 범위를 좁혀 잡을 수 있게 된다.

우선, 朝鮮館譯語의 편찬 연대는 편찬 기관인 회동관(會同館)의 설립이라는 언어외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1408년을 상한으로 잡게 되고, 정음 문헌보다 앞선 상태를 보여준다는 언어내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15세기 중엽을 하한으로 잡게 된다(李基文 1957). 비록 후대에 수정을 겪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朝鮮館譯語는 15세기 전반기의 국어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日本館譯語의 편찬 연대는 大友信一·木村晟(1968: 48)에서 회동관 내 일본관(日本館)의 설립이라는 언어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상한은 1492년으로 잡았고 런던본(London本)에 제시된 수정 연도인 1549년을 하한으로 잡게 된다고 하였다. 상한의 경우는 李基文(1957)과 같은 근거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연도를 선택하였다는 점이 혼란스러우며, 福島邦道(1993: 82)에서 그 모호성이 이미 비판받은 바 있다. 런던본은 다른 본과는 다른 사음자를 사용하는 특색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어 1549년이 하한으로 쓰이게 된다(大友信一·木村晟 1968: 48-47[역순]).

다음으로, 滿刺加館譯語의 편찬 연대도 중국과 말라카의 외교 관계라는 언어외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외교 사절단을 보내기 시작한 1403년과 말라카가 포르투갈에

의해 점령된 1511년을 하한으로 설정하게 된다(Edwards and Blagden 1931: 47). 물론 1511년 이후에 저술되었을 수도 있지만 전체 어휘항 중 유럽어에서 차용된 외래어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적어도 유럽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1511년 이전에 어휘항목이 수집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여기에 회동관의 설립이라는 언어외적인 요소를 하나 더 고려하면 1408년을 상한으로 보게 된다.

다음으로, 西番館譯語는 16세기 중엽의 티베트 구어를 반영한다는 언어내적 증거를 통해(西田龍雄 1963: 94, 西田龍雄 1970: 22-23) 대략적으로 그 편찬 시기의 하한을 16세기 중엽으로 잡을 수 있다. 또한 서번관(西番館)은 1407년에 설치되었으므로(西田龍雄 1970: 7) 그 상한은 1407년으로 잡게 된다.

편찬 연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譯語라도 15세기 이후, 16세기 이전에 편찬되었음은 분명하다. 언어내적인 논의 없이도 李基文(1957)을 따라 회동관의 설립 시기인 1408년을 상한으로 잡고, 런던본(London本)에 제시된 수정 연도인 1549년을 하한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편찬 연대는 15세기-16세기라고 해야 맞을 터이나, 본고에서는 표현의 간결성이 요구될 때에는 ‘15세기’라고만 하도록 하겠다.

한편, 李基文(1968: 49)에서는 15세기 국어 중에서도 朝鮮館譯語는 중앙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회동관의 통사들이 조선의 사신들을 접견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표준어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신들이 중앙어만을 사용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망설여진다. 언어내적인 증거가 더욱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朝鮮館譯語가 특정 지역의 방언을 반영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다. 게다가, 日本館譯語에도 오키나와 방언 즉, 유구어(琉球語) 어휘가 들어 있다는 점을 본다면 朝鮮館譯語에 반드시 중앙어만 포함되어 있다고는 더더욱 단정할 수 없을 듯하다. 아래에 해당 예의 일부를 (1)에 제시해 놓았다. 이들 예의 발음 /t/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1]의 1.4.1 참고).

(1)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日-99	正月	燒哇的	fiauguat
			シャウグワチ
日-100	二月	寧哇的	/nigpuat/
			ニグワチ

1.3 연구사 개관

1.3.1 華夷譯語의 연구사 개관

국어학계에 華夷譯語 내 여러 譯語의 연구 상황이 종합적으로 소개된 건 李基文(1957)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생각된다. 李基文(1957)의 정리 이후에 연구의 진전이 있었던 譯語도 있고, 그대로인 譯語도 있다. 이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가) 日本館譯語

日本館譯語에 대한 연구는 일본어학계에서 상당히 진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어휘항에 대한 믿음직스러운 재구가 渡辺三男(1961)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본고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는 여러 譯語 중에서 日本館譯語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고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채택한 연구는 松本丁俊·丁鋒(1997)이다. 松本丁俊·丁鋒(1997)는 여러 기존의 연구들의 재구를 토대로 하되,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국제음성기호로 음성적인 재구를 해놓았다. 會同館系 華夷譯語는 最古 華夷譯語, 四夷館系 華夷譯語 등과 달리 구어 자료를 전사해 놓았으므로 음성학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松本丁俊·丁鋒(1997)이 다른 연구들보다 참고할 만하다 할 수 있다.

물론, 日本館譯語에 대한 내용을 살필 때, 松本丁俊·丁鋒(1997)에만 기댈 수는 없다. 모든 어휘 항목에 대해 일본어학계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몇몇 주요 사용자에게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는 松本丁俊·丁鋒(1997)을 참고하되, 渡辺三男(1961)에서 가나로 재구한 내용과 다

른 선행 연구의 내용도 보조적으로 참고한다. 또한 중세일본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살핍으로써 재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安南館譯語

安南館譯語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한 연구자에 의해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陳荊和(1966), 陳荊和(1967ㄱ), 陳荊和(1967ㄴ), 陳荊和(1968ㄱ), 陳荊和(1968ㄴ), 陳荊和(1968ㄷ)이다. 이들 연구는 서지학적인 면부터 安南館譯語에 담긴 베트남어의 음운 체계까지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를 해놓았기에 安南館譯語 연구의 최고봉을 이루며, 아직까지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安南館譯語의 어휘항 재구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베트남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의 다양성 부족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安南館譯語는 朝鮮館譯語에 담긴 15세기 국어의 초성 음가를 밝히는 데에만 비교 자료로서 활용된다. 陳荊和(1967ㄱ)에 따르면, 安南館譯語는 朝鮮館譯語를 포함한 여러 譯語와는 달리 운모의 사용에서 한어 남방음계(南方音系)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⁷⁾

(다) 西番館譯語

西番館譯語의 2단 어휘항 재구는 두 연구자에 의해서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西田龍雄(1963)에서는 西番館譯語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서지학적 내용 뿐만 아니라, 각 항목에 대응하는 티베트 문어와 구어를 현대 티베트 방언, 티베트 문어, 별도의 티베트어 대역서집 등을 토대로 재구하여 西番館譯語에 담긴 티베트어의 음운과 어휘에 대해서도 밝혔다. 다만, 西田龍雄(1963)은 오로지 아파국본(阿波國本)만을 보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그래서 뒤이어 太田齋(1987)에서는 티베트어 재구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西田龍雄(1963)을 따르되 정가당본(靜嘉堂本)을 참고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西田龍雄(1963)을 기본 자료

7) 다른 譯語들은 북방음계(北方音系)로 파악된다. ‘운모(韻母)’는 국어의 중성과 종성에 대응된다. ‘운모’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2.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로 삼되 太田齋(1987)에서 일본의 비교를 통해서 수정된 내용 중 타당한 것은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西番館譯語는 비록 두 연구자에 의해 재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그 검증이 충분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티베트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의 다양성 부족을 보완하고자 한다.

(라) 畏兀兒館譯語

畏兀兒館譯語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한 연구자에 의해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畏兀兒館譯語의 전체 어휘항에 대한 재구는 유일하게 庄垣内正弘(1984)에서 이루어졌다. 이보다 앞서 庄垣内正弘(1982)에서 畏兀兒館譯語의 대상 언어인 튀르크어의 성격에 대해 논하긴 하였으나 전체 어휘항 재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庄垣内正弘(1984)에서는 각 항목에 대응하는 위구르 구어를 현대 위구르 방언, 몽골어군 언어(Mongolic languages), 몽골 문어와 다른 위구르어 한자 음사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하여 畏兀兒館譯語에 담긴 위구르어의 음운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아직까지 庄垣内正弘(1984)의 연구 결과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畏兀兒館譯語의 어휘항 재구 결과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위구르어와 몽골어군 언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의 다양성 부족을 보완하고자 한다.

(마) 韃靼館譯語

韃靼館譯語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일본에서 한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越智サユリ(2004)는 韃靼館譯語의 형식, 이본 관계 등의 서지학적 연구와 더불어 몽골어의 음운론적 특징까지 세밀하게 살펴본 자료이다. 재구의 과정에서 한자음에만 의지하지 않고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구어 전사 자료로서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몽골 문어 형식과 현대 몽고의 여러 방언과의 세밀한 비교를 통해 당대 몽골어의 음운 체계를 드러냈다.

韃靼館譯語의 어휘항 재구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몽골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살펴봄으

로써 선행 연구의 다양성 부족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때, 韃靼館譯語는 朝鮮館譯語에 담긴 15세기 국어의 초성과 종성의 음가를 밝히는 데에만 비교 자료로서 활용된다. 越智サユリ(2004)에서는 각 한자 음역자에 의해 표현된 몽골어의 음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을 뿐, 다른 주요 참고 문헌과는 달리, 전체 어휘항을 재구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⁸⁾ 비교적 단순한 성모는 越智サユリ(2004)에 제시한 예시들을 토대로 본고의 관점에 맞게 손질하여 쓸 수 있지만, 성모보다 복잡한 운모는 그렇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초성과 종성에 관해서도 전체 어휘항을 살펴보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韃靼館譯語와의 비교 결과는 좀 더 신중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바) 回回館譯語

回回館譯語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일본에서 두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田坂興道(1943ㄱ, 田坂興道(1943ㄴ), 田坂興道(1944), 田坂興道(1951)에서 回回館譯語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천문문(天文門)의 49개 항목만 재구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本田實信(1963)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會同館系 回回館譯語와 四夷館系 回回館譯語를 함께 살펴보고, 전체 어휘 항목과 문례(文例)를 페르시아어로 재구하였다. 본고에서는 本田實信(1963)의 재구 내용 중에서 會同館系 回回館譯語에 관한 내용만을 참고하도록 한다.

回回館譯語는 비록 두 연구자에 의해 재구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그 검증이 충분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다른 譯語에 대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本田實信(1963)에서는 會同館系 回回館譯語의 전체 어휘항목을 재구하기만 하였고, 사음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해놓지 않았다. 또한 음성적인 재구를 하지 않고 음소적인 재구를 하였기에 실제 음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페르시아어의 음운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⁹⁾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페르시아어에 대한

8) 만약 越智サユリ(2004)에서 사음자의 음계를 재구한 방식이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면 분석 내용을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越智サユリ(2004)에서 사음자의 음계 재구에 활용한 자료는 17세기 북경 관화음을 담고 있는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뿐이어서 越智サユリ(2004)에서의 사음자 재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사음자 재구 결과는 다소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연구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의 다양성 부족을 보완하고자 한다.

(사) 滿刺加館譯語, 占城館譯語

滿刺加館譯語를 재구한 Edwards and Blagden(1931)과 占城館譯語를 재구한 Edwards and Blagden(1931)과 Edwards and Blagden(1939)은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였다. 비록 각각 1644개의 사음자 중 484개, 1416개의 사음자 중 104개는 미해결 상태에 있지만 지금껏 滿刺加館譯語와 占城館譯語의 전체 어휘항 재구를 시도한 유일한 자료들이다.

Edwards and Blagden(1931)과 Edwards and Blagden(1939)은 이미 그 연대가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개 한어 음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현대 말레이어와 참어로 어휘항이 재구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占城館譯語와 滿刺加館譯語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게 되어 말레이어와 참어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용을 보완할 것이다. 특히 통시적인 연구들을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최대한 기존 재구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각 譯語와 그 연구사에 근거하여 각 譯語에서 朝鮮館譯語와의 비교에 사용할 것을 아래의 [표 4]에 제시한다.

[표 4]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韃靼館	回回館	滿刺加	占城館
초성	○	○	○	○	○	○	△	△
중성	○	X	○	○	X	○	△	△
종성	○	X	○	○	○	○	△	△

9) 이러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페르시아어는 어말자음군이 있다는 점, 15세기 국어의 후음 ‘ㅇ’의 음가 분석에 도움이 된다는 점, 종성 사음이 매우 활발하여 15세기 국어 종성 음가 도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결코 回回館譯語를 비교 대상 譯語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위의 [표 4]에서 ‘○’은 비교적 신뢰도가 높음을, ‘△’은 비교적 신뢰도가 낮음을, ‘X’는 신뢰할 수 없기에 아예 논의에서 제외함을 뜻하는 기호이다.

1.3.2 朝鮮館譯語의 연구사 개관

朝鮮館譯語는 Ogura(1926)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지만(權仁瀚(1998: 15)에서 재인용) 국어학에서 중요한 자료로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李基文(1957)에서 편찬 연대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진 뒤의 일이다. 李基文(1957) 이후에 국내에서 朝鮮館譯語에 대해 행해진 연구는 종합적인 연구와 세부 주제 연구로 나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종합적인 연구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세부 주제 연구는 논지 전개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져와 참고하도록 하겠다.

朝鮮館譯語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李基文(1968)에서 시작되었다. 李基文(1968)에서는 朝鮮館譯語의 이본 상황을 확인하고 李基文(1957)에서 밝혀낸 朝鮮館譯語의 편찬 연대를 재확인하는 등 서지학적 측면에 관해 구명하는 한편, 朝鮮館譯語에 드러난 15세기 국어 음운과 어휘 등 언어학적 측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다만, 李基文(1968)에서는 전체 어휘항목을 재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5세기 한어 음운 체계를 재구하지 않고 오직 1308년에 편찬된 운서(韻書)인 蒙古字韻에만 기대어 2단과 3단을 재구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姜信沆(1995)에서는 李基文(1968)과는 달리 1442년에 편찬된 운서인 韻略易通과, 1642년에 편찬된 운서인 韻略匯通의 음계를 참고함으로써 15세기 한어 음계와의 거리를 좁혔다는 의의가 있다. 姜信沆(1995)에서는 여러 이본을 교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어휘항에 걸쳐서 어역(語釋)을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15세기 국어에 대해서도 음운과 문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姜信沆(1995)에서 어역(語釋)에 사용된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으로는 여전히 朝鮮館譯語의 15세기 한어 북방음계(北方音系)를 정확하게 재구하기에는 부족하였다.

權仁瀚(1998)에서는 이전 연구들이 지니고 있던 15세기 한어 북방음계 재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였다. 權仁瀚(1998)에서는 中原音韻,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四聲通考(俗音)를 중심 자료로 하고,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을 보조 자료로 하여 15세

기 한어 음계를 음운론적인 방법으로 재구한 후, 이를 토대로 朝鮮館譯語의 2·3단의 항목들을 어역(語釋)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15세기 국어의 음운 체계를 자체적으로 밝혀냈다. 權仁瀚(1998)으로 인하여 비로소 朝鮮館譯語의 연구가 소수의 미해결 항을 제외하고는 완성되었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종합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朝鮮館譯語 연구의 노정(路程)은 아직 그 끝을 보지 못했다고 본다. 權仁瀚(1998)은 朝鮮館譯語 어역(語釋)과 朝鮮館譯語라는 개별 譯語로 살필 수 있는 15세기 국어에 대한 해명은 마무리 지었지만, 會同館系 華夷譯語 중 朝鮮館譯語만을 떼어 내어 개별적으로만 다뤘다는 점이 아쉽기 때문이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한자는 외국어 사음을 위해 국제음성기호와 같은 ‘음성 기호’로 사용되었는데 朝鮮館譯語만을 살핀다면 그 음성 기호로서의 면모를 알 수 없게 된다. 만약 시야를 달리하여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일부로서의 朝鮮館譯語를 인정하고, 다른 譯語의 사음 양상을 살핀다면 지금까지의 朝鮮館譯語 연구 내용을 넓은 시각에서 재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朝鮮館譯語만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면, 이 또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朝鮮館譯語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여러 역학서의 이해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가 진행된다.

2장에서는 기본적 논의를 하게 된다. 2.1에서는 본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한어 음운학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다. 특히, 여기에서 정리하는 한어의 음절 구조는 3.2에서 華夷譯語 사음의 원칙을 규명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인다. 2.2에서는 2.1의 주요 개념을 가지고 華夷譯語를 분석하기 위해 참고할 한어 음계를 정리한 뒤 본고에서 참고한 자료부터 방법론의 한계까지 개별 사음자의 음계를 추정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힌다. 華夷譯語 내의 여러 譯語는 대체로 15세기에 편찬되었기에 15세기의 한어 음계를 참고하게 된다. 2.3에서는 朝鮮館譯語의 사음 음계를 정리함으로써 연구 대상 음계를 확정한다. 본고에서는 15세기-16세기 한어의 여러 음계 중에서

오로지 2.3에서 정한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3장과 4장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 이때, 朝鮮館譯語에 관한 종합적 연구인 權仁瀚(1998)에서 정리한 “진정한 대응 관계에 있는” 음계를 우선 밝히고, 본고에서 權仁瀚(1998)의 음계 중 고치거나 더한 점을 이어서 밝히겠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살핀다. 이때, 국어의 전통적인 차자 표기와의 비교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3.1에서는 華夷譯語 사음의 성격을 정리할 것이다. 이 성격은 華夷譯語 사음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로 기능한다. 3.2에서는 華夷譯語 사음의 원칙 두 가지를 규명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이전에 향찰의 말음첨기 개념에서 따온 ‘첨기’의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겠다. 3.2.1에서는 한어 음절 구조에서 기인한 원칙을 밝힌다. 즉, 연역적으로 도출된 원칙이다. 3.2.2에서는 여러 譯語의 사음 양상을 종합함으로써 알아낸 원칙을 밝힌다. 즉, 귀납적으로 도출된 원칙이다. 3.3부터 3.5에서는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각 음계에 대응되는 음가 범위를 밝혀 본다. 우선, 전항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밝히고, 적절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가려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정리한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朝鮮館譯語에 담긴 국어 음소에 대해 생각해 본다. 4.1에서는 초성을, 4.2에서는 중성을, 4.3에서는 중성을 이야기한다. 4.3에서는 단모음만을 다루기 때문에 한꺼번에 논의가 가능하지만, 논의 대상이 많은 4.1과 4.2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4.1과 4.2에서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거나 특별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제목을 달아 미리 설명하고, 남은 주제에 관해서는 한꺼번에 정리하겠다. 그렇지만 4.1, 4.2, 4.3 모두에서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음소 체계를 재구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후에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 연구 주제를 제안하면서 본고를 끝맺고자 한다.

2. 기본적 논의

2.1 한어 음운학의 주요 개념

여기에서는 성모(聲母), 운복(韻腹), 운미(韻尾), 사호(四呼) 등 한어의 음운학의 여러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平山久雄(1967: 265)에 따르면 한어의 음절 구조는 기본적으로 I/MVET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I(Initial)는 성모를, M(Medial)은 운두를, V(Principal Vowel)는 운복을, E(Ending)는 운미를, T(Tone)는 성조를 나타낸다. 음절 구조 중 성조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외된다. 그렇기에 한어의 음절 구조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한어 음운학의 기본 개념으로는 성모, 운두, 운복, 운미가 남게 된다. 더하여, 본고에서는 청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활용된 개념인 사호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우선 성모, 운두, 운복, 운미에 대해 살펴본 후에 사호에 대한 기술을 더하도록 하겠다.

성모는 국어의 초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별칭으로는 ‘성(聲)’, ‘뉴(紐)’, ‘성뉴(聲紐)’, ‘자모(字母)’가 있다. 전통적으로는 아래 [표 5]가 성모의 기본 체계이다(唐作藩 2000: 57). 물론 괄호 속의 음가는 현대의 학자들에 의해 재구된 것이다.

[표 5]

牙	見[k]	溪[k']	群[g]	疑[ŋ]	
舌	端[t]	透[t']	定[d]	泥[n]	
	知[tʃ]	徹[tʃ']	澄[dʒ]	娘[nj]	
脣	幫[p]	滂[p']	並[b]	明[m]	
	非[pf]	敷[pf']	奉[bv]	微[mj]	
齒	精[ts]	清[ts']	從[dz]	心[s]	邪[z]
	照[tɕ]	穿[tɕ']	牀[dz]	審[ɕ]	禪[z]
喉	影[ʔ]	喻[j]	曉[x]	匣[ɣ]	
半舌	來[l]				
半齒	日[nz]				

성모의 종류와 수는 시대에 따라 변화였다. 위의 [표 5]에 제시된 성모 체계는 중고음의 것이다. 중고음은 한어 음운학의 시대 구분 중 중고시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상술할 것이다.

운두, 운복, 운미는 국어의 중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묶어서 운모라고 부른다. 운모는 운(韻)과는 달리 성조를 구별하지는 않는 대신 운두를 포함한다. 운두, 운복, 운미를 국어의 음절구조에 대응시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운두는 운복에 선행하는 부모음(副母音)에, 운복은 핵모음에, 운미는 핵모음에 후행하는 부모음과 종성에 해당한다. 국어에서 핵모음만으로도 한 음절이 이루어지듯이 한어에서도 운두나 운미가 없이도 음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운미가 없거나 부모음인 ‘음성운(陰聲韻)’, /-m/, /-n/, /-ŋ/과 같이 운미가 비음인 음절을 ‘양성운(陽聲韻)’, /-p/, /-t/, /-k/와 같이 운미가 폐쇄음인 음절을 ‘입성운(入聲韻)’으로 나누어 부른다.¹⁰⁾ 본 연구에서는 국어 음절 구조에 맞추어 운두, 운복, 운미 중 부모음을 묶어서 ‘중성’에 대응시켜 다루고 양성운미와 입성운미만을 ‘종성’에 대응시켜 다룰 것이다.

사호는 입술 모양에 따라 운모를 분류한 것으로서 ‘개구(開口), 제치(齊齒), 합구(合口), 찰구(撮口)’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사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오직 ‘ㅣ’ 모음을 살펴볼 때만 사용하게 된다. 전통적인 등운학(等韻學)에서는 오로지 개구와 합구만을 사용하여 개합(開合)을 따졌으나 청대(清代)에 이르러 이를 다시 사호로 재분석하였다. 潘耒의 類音에 따르면 ‘개구’는 “처음 음이 목구멍에서 날 때 혀와 입술을 펴”서 나는 소리이고, ‘제치’는 “혀를 치아에 대어 소리가 혀와 입천장 사이에서 내는” 소리이고, ‘합구’는 “입술을 오므려서 소리가 턱에 가득 차”서 나오는 소리이고, ‘찰구’는 “입술을 오므려서” 내는 소리이다(唐作藩 2000: 63).

10) 이때, /-m/, /-n/, /-ŋ/을 ‘양 성운미(陽聲韻尾)’라고 부르고, /-p/, /-t/, /-k/를 ‘음성운미(陰聲韻尾)’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후에는 입성운의 경우에는 후에 다른 운으로 파입(波入)되었고, 양성운 중에 운미가 /-m/인 경우도 /-n/ 운미로 합류되는 경향을 보인다.

2.2 15·16세기 한어의 음계

학자마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¹¹⁾ 통상적으로 한어의 발전 과정은 아래의 [표 6]과 같이 크게 네 개의 시기로 나뉠 수 있다(이재돈 2007: 13).

[표 6]

상고 시기	중고 시기	近古 시기	현대 시기
3세기		14세기	20세기

위의 [표 6]에서 상고(上古) 시기는 선진양한(先秦兩漢)을 포함하는 A.D. 2세기 이전, 중고(中古) 시기는 위진(魏晉)부터 송대(宋代)까지를 포함하는 3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근고(近古) 시기는 원대(元代)부터 청말(清末)까지를 포함하는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현대 시기는 오사운동(五四運動: 1919. 5. 4.) 이후인 20세기부터 현재까지이다.

華夷譯語가 편찬된 시기는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로서 네 시기 중 근고(近古) 시기에 해당된다. 근고 시기의 성모와 운모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周德清에 의해 편찬된 中原音韻(1324)이 있다. 근고 시기의 한어 음계를 재구하는 데에 中原音韻의 위상은 대단히 높다. 이 자료는 당시의 대표적인 희곡 작품들에 쓰인 압운자(押韻字)를 토대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북경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북방 음계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權仁瀚 1998: 20). 華夷譯語가 당대 북방음을 기준으로 음역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中原音韻은 華夷譯語 사음자의 음계 재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됨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사음자의 음계이므로 동일 성모 혹은 운모의 음가 변화

11) 학자마다의 이견에 대해서는 李敦柱(1995: 29-35)에 정리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李敦柱(1995)의 시대 구분은 아래와 같다.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B.C.11	B.C.2	B.C.3	A.D.6	A.D.14	A.D.20

는 차치해 두더라도 음계 즉, 성모와 운모의 합류와 분화는 무시할 수 없다. 본래는 이를 위해, 당대에 편찬된 다른 운서들을 참고하여야 하지만 선학들의 철저한 연구가 축적된 덕분에 이러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權仁瀚(1998), 이재돈(2007) 등 최근의 연구를 통해 中原音韻 이후의 음계 변화를 정리하였다. 일단 中原音韻의 성모 체계를 아래의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幫[p]	滂[ph]	明[m]	
非[f]			微[m]
端[t]	透[th]	泥[n]	來[l]
精[ts]	清[tsh]	心[s]	
章[tʃ]	昌[tʃh]	山[ʃ]	日[ʒ]
見[k]	溪[kh]	疑[ŋ]	曉[x]
云[0]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權仁瀚(1998)과 이재돈(2007)에 근거하여 위의 성모는 이후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고 본다. 첫째, 15세기 중엽 이전에 疑母([ŋ])의 소실을 겪는다. 둘째, 微母가 15세기-16세기에는 존재하다가 17세기 이전에 이미 영성모(零聲母)가 되었다. [v]에서 [w]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16세기 이후에 정지음이 권설음화된다. 넷째, 見系와 精系가 늦어도 18세기 이전에는 구개음화된다. 마지막으로, 영성모가 일모자화(日母字化)되어 [ʒ]로 읽히게 된다. 이들 중 疑母의 소실을 제외하고는 朝鮮館譯語가 편찬된 시기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변화들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변화 이전의 中原音韻의 운모 체계는 아래의 [표 8]과 같았다(權仁瀚 1998: 46).

[표 8]

	開口	齊齒	合口	撮口
東鐘	[uŋ] /uŋ/	[iuŋ] /juŋ/		
江陽	[aŋ] /aŋ/	[iaŋ] /jaŋ/	[uaŋ] /waŋ/	
支思	[ɿ] /i/	[i] /jəj/		
齊微	[əi] /əj/		[uəi] /wəj/	
魚模	[u] /u/	[iu] /ju/		
皆來	[ai] /ai/	[iai] /jaj/	[uai] /waj/	
眞侵	[ən] /ən/	[in] /jən/	[uən] /wən/	[iuən] /jwən/
寒山	[an] /an/	[ian] /jan/	[uan] /wan/	
先天		[ien] /jen/		[iuən] /jwen/
桓歡	[ɔn] /on/		[uɔn] /won/	
蕭豪	[au] /aw/	[iau] /jaw/		
歌戈	[ɔ] /o/	[io] /jo/	[uo] /wo/	
家麻	[a] /a/	[ia] /ja/	[ua] /wa/	
車遮		[ie] /jə/		[iuɛ] /jwə/
庚青	[əŋ] /əŋ/	[iəŋ] /jəŋ/	[uəŋ] /wəŋ/	[iuəŋ] /jwəŋ/
尤侯	[əu] /əw/	[iəu] /jəw/		
侵尋	[əm] /əm/	[iəm] /jam/		
監咸	[am] /am/	[iam] /jam/		
廉纖		[iem] /jem/		

權仁瀚(1998)과 이재돈(2007)에 따르면, 위의 체계는 이후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첫째, /-m/ 운미가 /-n/ 운미로 합류하였다. 이 변화는 中原音韻 시기에 이미 순음 성모에서부터 시작되어 16세기 이전에 이미 다른 음절에서 모두 일어났다. 둘째, 桓歡韻 /on/과 先天韻 /en/이 합류하였다. 이 변화는 16세기에 이미 완성되었다. 셋째, 兒化韻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ɹi]로 읽히던 支思韻 日母字들이 [ər]로 읽히게 되었다. 이는 이미 15세기-16세기에 북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 넷째, 歌戈韻 /o/와 車遮韻 /e/가 합류하여 [ɤ]로 읽히게 되었다. 이 변화는 20세기 초에서야 일어난다. 이들 중 朝鮮館譯語가 편찬되던 시기에는 /-m/ 운미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고 車遮韻의 변화와 兒化韻의 성립은 아직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朝鮮館譯語 시기의 운모 체계는 아래의 [표 9]

와 같이 변화하였다(權仁瀚 1998: 57).

[표 9]

	開口	齊齒	合口	撮口
東鐘	[uŋ] /uŋ/	[iuŋ] /juŋ/		
江陽	[aŋ] /aŋ/	[iaŋ] /jaŋ/	[uaŋ] /waŋ/	
支思	[ɿ], [ə] /i/, /ɛ/	[i] /jĩ~jəj/		
齊微	[əi] /əj/		[uəi] /wəj/	
魚模	[u] /u/	[iu] /ju/		
皆來	[ai] /ai/	[iai] /jai/	[uai] /waj/	
眞侵	[ən] /ən/	[in] /jən/	[un] /wən/	[iun] /jwən/
寒監	[an] /an/	[ian] /jan/	[uan] /wan/	
先廉		[ien] /jen/		[iuən] /jwən/
桓歡	[ɔn] /on/		[uɔn] /won/	
蕭豪	[au] /aw/	[iau] /jaw/		
歌戈	[ɔ] /o/	[io] /jo/	[uo] /wo/	
家麻	[a] /a/	[ia] /ja/	[ua] /wa/	
車遮	[ɛ] /ə/	[ie] /jə/	[ue] /wə/	[iue] /jwə/
庚青	[əŋ] /əŋ/	[iŋ] /jəŋ/	[uŋ] /wəŋ/	[iuŋ] /jwəŋ/
尤侯	[əu] /əw/	[iu] /jəw/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朝鮮館譯語와 華夷譯語 내의 여러 譯語를 비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譯語를 일일이 재구하지 않고 선학들의 연구 내용, 즉 2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1.3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개별 언어의 전문가들이 이뤄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직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한 것들이다. 이때, 각 논저에서는 한자음을 재구해 놓기는 하였지만 그 기준으로 아래의 [표 10]과 같이 각기 다른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0]

1차 자료	2차 자료	저본	한자음 재구 자료
朝鮮館譯語	權仁瀚(1998)	稻葉君山本	中原音韻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四聲通考 韻略易通
日本館譯語	松本丁俊·丁鋒(1997)	阿波國文庫本 London大學本 稻葉君山本 静嘉堂文庫本	西儒耳目資
安南館譯語	陳荊和(1966)	阿波國文庫本	中原音韻 韻略易通 中華新韻
西番館譯語	西田龍雄(1963) 齋太田(1987)	静嘉堂文庫本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畏兀兒館譯語	庄垣内正弘(1984)	阿波國文庫本 静嘉堂文庫本 London大學本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韃靼館譯語	越智サユリ(2004)	静嘉堂文庫本 阿波國文庫本 稻葉君山本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回回館譯語	本田實信(1963)	London大學本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滿刺加館譯語	Edwards and Blagden(1931)	London大學本	Giles(1898)
占城館譯語	Edwards and Blagden(1939)	London大學本	Giles(1898)

가장 많은 2차 자료에서 사용된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1606)은 17세기 초의 북방 관화음을 반영하고 있는 운도(韻圖)이다. 이는 權仁瀚(1998)에서도 中原音韻 다음으로 15세기-16세기 북방음계(北方音系)를 재구하는 데에 주요하게 사용되었다. 韻略易通(1442)은 15세기의 자료로서 입성이 존재하고 魚模韻이 둘로 나뉘어 있는 등 中原音韻과는 다른 점이 있으나 성모 이외의 문제에 대해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安南館譯語의 운모는 다른 譯語들과는 달리 남방음의 특색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운서가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朝鮮館譯語와 여러 譯語의 사음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會同館系 華夷譯語에 사용된 모든 사음자를 동일한 음계로 맞추어 통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표의 문자인 한자의 음을 서로 비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통일의 기준은 앞 절에서 제시한 權仁瀚(1998)의 15세기 북방 재구음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각 사음자의 성모와 운모를 밝혔다.

우선, 기본적으로 많은 한자에 대한 음계 정보를 담고 있는 中原音韻을 바탕으로 모든 사음자들의 음계를 통일한 후, 앞 절에서 정리한 中原音韻 이후의 변화에 대해 고려하여 다시 그 음계를 변환하였다. 이때, 中原音韻의 정보는 李珍華·周長楫(1999)와 藤堂明保(1978)를 참고하였다. 藤堂明保(1978)는 상고음, 중고음, 근대음, 현대음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한자음 사전으로서 동음 글자들의 어음 변화 규율에 따라 근대 이후 쓰이기 시작한 글자들의 어음도 재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음자가 수록되어 있다.

이때, 성모는 中原音韻을 기준으로 하여 전통적인 명칭인 見母, 溪母 등으로 통일하였지만, 운모는 로마자로 통일하였다. 성모의 경우는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중고음으로부터 비교적 규칙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기 때문에 藤堂明保(1978)에 정보가 없는 사음자의 음계도 쉽게 알아낼 수 있지만¹²⁾ 운모의 경우는 중고음에서 中原音韻 시기로의 변화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성모와 같은 방식으로 추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李珍華·周長楫(1999)에 제시된 中原音韻의 운모를 1차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藤堂明保(1978)를 참고하여 中原音韻 시기의 운모를 로마자로 재구한 후, 그 표기 방식을 權仁瀚(1998)에 맞추고 權仁瀚(1998: 49)에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최대한 15세기 한어에 가깝게 재구하고자 노력하였다. 가령, 藤堂明保(1978)에서 ‘i’, ‘u’로 표기되어 있던 개음과 운미는 權仁瀚(1998)의 표기 방식에 맞추어 ‘j’와 ‘w’로 표기하였다. 또한 朝鮮館譯語에 수록된 사음자들과 그 한자들과 동음(同音)인 것들은 權仁瀚(1998)을 기준으로 변환하였다.

12) 성모의 변화 규칙은 이제돈(2007: 237)에서 제시한 다음 세 가지를 참고하였다. 첫째, 중고 전탁성모가 무성음화하였다. 둘째, 疑母의 대부분은 영성모로 변화하였다. 셋째, 知母와 照母가 하나의 성모로 합류하였고, 澄母도 평성(平聲)에서는 穿母, 측성(仄聲)에서는 照母로 합류하였다.

그러나 中原音韻 시기의 한어 음계와 15세기의 한어 음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權仁瀚(1998)을 기준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개별 한자의 어음을 새로이 재구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이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로 운모를 재구하였다. 하나는 상술한, 藤堂明保(1978)를 참고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 한자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朝鮮館譯語에서 각 중성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들을 사음한 개별 한자들이 다른 譯語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구체자 검증’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두 번째 방법도 적은 수의 사음자만을 분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두 단계의 분석 방법이 서로를 보완하여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3 朝鮮館譯語의 음계

2.3.1 초성

權仁瀚(1998)에서 분석한 朝鮮館譯語에서 국어 초성이 사음된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1열		2열	3열	4열	5열
해례식 분류		자음	사음자의 성모		추정 음가
아음		/ㄱ/	見母 /k/		/k/
		/ㅋ/	溪母 /kh/		/kh/
설음		/ㄷ/	端母 /t/		/t/
		/ㅌ/	透母 /th/		/th/
		/ㄴ/	泥母 /n/		/n/
반설음		/ㄹ/	來母 /l/		/l/
순음		/ㅍ/	幫母 /p/		/p/
		/ㅑ/	滂母 /ph/		/ph/
		/ㅓ/	明母 /m/		/m/
순경음		/ㅍ/	(幫母 /p/)	(滂母 /ph/)	/β/
치음		/ㅈ/	精母 /c/	照母 /cR/	/c/ [ʈ~ʈʰ]
		/ㅊ/	穿母 /ch/	淸母 /cRh/	/ch/ [ʈʰ~ʈʰʰ]
		/ㅅ/	心母 /s/	審母 /sR/	/s/ [s~ʃ]
반치음		/ㅅ/	(精母 /c/)	(日母 /zR/)	[z]
후음		/ㅎ/	曉母 /h/		/h/
		/ㅇ/	(見母 /k/)		/ŋ/
합용병서	ㄸ계	/ㄸ/	(端母 /t/)		미정
		/ㅌ/	(幫母 /p/)		미정
	ㅌ계	/ㅌ/	(端母 /t/)		미정
		/ㅑ/	(審母 /sR/)		미정
		/ㅓ/	(端母 /t/)		미정

[표 11]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열에서는 訓民正音 解例本식의 분류로서 자음을 조음 위치에 따라 범주화한 명칭을 빌려 초성 자음을 범주화하였다. 2열에서는 權仁瀚(1998)에서 사음의 대상으로 추정된 국어 초성 자음을 제시하였다. 3열과 4열에서는 사음자의 성모를 ‘전통적 명칭 /權仁瀚(1998)의 로마자 재구음/’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3열과 4열에서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성모는 국어 초성 자음과 “진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보충적 표기이다. 괄호 안에 들어 있지 않는 성모는 국어 초성 자음과 “진정한 대응 관계”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5열에서는 사음의 대상으로 추정된 국어 초성 자음의 음가를 權仁瀚(1998)에서 재구한 바를 제시하였다.

아래에 權仁瀚(1998)에서 朝鮮館譯語의 초성 자음 각각의 사음 방식을 분석한 내용을 訓民正音 解例本식의 분류에 따라 묶어 간략히 소개하였다. 단, 치음(齒音)의 경우에는 사음 양상이 복잡하여 개별적으로 소개하였다. 모두 權仁瀚(1998)에서 참고한 바이므로 서술의 간결성을 위해 따로 참조주는 달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가) 아음 ‘ㄱ’, ‘ㅋ’

아음 ‘ㄱ’, ‘ㅋ’는 각각 見母, 溪母로 사음되었다.

‘ㄱ’에 대응되는 성모는 見母, 溪母, 曉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을 이루는 성모는 見母이다. 溪母와 曉母의 경우 각각 2항목과 1항목에만 대응되어 예외적인 대응관계로 해석되었다.

‘ㅋ’에 대응되는 성모는 溪母뿐이었다.

(나) 설음 ‘ㄷ’, ‘ㅌ’, ‘ㄴ’, ‘ㄹ’

설음 ‘ㄷ’, ‘ㅌ’, ‘ㄴ’, ‘ㄹ’는 각각 端母, 透母, 泥母, 來母로 사음되었다.

‘ㄷ’에 대응되는 성모는 端母, 透母, 章母(/cR/), 見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을 이루는 성모는 端母이다. 透母는 어형의 변화와 청취의 문제를 이유로, 章母는 당시 중국음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見母는 구개음화를 이유로 하여 예외적인 대응관계로 해석되었다.

‘ㅌ’에 대응되는 성모는 透母, 端母, 精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을 이루는 성모는 透母이다. 端母는 당시 한어 음운의 분포적 결핍성과 간섭현상을 이유로, 精母는 한어의 간섭현상을 이유로 예외적인 대응관계로 해석되었다.

‘ㄴ’에 대응되는 성모는 泥母, 來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을 이루는 성모는 泥母이다. 來母의 경우는 그 수가 3항목으로서 적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어 음운의 분포적 결핍성과 현대 한어 방언과의 비교를 통해 예외적인 대응 관계로 해석되었다.¹³⁾

13) 姜信沆(1980: 127)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鷄林類事에서는 국어의 ‘ㄴ’을 사음하는 데에 來母字는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權仁瀚(1998)에서와 같이 [l]과 [n]의 조음위치가 동일하고 조음방법이 거의 같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또한 중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북방음의 /l/과 방언의 /n/이 자주 대응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ㄹ’에 대응되는 성모는 예외 없이 來母뿐이었다.

(다) 순음 ‘ㄴ’, ‘ㄷ’, ‘ㄹ’

순음 ‘ㄴ’, ‘ㄷ’, ‘ㄹ’은 각각 幫母, 滂母, 明母로 사음되었다.

‘ㄴ’에 대응되는 성모는 幫母와 滂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을 이루는 성모는 幫母이다. 滂母는 그 수가 5항목으로서 적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어 음운의 간섭 현상으로 인해 유기음과 무기음 간의 구별이 무시되어 발생한 예외적인 대응 관계로 해석되었다.

‘ㄷ’에 대응되는 성모는 滂母, 幫母, 非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을 이루는 성모는 滂母이다. 비록 幫母가 滂母보다 ‘ㄷ’을 사음하는 데에 더 많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한어 음운의 간섭 현상이 발생하고, 청취 감각상 유기음과 무기음 간의 구별이 무시되어 생긴 예외적인 대응관계로 해석되었다.

‘ㄹ’에 대응되는 성모는 明母와 影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을 이루는 성모는 明母이다. 影母字로 사음된 항목은 1단 한어 성모의 영향을 받은 예외적인 대응관계라고 해석되었다.

(라) 순경음 ‘ㄴ’

순경음 ‘ㄴ’과 진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는 성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국어의 초성 ‘ㄴ’에 대응되는 성모는 幫母와 滂母이다. 대다수는 幫母로 사음되었으나 그 음가가 幫母로 충분히 표현될 수 없었기 때문에 滂母로도 1개 항목이 사음되었다고 해석되었다.

(마) 치음 ‘ㄷ’, ‘ㄸ’, ‘ㄹ’

치음 ‘ㄷ’에 대응되는 성모는 照母와 精母이다. ‘ㄷ’에 대응되는 한어의 성모는 精母, 照母, 穿母, 審母, 端母, 見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은 照母와 精母뿐이다. ‘ㄷ’가 비구개성 모음과 결합하면 照母로 사음되고, 구개성 모음과 결합하면 精母로 사음된 것이다.

치음 ‘ㄸ’에 대응되는 성모는 穿母와 淸母이다. ‘ㄸ’에 대응되는 한어의 성모는 淸

母, 穿母, 精母, 照母, 心母, 見母, 端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은 照母와 精母뿐이다. ‘ㄷ’가 비구개성 모음과 결합하면 穿母로 사음되고, 구개성 모음과 결합하면 清母로 사음된 것이다.

치음 ‘ㄴ’에 대응되는 성모는 心母와 審母이다. ‘ㄴ’에 대응되는 한어의 성모는 心母, 審母, 照母, 穿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은 心母와 審母뿐이다. ‘ㄴ’가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면 心母로 사음되고, 구개성 모음에 선행하면 審母로 사음된 것이다.

(바) 반치음 ‘ㄷ’

반치음 ‘ㄷ’의 사음 방식은 다른 치음 계열의 초성 ‘ㄴ’, ‘ㄷ’, ‘ㄷ’의 사음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ㄷ’에 대응되는 한어의 성모는 日母, 影母, 精母, 照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은 없다. 다만, 日母의 조음방법상의 특징과 精母의 조음위치상의 특징을 종합하여 ‘ㄷ’의 음가가 [z]라고 결론이 내려졌을 뿐이다.

(사) 후음 ‘ㅎ’, ‘ㅇ’

후음 ‘ㅎ’와 ‘ㅇ’는 각각 曉母와 見母로 사음되었다.

후음 ‘ㅎ’에 대응되는 성모는 曉母, 幫母, 影母이지만 이들 중 진정한 대응을 이루는 성모는 曉母뿐이다.

후음 ‘ㅇ’를 사음하는 데에 사용된 한어의 성모가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다만, 李基文(1968)의 논의를 참고하여 적극적 기능의 ‘ㅇ’가 모두 見母로 사음되고 있으며,¹⁴⁾ 이러한 사음 방식은 당시 ‘ㅇ’의 음가를 [ɣ]로 추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정리하였을 뿐이다.

(아) ‘ㄴ’계·‘ㄷ’계·‘ㅌ’계 합용병서

朝鮮館譯語에 사음된 ‘ㄴ’계 합용병서로는 ‘ㄴ’, ‘ㄴ’가, ‘ㄷ’계 합용병서로는 ‘ㄷ’,

14) 다른 譯語에서는 /ɣ/가 影母로 사음되기도 하였는데, 朝鮮館譯語에서는 ‘ㅇ’가 影母로 사음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ㅼ’가, ‘ㅼ’계 합용병서로는 ‘ㅼ’가 있다. 이들은 모두 제2요소의 평음과 다르지 않게 사음되었다.

‘ㄸ’, ‘ㅌ’, ‘ㅍ’는 ‘ㄷ’와 같이 端母로, ‘ㅅ’는 ‘ㅈ’와 같이 幫母로, ‘ㅃ’는 구개성 모음이 후행하는 ‘ㅈ’와 같이 審母로 사음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한어에서 국어의 경음이나 어두 자음군을 적절히 사음할 길이 없었기에 평음의 대응관계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 李基文(1968)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본고에서는 [표 11]에 정리된 權仁瀚(1998)의 내용 대부분을 수용하되, 다음과 같이 일부를 추가·수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가) 非母 추가

非母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다른 譯語에서 非母가 사용된 양상을 밝힘으로써 ‘ㄴ’의 음가를 밝히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訓民正音 解例本을 비롯하여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까지의 여러 문헌에서는 ‘ㄴ’과 한어의 非母가 연결되어 있음이 보인다(李基文 1968: 60).¹⁵⁾ 그렇기에 朝鮮館譯語에서도 ‘ㄴ’가 非母에 대응되리라 추측하기 쉽다. 그런데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朝鮮館譯語에서 ‘ㄴ’는 非母로는 전혀 사음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李基文(1968)에서는 “非母는 무성순치음이므로 유성양순음인 국어의 /ㄴ/를 표기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던 것”이며, 非母보다 幫母가 국어의 ‘ㄴ’를 표기하기에 적합한 편이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는데¹⁶⁾ 權仁瀚(1998: 223)에서도 이러한 분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학들의 분석은 朝鮮館譯語만으로는 충분히 문헌 증거를 딸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朝鮮館譯語에서는 非母가 (2)와 같이 朝-5, 36, 37, 38 등 네 항에서만 보인다. 여기에 사용된 非母字는 ‘ㄴ(fuᄃ)’으로서 ‘風’의 한자음을 사음할 때에 사용되는 데에 그쳤다.

15) 李基文(1968: 60): “訓民正音에서 「ㄴ」는 脣輕音의 非母에 對當되었으며 실제로 洪武正韻譯訓, 四聲通考 및 四聲通解에서는 非母의 표기에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16) 李基文(1957), 金完鎭(1967), 姜信沆(1995)도 의견을 같이 한다.

(2)

고유번호	1단	2단	3단
朝-5	風	把論 브롬	捧 풍
朝-36	大風	捎把論 큰브롬	打捧 대풍
朝-37	小風	哲根把論 저근브롬	杓捧 쇼풍
朝-38	涼風	燦把論 즌브롬	兩捧 랑풍

게다가, 이러한 사음 방식은 “風’의 漢音에 이끌린 결과”라는 게 權仁瀚(1998: 77)의 분석이다. 그렇기에 실제로 왜 ‘빙’가 非母가 아닌 幫母로만 표기되었는지는 朝鮮館譯語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다른 譯語에서 非母가 사용된 양상을 밝힘으로써 ‘빙’의 정확한 음가를 밝히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나) ‘ㅍ’ 추가

‘ㅍ’가 다른 譯語에서 어떻게 표기되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ㅍ/의 사음 양상을 밝힘으로써 후음 ‘ㅇ’의 음가를 밝히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李基文(1968: 62)에서는 朝鮮館譯語에서 후음 ‘ㅇ’의 음가는 [ɸ]로 지목되었다.¹⁷⁾ 權仁瀚(1998: 250)에서도 이 의견을 따르고 朝鮮館譯語에는 후음 ‘ㅇ’가 [ɸ]의 음가를 지니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朝鮮館譯語보다 늦은 시기의 국어를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訓民正音 解例本の 후음 ‘ㅇ’의 음가는 [ɸ]라고 재구되는데, 이 후음 ‘ㅇ’는 “주로 특수한 위치의 ‘ㄱ’([g])에서 변화한 것으로 이 변화는 대체로 13세기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李基文 1977: 17). 이와 같은 선학들의 연구에 따르면, 후음 ‘ㅇ’는 [g]>[ɸ]>[h]와 같은 과정을 거쳐 훈민정음(해례)의 시기에는 이미 음소로서 정착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학들의 분석은 朝鮮館譯語만으로는 충분히 문헌 증거를 딸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朝鮮館譯語에서는 후음 ‘ㅇ’가 ‘ㄱ’와 같이

17) 이때의 후음 ‘ㅇ’는 李基文(1977: 16-17)에서 밝힌 두 종류의 후음 ‘ㅇ’ 중에서 “적극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어두에 자음이 없음을 표시하는 후음 ‘ㅇ’와는 대별된다.

見母로 사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見母로 사음된 것들의 일부가 정음 문헌에서 후음 ‘ㅇ’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후음 ‘ㅇ’이었다고 추측된 것이며, 아마도 [h]보다는 조음 위치가 한어의 見母에 가깝고, 그러면서도 [g]와 [h]를 이어주기에 적합한 [ɣ]가 朝鮮館譯語에 쓰인 후음 ‘ㅇ’의 음가가 아닐까 가설을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ɣ]를 지니고 있었던 다른 언어에서 그 사음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가설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대고, 후음 ‘ㅇ’의 발생 과정(‘ㄱ’ 약화)과 그 음가를 추정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다) 자음군의 사음 양상 추가

자음군의 사음 양상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두 자음군의 사음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15세기 국어 합용병서의 음가를 밝히고 국어 차자 표기 자료의 ‘첨기’를 이해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본다.

李基文(1968: 57)에서는 朝鮮館譯語에 합용병서에 대한 해당 예도 적을 뿐 아니라 표기상 평음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은 “필시 그 表記法의 粗略性에 基因하는 것”인데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중국인의 귀에는 국어의 /ɾ/이나 /ɸ/이 ‘ㄷ’과 구별하기 어려웠거나, 구별할 수는 있었다 해도 표기하기 어려웠거나 했을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는데, 權仁瀚(1998: 251)에서도 이 해석을 따랐다.

이러한 분석은 역시 朝鮮館譯語만으로는 충분히 문헌 증거를 딸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선학들의 분석은 朝鮮館譯語에 사음된 어두 합용병서의 음가가 평음과는 달랐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ㄷ’계 합용병서가 어두 자음군이었고 ‘ㄴ’계 합용병서가 된소리였다는 통설은 정음 문헌의 일관된 표기 경향과 ‘햐쌀’과 같이 어중에 남아 있는 화석형에 기댄 분석이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다른 譯語에서 자음군이 사음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해석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李基文(1968: 57)은 朝鮮館譯語에서는 어두 합용병서가 평음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1음절이었던 반면에 鷄林類事에서 ‘米’를 ‘菩薩’라 한 것이 2음절의 표기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만약 한어의 사음 전통에 자음군을 표기하는 방식이 존재했다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이 해석에 대해서도 검토하

고자 한다.

(라) ‘△’의 사음 양상 수정

‘△’의 사음 양상을 수정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가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는 경우에는 精母로, 구개성 모음에 선행하는 경우에는 日母로 표기되었다고 본다.

權仁瀚(1998)에서는 ‘△’가 日母와 精母 모두에 대응된다는 점은 정리하였지만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가 체계적으로 사음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日母에서 조음 방법상의 특징을, 精母에서 조음 위치상의 특징을 빌려 ‘△’의 음가를 [z](치두 유성마찰음)로 결론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왜 日母에서는 조음 방법상의 특징을, 精母에서는 조음 위치상의 특징을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였다. 기존에 ‘△’가 [z]일 것이라는 통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精母에서 조음 방법상의 특징을, 日母에서 조음 위치상의 특징을 가져왔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시각을 달리 한다. 본고에서는 權仁瀚(1998)에서 다른 치음 ‘ㄸ’, ‘ㅈ’, ‘ㅊ’의 사음 방식을 분석한 방법과 동일하게 ‘△’의 사음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朝鮮館譯語에서 국어의 초성 ‘△’는 후행하는 모음이 구개성 모음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사음됨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우선, 朝鮮館譯語에서 日母로 사음된 ‘△’와 精母로 사음된 ‘△’를 (3)과 (4)에 모두 정리하였다.

(3)

교유번호	1단	2단	3단
朝-2	日	害 H히	忍 실
朝-22	日出	害那格大 히나거다	忍處 실출
朝-23	日落	害底格大 히디거다	忍刺 실락
朝-24	日長	害吉大 히길다	忍掌 실당
朝-25	日短	害迭勒大 히더르다	忍膽 실단
朝-26	日照	害必翠耶大 히비취여다	忍着 실조
朝-27	日暖	害得大 히덥다	忍扱 실난
朝-332	小人	원결	杓忍 쇼신
朝-333	男子	扱忍 남신	扱自 남즈
朝-334	婦人	呆忍 녀신	卜忍 부신
朝-335	富人	憂怎撤論 가슴사름	卜忍 부신
朝-336	貧人	憂扱撤論 가난사름	平忍 빈신
朝-337	好人	朶根撤論 도흔사름	活忍 호신
朝-338	歹人	莫底撤論 모딘사름	大忍 대신
朝-339	商人	亨整撤論 흥정사름	賞忍 상신
朝-340	匠人	원결	掌忍 장신
朝-367	從人	원결	著忍 종신
朝-368	夷人	원결	以忍 이신
朝-379	如今	耶在 열재	熱根 셔금
朝-460	錦褥	원결	根弱 금속
朝-499	肉	果吉 고기	入 속

(4)

교유번호	1단	2단	3단
朝-122	秋	格自 ㄱ슬	處 추
朝-123	冬	解自 겨슬	董 동
朝-135	冬至	解自臥那大 겨슬오나다	董直 동지
朝-319	第	阿自 아스	迭 데
朝-335	富人	憂怎撤論 가슴사름	卜忍 부신
朝-392	五拜	打色墨立左雜 다숫머리조사	臥擺 오빅

위의 표에 제시된 바를 살펴보면, ‘△’가 후행하는 모음의 구개성에 따라 사음 방식이 달라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비구개성 모음 앞에서는 精母

로, 구개성 모음 앞에서는 日母로 사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함으로써 기존에 [z]로만 생각되었던 ‘△’의 음가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그 변이음을 살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본고에서 15세기 국어 초성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 살펴볼 성모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1열		2열	3열	
해례식 분류		자음	분석 대상 성모와 음가	
아음		/ㄱ/	見母 /k/	
		/ㅋ/	溪母 /kh/	
설음		/ㄷ/	端母 /t/	
		/ㅌ/	透母 /th/	
		/ㄴ/	泥母 /n/	
반설음		/ㄹ/	來母 /l/	
순음		/ㅍ/	幫母 /p/	
		/ㅂ/	滂母 /ph/	
		/ㅁ/	明母 /m/	
순경음		/ㄴㅇ/	(幫母 /p/)	(滂母 /ph/) 非母 /f/(추가)
치음		/ㅈ/	精母 /c/	照母 /cR/
		/ㅊ/	穿母 /ch/	淸母 /cRh/
		/ㅅ/	心母 /s/	審母 /sR/
반치음		/ㄷ/	精母 /c/(수정)	日母 /zR/(수정)
후음		/ㅎ/	曉母 /h/	
		/ㅇ/	(見母 /k/)	‘ㅇ’(추가)
합용병서	ㄴ계	/ㄷㄷ/	(端母 /t/)	
		/ㅌㅌ/	(幫母 /p/)	
	ㅁ계	/ㅌㄷ/	(端母 /t/)	
		/ㅌㅍ/	(審母)	
		/ㅌㅌ/	(端母 /t/)	

[표 12]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표 11]과 동일하다. 다만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 첫째, 權仁瀚(1998)의 추정 음가를 제시한 [표 11]의 5열은 없었다. 둘째, [표 12]의

3열은 [표 11]에서는 ‘사음자의 성모’를 정리하는 데에만 쓰였지만 여기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성모와 음가를 모두 나타내는 데에 쓰였다. 셋째, 상기 논의를 통해 수정되고 추가된 분석 대상 성모와 음가의 경우에는 따로 ‘(수정)’ 혹은 ‘(추가)’를 붙였다.

2.3.2 종성

權仁瀚(1998)에서 분석한 朝鮮館譯語에서 국어 종성이 사음된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

분류	자음	사음자의 성모와 운미			
아음	/-ㄱ/	∅	/-ŋ/		
	/-ㅇ/	/-ŋ/			
설음	/-ㄷ/	∅			
	/-ㅌ/				
	/-ㄴ/	/-n/			
반설음	/-ㄹ/	兒化韻/r/	來母 /l/	/-n/	∅
순음	/-ㅁ/	∅	幫母 /p/		
	/-ㅂ/	/-n/	明母 /m/		
치음	/-ㅅ/	心母 /s/	/ -n/	∅	
	/-ㅆ/			∅	
	/-ㅈ/			∅	
반치음	/-ㅊ/	精母 /c/	/-n/		
합용병서 (겹받침)	/-ㄷㅇ/	兒化韻/r/	∅		
	/-ㄹㅇ/				

[표 13]의 구성은 2.4.1의 [표 11], [표 12]와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3열에서 6열까지의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사음자의 성모를 ‘전통적 명칭 /權仁瀚(1998)의 로마자 재구음/’의 순으로 제시한 것 외에 ‘∅’ 그리고 ‘/ -n/’와 ‘/ -ŋ/’를 사용하여 각각 사음에서 무시된 경우와 한어 운미 /-n/ 혹은 /-ŋ/으로 사음된 경우를 나타내었다.

아래에 權仁瀚(1998)에서 朝鮮館譯語의 중성 자음 각각의 사음 방식을 분석한 내용을 訓民正音 解例本식의 분류에 따라 묶어 간략히 소개하였다. 모두 權仁瀚(1998)에서 참고한 바이므로 서술의 간결성을 위해 따로 참조주는 달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가) 아음 ‘ㄱ’, ‘ㅇ’

아음 ‘ㄱ’의 사음은 朝鮮館譯語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사음에서 무시되어 ‘∅’에 대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1개의 ‘ㄱ’가(朝-271) 운미 /-ŋ/(庚靑韻)으로 사음되고 있음이 보인다. 이는 중성 ‘ㄱ’와의 조음위치만을 고려하여 입성 운미가 소실된 한어 화자의 차선택이라고 분석되었다.

權仁瀚(1998: 254-259)에 따르면, 국어의 중성 ‘ㅇ’는 한어의 운미 /-ŋ/(東鍾韻, 江陽韻, 庚靑韻)에 절대 다수로 대응되었다. 이는 당시 한어 운미의 /-ŋ/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는 한어의 운미 /-n/로 사음되었는데, 權仁瀚(1998: 258)에서는 현대 한어 방언과의 비교와 中原音韻의 正語作詞起例의¹⁸⁾ 내용을 통해 “眞文韻이 庚靑韻에 합류된 北方 方言圈의 인물(또는 그 방언권의 영향을 받은 인물)에 의한 寫音例”로 보았다.

(나) 설음 ‘ㄷ’, ‘ㅌ’, ‘ㄴ’, ‘ㄹ’

설음 ‘ㄷ’과 ‘ㅌ’는 모두 사음에서 무시되어 ‘∅’에 대응되고 있다. 이는 한어의 입성 운미가 파입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ㄷ’과 ‘ㅌ’가 똑같이 사음에서 무시된 점은 이들의 발음이 중성 위치에서 중화되었음을 암시한다고 하였다.¹⁹⁾

설음 ‘ㄴ’는 한어의 운미 /-n/(眞侵韻, 寒監韻, 桓歡韻)에 절대 다수로 대응하였다. 극히 일부만이 /-ŋ/에 대응되거나 무시되었다. 이는 당시 한어 운미의 /-ŋ/이

18) 吳禮權(1997: 213)에 따르면, 中原音韻은 총 두 권으로 나뉘는데, 1권이 音韻이고, 2권이 正語作詞起例이다. 이 正語作詞起例는 자음(字音)의 변별, 용자(用字)의 방법, 궁조(宮調), 곡패(曲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 權仁瀚(1998)에서 “중화되었”다고 한 것은 미파화까지를 한꺼번에 암시하는 듯하다. 만약 사음에서 ‘∅’에 대응된다는 것만으로 ‘ㄷ’과 ‘ㅌ’가 한 음으로 중화되었다고 한다면 1항목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에 대응되는 중성의 ‘ㄱ’와도 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어의 종성 ‘ㄹ’은 來母字인 ‘勒’이나 兒化韻인 ‘二’로 첨기되었다. 이들은 모두 2단의 사음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어의 운미 /-n/ (眞侵韻, 寒監韻, 桓歡韻)으로 사음된 경우나 ‘ㅇ’에 대응된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당시 한어의 入聲韻尾 소실에 기인한 표기로서 진정한 대응 관계에 있지 않다고 분석되었다. ‘勒’과 ‘二’의 사용은 서로 음가의 차이가 아닌 문법범주상의 차이를 반영한 것에 그치고 모두 설측음의 사음에 이용된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二’는 체언의 종성 ‘ㄹ’을 표현하기 위하여, ‘勒’은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였기 때문이다.²⁰⁾

(다) 순음 ‘ㄴ, ㄷ, ㄹ’

순음 ‘ㄴ’과 ‘ㄷ’은 대부분 사음에서 무시되었지만 ‘ㄴ’의 일부는 幫母인 ‘卜’으로 첨기되었다고 분석되었다.²¹⁾ ‘卜’이 ‘ㄴ’의 ‘첨기’에²²⁾ 사용된 경우는 (5)의 2개 항목이다.

(5)

고유번호	1단	2단	3단
朝-128	冷	尺卜大 <u>칠</u> 다	稜 링
朝-129	熱	得卜大 <u>덜</u> 다	耶 열

20) 한편,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의 종성 ‘ㄹ’ 표기법에 관한 연구인 文璇奎(1960)에서는 朝鮮館譯語에서 ‘二’로 첨기한 종성 ‘ㄹ’은 “「-ㄹ」 부분이 强하게 나오는 境遇”이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比較的 經하게 나”는 종성 ‘ㄹ’을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文璇奎(1960) 강한 종성 ‘ㄹ’과 약한 종성 ‘ㄹ’이 음성학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來母字에 의한 첨기도 고려하지 않았다. 文璇奎(1960)는 아직 朝鮮館譯語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의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 어휘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21) 權仁瀚(1998: 270)에서는 15세기 국어 종성의 ‘ㄴ’ 일부가 한어의 운미 /-n/에 의해 사음되었다고 한 것은 비음동화의 결과로 [ㄴ]이 된 /ㄴ/이 한어의 운미 /n/에 의해 사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華夷譯語는 음성적으로 전사되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한어의 운미 /-n/은 결국 종성 ‘ㄴ’에 대응하는 것이지 종성 ‘ㄴ’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게 되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華夷譯語의 주요 성격인 ‘음성전사’에 관한 논의는 3.1에서 이루어진다.

22) ‘첨기’의 개념 정의는 3.2에서 이루어진다.

순음 ‘ㄱ’은 한어의 운미 /-n/ (眞侵韻, 寒監韻, 桓歡韻)에 절대 다수로 대응하였다. 극히 일부만이 /-ŋ/에 대응되거나 明母字인 ‘門’으로 첨기되었다. 그러나 한어의 운미 /-n/이 국어의 종성 ‘ㄱ’과 진정한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근대음 시기에 운미 /-m/이 운미 /-n/에 합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라) 치음 ‘ㅅ’, ‘ㅈ’, ‘ㅊ’

치음 ‘ㅅ’, ‘ㅈ’, ‘ㅊ’은 일부는 한어의 운미 /-n/ (眞侵韻, 寒監韻, 桓歡韻)로, 일부는 心母字인 ‘思’로 첨기되었다. 그러나 한어의 운미 /-n/와의 대응은 진정한 대응관계가 아니다. 한어의 구조적인 제약으로 한어에서 /s/와 조음위치가 가까운 /-n/으로 대신 사운한 것이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ㅅ’, ‘ㅈ’, ‘ㅊ’은 그 사운 양상이 동일하여 이들이 이미 음절말에서 중화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마) 반치음 ‘ㄷ’

반치음 ‘ㄷ’은 비록 유일레이기는 하지만 精母인 ‘自’로 첨기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유일레이기에 해석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종성의 위치에서 ‘ㄷ’과 ‘ㅅ’의 대립이 유지되고 있다는 소중한 증거로 해석되었다.

(바) 합용병서(겹받침) ‘ㄹ’, ‘ㄹ’

朝鮮館譯語에 사운된 겹받침은 ‘ㄹ’과 ‘ㄹ’뿐이다.²³⁾ 이들 중 일부는 兒化韻으로 첨기되었고, 일부는 사운에서 무시되어 ‘ㅇ’에 대응되었다. 이에 대해서 朝鮮館譯語의 사운 방식만 보아서는 ‘ㄹ’과 ‘ㄹ’의 제1요소인 ‘ㄹ’이 발음된 사실은 확정지을 수 있지만 제2요소가 발음되었는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15세기 당시 겹받침의 표기가 전혀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제2요소도 발음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겹받침의 모든 요소가 표기대로 발음되었으나 당시 한어에 그 발음을 적절히 사운할 방도가 없었기에 이들의 제1요소만 표기했다는 해석이다.

23) 비록 ‘ㄹ’은 오직 4개 항목에, ‘ㄹ’은 오직 1개 항목에 나타나지만, 訓民正音 解例本에 어말 합용병서의 음가에 관한 정확한 기술이 없는 지금, 이들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표 13]에 정리된 權仁瀚(1998)의 내용 대부분을 수용하되, 일부를 추가·수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가) 幫母字인 ‘卜’의 재검토

첨기에 사용된 幫母字인 ‘卜’을 다시 살피겠다. 본고에서는 ‘卜’이 종성 ‘ㅃ’가 아닌 종성 ‘ㅍ’를 사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朝鮮館譯語에서 종성의 ‘ㄱ’, ‘ㄷ’는 무시되고 종성의 ‘ㅃ’만이 첨기되었다는 설명은 논리상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

우선, 訓民正音 解例本の 체계에서 15세기 국어 종성 ‘ㄱ’, ‘ㄷ’, ‘ㅃ’는 모두 促急한 음으로서 자연부류를 이룬다. 그런데 朝鮮館譯語에서 유독 종성의 ‘ㅃ’만이, 비록 일부이지만, 첨기되고 그 외의 ‘ㄱ’, ‘ㄷ’는 사음에서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점이 혼란을 준다.

다음으로, 15세기 한어의 음계에서도 운미의 /-k/, /-t/, /-p/는 모두 입성운미로서 자연부류를 이루었다. 또한 朝鮮館譯語를 비롯하여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華夷譯語의 8개 譯語 중 安南館譯語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되는 북방음계에서는 이미 운미 /-p/는 /-k/, /-t/와 함께 이미 소실된 상태였다. 한어 음계의 특성으로 인해 朝鮮館譯語에서 종성의 ‘ㅃ’만이 첨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첨기에 사용된 幫母字인 ‘卜’이 ‘ㅃ’가 아닌 다른 말음을-가령, ‘ㅍ’와 같은- 표기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러한 가능성은 다른 譯語에서 보이는 첨기의 원칙과 ‘ㅍ’에 대한 언어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그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나) 來母字인 ‘勒’과 兒化韻인 ‘二’의 재검토

첨기에 사용된 來母字인 ‘勒’과 兒化韻인 ‘二’를 다시 살피겠다. 본고에서는 ‘勒’과 ‘二’가 서로 다른 음가를 표기한 것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權仁瀚(1998)에서는 ‘勒’과 ‘二’는 음가의 차이가 아닌 문법범주상의 차이를 반영한 것에 그치고 모두 설측음 [l]를 사음하였다고 해석되었다. ‘二’는 체언의 종성

‘ㄹ’을 표현하기 위하여, ‘勒’은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였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의 이러한 해석은 다른 譯語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후술할 것이지만 會同館系 華夷譯語는 음성전사를 원칙으로 한다(3.1 참고). 이를 고려한다면 국어에서는 문법범주상의 차이만 있고 음가는 동일했던 ‘ㄹ’을 한어에서 서로 다른 음가를 지닌 사음자로 갈라 표기하였다는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첨기에 사용된 來母字인 ‘勒’과 兒化韻인 ‘二’를 다시 살펴겠다. 이를 위해 다른 譯語에서 來母字와 兒化韻이 어떠한 음가를 표기하는 데에 사용되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 첨기 방식 전반에 대한 검토

朝鮮館譯語에는 쓰이지 않은 첨기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譯語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를 통해 朝鮮館譯語에서 말음첨기에 사용된 ‘卜’, ‘勒’, ‘二’ 등에 대한 의문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어 종성의 음가 전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더하여, 權仁瀚(1998)에서는 朝鮮館譯語에서 국어 종성 ‘ㄹ’의 대부분과 종성 ‘ㄱ’, ‘ㄷ’의 모두가 표기되지 않은 까닭과 겹받침의 제1요소만 일부 사음된 까닭을 한어 음운 체계상의 결함으로 보았다. 당시 한어에 그 발음을 적절히 사음할 방도가 없었다는 해석이다. 그렇기에 權仁瀚(1998)에서는, 초성과는 달리 朝鮮館譯語를 통해 ‘ㄹ’, ‘ㄱ’, ‘ㄷ’, 겹받침 등 종성의 음가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朝鮮館譯語의 국어의 종성 사음이 미비한 모습이 15세기 국어 종성 음가를 재구하는 데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비교 대상 譯語들에서 보이는, 朝鮮館譯語에는 쓰이지 않은 첨기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음운사 연구에서 소략하게만 다뤄져 왔던 국어 종성의 음가 전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라) 첨기에 해당되는 예 추가

‘△’에 (6)의 두 항을 추가할 수 있을 듯하다. 이를 통해 분석 대상 음계가 추가

되거나 수정되는 건 아니다. 다만, 기존에는 종성 ‘△’의 첨기 예가 매우 적어 그 음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

고유번호	1단	2단		3단	
朝-122	秋	格自	𪛗[ㄱ슬]	處	츰
朝-123	冬	解自	𪛗[겨슬]	董	동

李基文(1957: 15)에서는 기존 小倉進平 등의 ‘𪛗’이라는 재구를 비판하고 ‘格自(邊)’를 ‘ㄱ식’라고 하였으나 李基文(1968: 59)에서는 이를 다시 ‘𪛗’이라고 돌려놓은 바 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格自’로 사음된 朝-122도 ‘𪛗’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본고에서 15세기 국어 종성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 살펴볼 성모 목록과 운미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분류	자음	사음자의 성모와 운미			
아음	/-ㄱ/	∅	/-ㄴ/		
	/-ㅇ/	/-ㄴ/			
설음	/-ㄷ/	∅			
	/-ㅌ/				
	/-ㄴ/	/-ㄴ/			
반설음	/-ㄹ/	(兒化韻 /r/)	(來母 /l/)	/-ㄴ/	∅
순음	/-ㅍ/	∅	(幫母 /p/)		
	/-ㅂ/	/-ㄴ/	明母 /m/		
치음	/-ㅅ/	心母 /s/	/ -n/	∅	
	/-ㅆ/			∅	
	/-ㅈ/			∅	
반치음	/-ㅊ/	精母 /c/	/-ㄴ/		
합용병서	/-ㄷ/	(兒化韻 /r/)	∅		
	/-ㅌ/				

[표 14]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표 13]과 동일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 안에 넣어 표시하였다는 점만 다르다.

2.3.3 중성

權仁瀚(1998)에서 분석한 朝鮮館譯語에서 국어의 중성이 사음된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5]와 같다.

[표 15]

분류	모음	사음자의 운모	
기본자	/·/	/ə/	/a/
	/ㅡ/	/ə/	/i/
	/ㅣ/	/jə/ 眞.開	/ji/
초출자	/ㅏ/	/a/	
	/ㅓ/	/ə/	
	/ㅗ/	/wo/	
	/ㅜ/	/u/	

[표 15]의 구성은 [표 11], [표 12] 등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3열과 4열의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위 표에서는 사음자의 운모에 대해 전통적인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權仁瀚(1998)의 로마자 재구음만을 사용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국어의 모음 ‘ㅣ’를 사음하는 데에 사용된 한어의 운모 /jə/의 경우에는 /jə/ 중에서도 眞文韻 開口呼만이 사음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眞.開’로 표시하였다.

아래에 權仁瀚(1998)에서 朝鮮館譯語의 국어 중성 각각의 사음 방식을 분석한 내용을 訓民正音 解例本식의 분류에 따라 묶어 간략히 소개하였다. 모두 權仁瀚(1998)에서 참고한 바이므로 서술의 간결성을 위해 따로 참조주는 달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가) 초출자 ‘·’, ‘ㅡ’, ‘ㅣ’

‘·’는 한어의 운모 /(w)ə/, /(j)a/, /(j)i/, /wo/, /u/, /əj/ 등으로 사음되었다. ‘·’는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와만 진정한 대응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운모 /ə/, /a/ 모두와 대응되어 이 둘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분석되었다.

‘ㅡ’는 한어의 운모 /ə/, /(jw)ə/, /(j)i/, /u/, /o/ 등으로 사음되었다. ‘ㅡ’는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와만 진정한 대응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운모 /ə/, /i/ 모두와 대응 관계를 보여 음성적으로는 이 둘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분석되었다.

‘ㅣ’는 한어의 운모 /(j)i/, /(j)ə/, /əj/, /ju/, /a/ 등으로 사음되었다. ‘ㅣ’는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와만 진정한 대응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운모 /jə/, /ji/ 모두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나) 재출차 ‘ㅏ’, ‘ㅑ’, ‘ㅓ’, ‘ㅕ’

‘ㅏ’는 한어의 운모 /a/, /wa/, /ə/, /(w)o/, /(j)u/ 등으로 사음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ㅏ’와 진정한 대응관계를 보이는 것은 /a/뿐이다.

‘ㅑ’는 한어의 운모 /ə/, /(w)o/, /a/ 등으로 사음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진정한 대응관계를 보이는 것은 /ə/뿐이다.

‘ㅓ’는 한어의 운모 /(w)o/, /(j)u/, /wə/, /(jw)ə/, /wəj/, /wa/ 등으로 사음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진정한 대응관계를 보이는 것은 /wo/뿐이다.

‘ㅕ’는 한어의 운모 /(j)u/, /(w)ə/, /(w)o/, /wəj/ 등으로 사음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진정한 대응관계를 보이는 것은 /u/뿐이다.

본고에서는 [표 15]의 내용 모두를 수용하여 각 譯語에서의 사음 방식을 살펴보겠다. 더하여, 논의의 한계로 인해 2.3에서 도입한 방식을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자 검증’도 하고자 한다. 朝鮮館譯語에서 ‘ㅏ’, ‘ㅡ’, ‘ㅣ’와 진정한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인정된 사음자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각 사음자 옆에는 權仁瀚(1998)의 재구음도 함께 정리하였다.

(가) ‘ㅏ’의 사음자 목록

朝鮮館譯語에서 국어의 단모음 ‘ㅏ’는 한어의 운모 /ə/로 사음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7)과 같은 사음자로 진정한 대응관계로 사음되었다.

(7)

사음자	재구음	사음자	재구음
色	sRə~sRaj	勒	lə~ləj
格	kə~kjaɟ	迫	pə~paɟ
得	tə~təj	白	pə~paɟ
額	ə~jaɟ	黑	hə~həj
墨	mə~məj		

(나) ‘ㅡ’의 사음자 목록

朝鮮館譯語에서 국어의 단모음 ‘ㅡ’는 한어의 운모 /ə/와 /i/로 사음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8)과 같은 사음자로 진정한 대응관계로 사음되었다.

(8)

사음자	재구음	사음자	재구음
沁	chjən~sRən	自	cī
黑	hə~həj	立	ljɪ~ljəj
害	haj	額	ə~jaɟ
得	tə~təj	亨	həŋ
捐	khən	色	sRə~sRaj
根	kən	吉	kji~kjəj
本	pən	恨	hən
悶	mən	迫	pə~paɟ
勒	lə~ləj		

(다) ‘ㆍ’의 사음자 목록

朝鮮館譯語에서 국어의 단모음 ‘ㆍ’는 한어의 운모 /ə/와 /a/로 사음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9)와 같은 사음자로 진정한 대응관계로 사음되었다.

(9)

사음자	재구음	사음자	재구음
嫩	n(w)ən	噴	phən
得	tə~təj	迫	pə~paj
把	pa	勒	lə~ləj
墨	mə~məj	根	kən
格	kə~kja	罕	han
悶	mən	冊	cRhə~cRhaj
燦	chan	滲	sRən
赧	nan	敢	kan
刺	la	怎	cən
黑	hə~həj	恨	hən
色	sRə~sRaj	哈	ha~ho

3. 華夷譯語의 寫音 양상

3.1 華夷譯語 寫音의 성격

會同館系 華夷譯語는 음성전사를 그 특성으로 하지만 동일한 어휘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음자로 일관되게 표기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華夷譯語 사음의 성격을 ‘음성전사’와 ‘일관된 표기’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다.

우선, ‘음성전사(音聲轉寫, phonetic transcription)’에 대해 알아보겠다. 여기에서 음성전사라 함은 ‘음운전사(音韻轉寫, phonological transcription)’와는 달리 음운론적 해석을 가하지 않은 채 들리는 대로 표기하였음을 말한다. 가령, 국어에서는 ‘ㄱ’이 어두, 음절말, 유성음 사이에서 각각 달리 발음되나 하나의 음소로 인식되어 하나의 문자 ‘ㄱ’로 적히지만, 실제로 국제음성기호로 음성전사를 하면 [kʰ], [k], [g]로 적히게 되는 것과 비슷한 식이다.

그렇다고 會同館系 華夷譯語에서 사음자가 국제음성기호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제음성기호는 오로지 음성 전사를 위해 고안된 객관적인 기호로서 하나의 기호가 하나의 음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한자는 한 언어의 표기 수단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호가 하나의 음계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한자를 이용한 음성전사를 통해 대상 언어(목표 언어; target language)에서는 하나의 음소에 속하는 변이음들이 세분화되어 표기될 수도 있고, 대상 언어에서는 서로 다른 음소에 속하는 변이음들이 뭉뚱그려져 하나로 표기될 수도 있게 된다. 가령, 대상 언어에서 음성 ①~⑧이 음소 A의 변이음이고, 음성 ⑨~⑮가 음소 B의 변이음이라고 하면, 음성 ①~③과 ④~⑧은 한어 음계에서는 하나의 음소 X에 속하게 되고, 음성 ⑨는 ⑩~⑮와는 갈라져 음소 Y에 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기도 할 터이다. 이를 구체화하여 나타내면 아래의 [표 16]과 같다.

[표 16]

대상 언어	A								B						
음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한어	X			Y					Z						

더하여, 한어의 한 음계에 허용되는 음성적 범위가 외국어 사음 문자로 사용될 때는 달라졌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한어가 가지고 있던 음운체계와 대상 언어가 가지고 있던 음운체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음운 정보의 변환”(김성규 2009: 44)에 기인한다.

이러한 ‘음성전사’는 편찬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會同館系 華夷譯語만의 특성이 다. 會同館系 華夷譯語는 네 계통의 華夷譯語 중에서 구어를 대상으로 하는 대역어휘집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세 계통과는 다르다(1.2 참고). 음성전사라는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특성은 西田龍雄(1963), 庄垣内正弘(1984)²⁴⁾, 越智サユリ(2004) 등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각 연구의 설명 중 일부를 (10)에 제시한다. (越智サユリ 2004: 115, 西田龍雄 1963: 98)

24) 庄垣内正弘(1984)에서 畏兀兒館譯語의 어휘항 재구는 高昌館譯語와 御製五體清文鑑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畏兀兒館譯語는 위구르어 중에서도 구어 형식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高昌館譯語나 御製五體清文鑑과는 대별된다(庄垣内正弘 1984: 51). 四夷館系 華夷譯語의 高昌館譯語에서도 동일하게 튀르크어를 대상 언어로 하지만 사이관(四夷館)의 역자생 교육을 목적으로만 들어져 위구르 문자에 의한 문어 형식과 그 독서음(讀書音)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畏兀兒館譯語와는 다르다. 참고로, 高昌館譯語의 인물문(人物門)에서 “高昌”은 “畏兀兒”에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둘은 동일한 지역 혹은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庄垣内正弘(1984)에서 高昌館譯語와 五體清文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畏兀兒館譯語의 어휘 항목 재구에 큰 역할을 하였다. 우선, 四夷館系 華夷譯語의 일부로서 위구르어의 독서법, 즉 읽는 방식을 기록한 高昌館譯語는 어휘 항목의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좋은 비교 자료가 되어 주었다. 다음으로, 五體清文鑑은 위구르어의 독서법, 즉 읽는 방식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高昌館譯語와 일치하지만 아랍 문자와 만주 문자로 표기되어 한어보다 훨씬 정밀한 전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편찬 시기가 18세기로서 당시 위구르어 구어 형식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비교 자료로서의 장점이 있다.

(10)

西田龍雄(1963: 98): 丙種 華夷譯語는 사절단과의 소통을 위해 통역을 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찬되었기 때문에 문어에 얽매이지 않고 구어를 충실하게 전사하였다. 가령, 丙種 西番館譯語는 티베트어를 만주어로 전사한 五体清文鑑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러한 성격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는 五体清文鑑의 대상 언어였던 압도 문어와 西番館譯語의 대상 언어였던 天全 구어가 음소 체계가 달랐던 것과는 별도로 사음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특성이다. 동일한 어휘항을 비교해 보아도 五体清文鑑는 형태소를 기준으로 끊어서 전사되었으나 西番館譯語에서는 실제로 들리는 대로 음성전사를 하였다.

越智サユリ(2004: 115): 이 중 몽골어를 취급하는 것은 甲·乙·丙 3개가 있지만, 이들의 한자 음사의 방법은 같지 않다. 丙種 책은 다른 2종과 『元朝秘史』와 달리 실제 몽골어를 말해야 하는 통역관의 학습에 쓰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문헌보다 실제 구어에 가까운 소리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된다.

기존의 朝鮮館譯語 연구에서는 ‘음성전사’가 언급된 바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朝鮮館譯語의 경우, 西番館譯語, 韃靼館譯語, 畏兀兒館譯語 등과는 달리 다른 계통의 華夷譯語에 실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국어의 경우, 티베트어, 몽골어, 위구르어 등과는 달리 한자 문화권의 일원으로서 한자를 썼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교 상대가 되는 것들이 없었기에 朝鮮館譯語가 음성전사라는 점이 명시될 필요성이 크게 없었다. 그러나 朝鮮館譯語도 음성전사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있었기에 朝鮮館譯語가 국어 음운 연구의 토대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를 비교해 보더라도 朝鮮館譯語의 음성전사 특색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李基文(1998: 106)에서는 鷄林類事の 사음 양상에서 고려어의 구어와 문어가 세밀히 구별되지 않은 채 표기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몇 예에서 이두에 사용된 한자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朝鮮

館譯語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차자 표기 방식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래에 鷄林類事에서 문어를 받아들여 기록한 것들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을 정리하였다. 우선, 李基文(1998: 106)에서 鷄林類事에서 이두에 사용된 한자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된 예인 溪-185와 溪-250을 姜信沆(1980)을 참고하여 (11)에 옮겨 두었다. 다음으로, 溪-172, 348의 두 항목은 본고에서 새로이 추가한 것들이다. 특히, 溪-172의 ‘心音’은 均如傳에서 문증되는 표기인 바, 문어를 받아들인 항목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후고(後考)를 기약한다.

(11)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
溪-172	心	心音尋 siəm-	*ㅁ슴 심
溪-185	豆	太 t'ai	*태
溪-348	大	黑根 hək-kən	*한-
溪-250	升	刀堆 tuai	·되

그런데 華夷譯語는 ‘일관된 표기’도 동시에 보여 준다. 이러한 성격도 ‘음성전사’와 같이 이미 선행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西田龍雄 1963: 99). 이에 대한 서술을 (12)에 밝혀 둔다.

(12)

西田龍雄(1963: 99): 다만 丙種 <華夷譯語>에서는 음역하는 데에 일관된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단어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되게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하려고 하였다.

동일한 형태소가 복합어나 구(句)와 같이 상위 구성의 한 요소로 쓰일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표기 방식을 취하였지만 ‘첨기’의 양상만은 다르기도 하였다. 첨기에 사용된 한자는 생략되기도 하였던 것이다(‘첨기’에 관해서는 3.1.3 참고). 첨기를 생략해도 해당 어휘임이 명백히 드러나면 첨기를 생략하고, 그렇지 않으면 첨기를 생략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朝鮮館譯語의 예를 (13)에 보였다. 동일한 어휘가 2회 이상 출현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정리해 놓았다.

(13)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
朝-1, 13~21, 232	天	哈嫩(二)	하늘
朝-2, 22~27	日	害	히
朝-3, 28~31	月	得二	달
朝-4, 32~35	星	別二	별
朝-5, 36~38	風	把論	브름
朝-6, 39~44	雲	故論	구름
朝-7, 49	雷	別刺	벼락
朝-8, 45~48, 462	雨	必	비
朝-10, 51	雪	嫩	눈
朝-11, 50	霧	按蓋	안개
朝-12, 52~53	露	以沁	이슬
朝-14, 124	陰	黑立大	흐리다
朝-17, 77, 108	高	那大	높다
朝-18, 86	邊	格自	ㄹ
朝-20, 127	晚	展根(格)大	점글(어)다

‘哈嫩(二)’의 경우에는 단일어로 출현한 朝-1에서만 ‘哈嫩二’로 표기되고, 복합어나 구의 한 요소로 쓰인 朝-13~21, 232에서는 종성의 ‘ㄹ’ 첨기자 ‘二’가 생략된 채 ‘哈嫩’로 표기되었다. 동일하게 ‘ㄹ’의 첨기자 ‘二’가 쓰인 ‘得二’와 ‘別二’의 경우에는 모든 항에서 ‘二’가 생략되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쓰였다. 이는 앞서 밝히 바와 같이, ‘哈嫩(二)’는 첨기를 생략한 형태로도 ‘하늘’을 뜻하는 표기임이 보이지만 ‘得二’와 ‘別二’는 ‘二’를 제외하고는 각기 ‘달’과 ‘별’의 일관된 표기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때,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문법 형태소도 그러하였다. 일관되게 사용된 문법 형태소를 아래의 [표 17]에 정리해 두었다.

[표 17]

2단	2단 재구	고유번호
大	-다	朝-13~14, 17, 19~35, 39~40, 47~55, 77~78, 84, 87~88, 91~100, 106~113, 118~119, 124, 127~129, 134~135, 142~143, 176, 188~189, 218~219, 229, 253~254, 264~265, 353~355, 357~358, 381~383, 387, 426~427, 436~437, 526~527 (총 88항)
刺	-라	朝-146~147, 190, 341, 342, 345, 347, 349~350, 356, 506, 507 (총 12항)
格	-거~어-	朝-20~23, 29~30, 50, 146~147, 189, 341, 345, 347, 349~350 (총 15항)
那	-나-	朝-190, 342 (총 2항)

‘大’로 표기된 ‘-다’는 평서형어미이고, ‘-라’는 명령형어미이다. ‘格’으로 표기된 ‘-거-’와 ‘-어-’, ‘那’로 표기된 ‘-나-’는 확인법의 선어말어미로서 “일방적 통보기능이 강한 독백이나 이에 준할 만한 말씨”에서 쓰인다(고영근 2010: 285-286). 이때, 위의 문법 형태소에 대한 인식이 (13)의 ‘展根(格)大’에서 보인다. ‘점글다’의 경우에는 확인법의 선어말어미 ‘-어-’를 표기하는 데에 쓰이는 ‘格’을 제외하여 놓고, ‘점글어다’에는 ‘格’만을 삽입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법 형태소를 일정하게 표기하는 모습은 향찰 말음첨기의 하나인 “附加的添記”(金完鎭 1980)를 떠올리게 한다. ‘부가적 첨기’란 “體言의 助詞나 用言의 語尾 같은 것이 添記된 것”으로서 ‘多’(-다), ‘隱’(-ㄴ/은/는), ‘留’(-로), ‘衣’(-익/의) 등이 그 예이다. 즉,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大’, ‘刺’, ‘格’, ‘那’와 같이 문법 형태소를 일관되게 표기하는 향찰의 한 표기법인 것이다. 일단 한자의 새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부터 우리나라 차자 표기의 전통과 會同館系 華夷譯語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문법 형태소를 일정한 음독자로 표기하는 모습에서는 공통점이 보여 흥미롭다.

그런데 본고에서 사용하는 ‘첨기’의 개념 속에는 부가적 첨기가 없다. 金完鎭(1980)에서 제시한 말음첨기의 종류 중에서 오직 ‘純正添記’, ‘代替添記’ 등 음소 표기에 동원된 첨기만이 본고에서의 ‘첨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3.2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3.2 華夷譯語 寫音의 원칙

이 절에서 사용될 주요 개념인 ‘첨기(添記)’를 우선 정의한 후에 본 논의를 시작 하겠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첨기’의 개념은 金完鎭(1980)에서 정리한 향찰의 말음 첨기 개념에서 빌려온 것이다. 유표적인 것만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논의의 편의상 ‘첨기’가 아닌 일반적인 표기를 ‘첨기’와 대별하여 종합적으로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주표기(主表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金完鎭(1980)에서는 “語形の 示唆를 위하여 訓讀字 밑에 받쳐 적는 字들을 梁柱東을 따라 末音添記라 부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시금 말음첨기를 기준으로 하여 향찰의 표기 양식을 무첨기(無添記), 순정첨기(純正添記), 대체첨기(代替添記), 부가적첨기(附加的添記), 확인첨기(確認添記)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 구분은 말음첨기가 가해지지 않은 양식인 무첨기를 제외하고는 곧 향찰에서의 말음첨기의 분류를 알려 주기도 한다. 말음첨기를 기준으로 한 향찰의 5가지 표기 양식에 관한 金完鎭(1980: 18-20)의 설명 중 일부를 (14)에 인용하였다. 직접 인용한 부분은 겹따옴표로 인용 표시를 하였다.

(14)

- a) 무첨기(無添記): “末音添記가 전혀 加해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함이니, 당시의 表記者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末音添記를 하지 않더라도 읽는 사람이 읽는 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다.”
- b) 순정첨기(純正添記): “末音添記의 典型이라 할 것인데, 머리의 訓讀字가 지시하는 형태소 (또는 단어) 자체의 끝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 c) 대체첨기(代替添記): “위에 온 字의 訓 또는 音의 一部를 代替하는 성질의 것인데, 傳統的인 略(音)借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대부분 다음에 말하는 附加的 添記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 d) 부가적첨기(附加的添記): “體言의 助詞나 用言의 語尾 같은 것이 添記된 것으로 그 용례가 가장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e) 확인첨기(確認添記): “音借字의 末音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다.

華夷譯語에서는 위의 여러 표기 양식 중에서 무첨기, 순정첨기, 대체첨기, 부가적첨기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확인첨기는 華夷譯語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본고에서 사용하는 ‘첨기’의 개념에서는 무첨기는 물론이거니와 부가적첨기도 배제된다. 무첨기는 첨기가 사용되지 않은 표기 양식을 말하므로 ‘첨기’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본고에서는 음운론적인 ‘첨기’만을 다루고자 하므로 부가적첨기의 경우에도 華夷譯語의 성격인 ‘일관된 표기’에 포함되어 이미 다루어졌다. 일단 아래에 무첨기와 부가적첨기를 버리고서 남게 된 순정첨기, 대체첨기의 설명만을 떼어내어 ‘첨기’를 (15)에 조작적으로 정의해 보았다.

(15) ‘첨기’의 예비 정의

華夷譯語의 ‘첨기’란 머리의 훈독자가 지시하는 형태소(또는 단어) 자체의 끝부분을 나타내거나 위에 온 자의 훈 또는 음의 일부를 대체하는 표기법이다.

본고에서는 (15)의 정의도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향찰과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순정첨기, 대체첨기가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에 그 차이점을 기술한다.

첫째, 華夷譯語에는 훈독이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성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훈독은 되고 있지 않고 오로지 한어 음계를 기준으로 한 음독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순정첨기와 대체첨기의 설명에 사용된 “훈”은 본고의 ‘첨기’에서는 거부된다.

둘째, 華夷譯語의 ‘첨기’는 선행하는 주표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주표기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한다. 향찰의 첨기는 “머리의 혼독자” 혹은 “위에 온 자” 즉, 선행하는 자(字)를 보충해주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러나 華夷譯語에서는 어두자음군이나 어중자음군을 표기하기 위하여 후행하는 주표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도 한다.

셋째, 향찰에서의 대체첨기와는 달리 華夷譯語에서는 모음을 대체하는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 華夷譯語의 오로지 자음만을 첨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향찰에서는 金完鎭(1980: 19)에 제시된 ‘良’과 같이 모음을 대체하는 첨기가 보이는 것이다.

넷째, 華夷譯語에서는 주표기가 형태소나 단어 단위를 표기하지 않고 한 음절을 표기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모습 제시는 3.2.2로 미룬다.

이러한 세 가지 차이점을 감안하여 예비 정의를 수정하면 (16)과 같다.

(16) ‘첨기’의 최종 정의

華夷譯語의 ‘첨기’란 주표기가 지시하는 음절의 앞이나 끝 부분을 나타내거나 주표기가 지시하는 음절의 일부를 대체하는 표기법이다.

2단계 정의를 통해 본고의 ‘첨기’의 정의는 완성되었다. 그러나 첨기의 성격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못하였다. 3.5에서 華夷譯語에서 첨기가 발생한 까닭을 15세기 한어의 음절 구조와 관련하여 설명함으로써 첨기의 성격을 밝혀 보도록 하겠다.

3.2.1 음절 구조와 寫音

한어와 대상 언어 사이에는 음운론적 제약에 차이가 있었다. 華夷譯語의 첫 번째 사음 원칙은 여러 음운론적 제약 중에서 음절 구조 제약에 기인한다. 그렇기에 이 첫 번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어의 음절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의 2.1에서 이미 한어의 음절 구조에 대해 정리한 바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한어의 음절 구조에 관해 다시금 간단히 나타내면 (17)과 같다.

(17)

I/M V E T

- * I(Initial): 성모
- M(Medial): 운두
- V(Principal Vowel): 운복
- E(Ending): 운미
- T(Tone): 성조

첫 번째 원칙에서 운두나 운복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성모와 운미가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15·16세기 한어의 성모와 운미가 지닌 여러 특성 중에서 특히나 첫 번째 원칙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을 제시하자면 (18)과 같다.

(18)

- A. 15·16세기 한어의 양성운미에는 오로지 /-n/과 /-ŋ/만이 존재했다.
- B. 15세기 한어에는 복성모(復聲母)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위와 같은 한어의 음절 구조로 인하여 주표기가 불가능한 대상 언어의 음절 구조를 밝히겠다. 이때, ‘음절’을 기준으로 음절초나 음절말을 살펴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華夷譯語 사음의 첫 번째 성격-음성전사를 고려한 결정이다. 음성전사라 함은 사음 대상에 음운론적 해석을 가하지 않은 것인데 무엇이 음절초이고 무엇이 음절말인지는 음운론적 해석을 가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기에서는 어말, 어중, 어두로만 나누어 주표기가 불가능한 대상 언어의 음절 구조를 밝히도록 하겠다.

우선, A로 인하여 대상 언어의 음절말 혹은 어말에 ‘n’과 ‘ŋ’ 외의 요소가 올 경우 주표기가 불가능하다. ‘k’, ‘t’, ‘p’, ‘h’, ‘l’, ‘r’ 등이 그러하다. 다만, 15세기에 들어 한어의 운미에서 소실되었다고 생각되는 /-m/는 華夷譯語에서 몇 항목에서는 주표

기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운미 /-m/가 아직 완전히 소실되지 않았다는 증거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음으로, A와 B로 인하여 어두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면 완전한 주표기가 불가능하다. 복성모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자음은 결코 주표기할 수 없고, 두 번째 자음은 주표기될 수 있다. 그렇기에 대상 언어에 어두자음군이 있다면, 이는 주표기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어중에 셋 이상의 자음이 올 때에도 완전한 주표기가 불가능하다. 첫 번째 자음은 'n'나 'ŋ'이면 '운미'로 주표기될 수 있다. 두 번째 이하 자음부터 마지막 이전 자음까지는 결코 주표기 될 수 없다. 마지막 자음은 '성모'로 주표기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말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때에도 완전한 주표기가 불가능하다. 첫 번째 자음은 /-n/이나 /-ŋ/이면 '운미'로서 주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n/이나 /-ŋ/이 아니면 주표기 될 수 없다. 두 번째 이하의 자음은 결코 주표기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대상 언어에 어말자음군이 있다면, 이는 주표기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한어의 음절 구조 제약으로 인하여 주표기가 불가능한 대상 언어의 요소들은 '첨기'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렇게 주표기될 수 없는 요소들도 모두 다 첨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첨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더 많은 조건'은 3.2.2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 자격-원칙 1을 (19)의 단순한 예를 통해 다시금 정리해 보겠다.

(19)

C₁ C₂ V C₃ C₄ C₅ C₆ V C₇ C₈

지금까지 정리한 조건을 적용해 보면, (19)에서 C₁, C₄, C₅, C₈은 어떠한 자음이든지 첨기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C₂, C₆는 주표기 대상이다. C₃, C₇은 /-n/이나 /-ŋ/이면 운미로 주표기되지만 /-n/과 /-ŋ/ 이외의 자음이

면 첨기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첨기의 조건은 鷄林類事의 ‘菩薩’에 관한 기존 관점에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준다. ‘菩薩’이 2음절이 아닌 1음절을 표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1.4로 미룬다.

3.2.2 음성 실현과 寫音

원칙 1은 ‘주표기의 대상은 무엇인가?’에는 답을 주었지만, ‘첨기의 대상은 무엇인가?’에는 아직 답을 주지 못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원칙 1뿐만 아니라 원칙 2도 필요하다. 원칙 1이 한어의 음절 구조로부터 연역적으로 추론되었다면, 원칙 2는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종합하여 귀납적으로 추론되었다. 즉, 원칙 1에서 제시된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들 중에서 실제로 어떠한 것들이 첨기되었는지를 살펴서 원칙 2를 도출해낸 것이다.

첨기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는 것은 3.5에서 이루어지기에 논의의 순서가 뒤바뀐 느낌도 있다. 그렇더라도 華夷譯語의 사음 원칙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흐름상 좋다고 생각된다. 3.5의 정리를 통해 도출되는 첨기의 대상이 되는 음가를 미리 소개하자면 아래의 [표 18]과 같다.

[표 18]

		양순	순치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연구개	후연구개	성문	
폐쇄음	무성	p			t			k	q		
	유성	b			d			g			
파찰음	무성					ʈʂ					
	유성					ɖʐ					
마찰음	무성				f	s		ʃ	x	h	
	유성					z		ʒ	ʁ		
유음	전동	r									
	탄설	ɾ									
	설측근접	l									
비음		m			n						

[표 18]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두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첨기의 대상에 속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유성음인 경우에는 모두 첨기될 수 있다. 원칙 1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각 언어의 음소 목록 중 유성음이 첨기 대상에서 제외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표 18]에서 첨기의 대상이 되지 않은 유성음들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첨기가 되지 않은 것이지, 있었는에도 첨기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거꾸로, 庄垣内正弘(1984)과 越智サユリ(2004)에서는 華夷譯語에서 첨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유성성을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둘째, 무성음이더라도 지속음인 경우에는 첨기될 수 있다. 원칙 1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각 언어의 음소 목록 중 지속음이 첨기 대상에서 제외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표 18]에서 첨기의 대상이 되지 않은 지속음들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첨기가 되지 않은 것이지, 있었는에도 첨기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셋째, 무성폐쇄음이더라도 외파될 경우에는 첨기될 수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の 팔종성법(八終聲法)은 15세기 국어 종성에 미파화와 중화가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원칙 1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자리에서 미파화되고 중화되지 않은 무성폐쇄음이 음소 목록에 분명히 존재했던 언어는 回回館譯語의 페르시아어와 畏兀兒館譯語의 위구르어, 占城館譯語의 참어였다. 이들 譯語에서는 해당 무성폐쇄음의 첨기가 이루어졌다.

요컨대 귀납적으로 도출된 원칙 2는 (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

원칙 1의 첨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 A. 유성음이면 첨기될 수 있다.
- B. 무성음이더라도 지속음이면 첨기될 수 있다.
- C. 무성폐쇄음이더라도 외파되면 첨기될 수 있다.

이렇게 원칙 1과 원칙 2의 첨기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첨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총체적인 사음 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는 표기의 실수라고 생각된다. 본 논의의 목적은 전반적인 사음 원칙을 정하여 朝鮮館譯語의 음가를 도출해 내는 데에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조잡한 사음 실수보다는 진정한 대응 관계에 있는 사음 양상에 주목하여 원칙을 도출하였다.

3.3 성모 표기

8개 譯語에 나타난 성모의 사음 양상을 차등 없이 표시해보면 아래의 [표 19]와 같다. 지나치게 특수하고 복잡한 安南館譯語의 치음 사음 양상은 제외하였다([부록 1]의 2장 참고).

[표 19]

			순음		설음, 치음						아음	후음
			양순	순치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경구개	권설	연구개	성문
폐쇄음	무성	무기	p 幫滂			t 端透		t̚ 精			k 見溪	
		유기	pʰ 滂			tʰ 透					kʰ 溪	
	유성	무기	b 幫			d 端		d̚ 精		d̚ 端	g 見	
		유기									gʰ 見	
파찰음	무성	무기			ts 精	tʃ 照清穿	tɕ 精照			tɕ 照		
		유기					tɕʰ 穿			tɕʰ 穿		
	유성	무기			dz 精	dʒ 照	dʒ 照穿			dʒ 照		
		유기					dʒʰ 穿					
마찰음	무성		ϕ 非	f 非		s 心審	ʃ 審	ɕ 心		s 審	x 曉	h 曉
	유성			v 幫		z 心精	ʒ 日	ʒ 心		ʒ 日	ʒ 見影	
유음	전동				r 來							
	탄설				r 來							
	설측찰				l̥ 來							
	설측접근				l 來							
	설측탄설				l̥ 來							
비음			m 明			n 泥		n̥ 泥	n̥ 泥			

[표 19]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각 칸의 상단에 있는 기호는 대체적으로 공식적인 국제음성기호를 따른 것이다. 표기된 기호 중에서 ‘n̥’만이 비공식 기호이다. 각 칸의 하단에는 사음에 사용된 성모를 ‘-母’ 없이 적어 놓았다. 둘 이상의 성

모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적어 놓았다. [부록 2]를 보면, 후연구개폐쇄음 ‘q’도 畏兀兒館譯語와 回回館譯語에서 見母로 사음된 바 있지만 보다 간략한 정리를 위해 [표 19]에서는 생략하였다. 후술할 (가)에서 畏兀兒館譯語와 回回館譯語의 見母 사음 양상은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굳이 선택적으로 수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치한 사음 양상을 보이는 것은 明母, 泥母, 來母, 曉母, 非母 정도이다. 明母, 泥母, 來母, 曉母, 非母는 각각의 사음 영역이 연속적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 속한 음가를 사음하는 데에 다른 성모가 사용되었다고 밝혀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음 영역은 표에 굵게 표시해 두었으나 말로써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明母는 양순 비음을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둘째, 泥母는 치경부터 경구개까지의 위치에서 조음되는 비음들을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셋째, 來母는 유음을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넷째, 曉母는 연구개부터 성문까지의 위치에서 조음되는 마찰음들을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다섯째, 非母는 순음 계열의 무성 마찰음들을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明母, 泥母, 來母, 曉母를 제외한 성모들의 사음 양상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용이 필요하다. 이때의 우선적인 기준은 본고에서 참고한, 각 譯語를 재구·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 해당 음성 혹은 음소를 재구해 낼 때 들었던 근거들이 타당했는지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수용 방향은 대개 여기에서 후술하되, ‘x’의 사음 양상은 논의의 흐름상 4.1.3에서 선별하고 여기에서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다.

(가) 見母-端母-幫母, 溪母-透母-滂母

여기에서는 폐쇄음 계열 성모들이 폐쇄음을 사음하는 데에 쓰인 양상을 정리하겠다. 각 譯語에서 폐쇄음 성모가 사용된 양상을 아래의 [표 20]에 제시하였다.

[표 20]

譯語	見母	溪母	端母	透母	幫母	滂母
朝鮮館	/ㄱ/	/ㅋ/	/ㄷ/	/ㅌ/	/ㅂ/	/ㅍ/
日本館	g, k	—	t, d	—	b, p	—
安南館	g, k, g ^h	k ^h	d, t	t ^h	b, v	—
西番館	g, k	k ^h	d, t	t ^h	b, p	p ^h
畏兀兒館	g, q	k	d	t	b	p
韃靼館	g	k	d	t	b	b ²⁵⁾
回回館	g, q	k	d	t	b	p
滿刺加館	g, k	—	d, t	—	b, p	—
占城館	g, k	k ^h	d, t	t ^h	b, p	p ^h

폐쇄음의 경우 訓民正音 解例本の 언술을 고려하여 일부 譯語의 사음 양상만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한다. 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가획(加劃)의 원리를²⁶⁾ 통해 15세기 국어의 폐쇄음에는 유기음 계열이 있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데, 譯語의 대상 언어들 중 유기음 계열이 없는 것들도 있다.

각 譯語들에서 見母-端母-幫母와 溪母-透母-滂母가 사용된 양상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상 언어에 유기음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음 계열은 溪母-透母-滂母로, 유기음 계열은 溪母-透母-滂母로 사음되었다. 여기에는 대체로 占城館

25) 韃靼館譯語에서 幫母와 滂母는 모두 ‘b’를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2차 자료의 분석은 몽골 문어의 음운 체계에 바탕을 둔다. 몽골 문어는 양순폐쇄음으로 /b/만을 가진다. 越智サユリ(2004)에서 제시한 해당 예들을 아래에 옮겨 두었다.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韃-1	師傅	把黑失	/baɣʃi/ (文)baɣʃi
	三	忽兒班	/ɣurban/ (文)ɣurban

그런데 [부록 1]에 제시한, Rybatzki(2003: 64)의 중세 몽골어 음운 체계 재구에 따르면, 중세 몽골어 양순폐쇄음에는 유무성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므로 越智サユリ(2004)의 양순폐쇄음에 대한 재구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수정된 분석을 내놓을 수 있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越智サユリ(2004)에서는 전체 어휘항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본고에서 수정·분석 작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다린다.

26) ㄱ比ㄱ 聲出稍厲 故加畫

○而○ ㄱ而ㄱ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爲異 半舌音ㄱ 半齒音△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
因聲之厲 每加畫

譯語, 西番館譯語, 安南館譯語가 해당된다. 다시, 이들 중 安南館譯語에 사음된 베트남어에는 아예 무성양순폐쇄음이 없었기 때문에 폐쇄음의 사음 양상을 파악하는 자료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외한다. 다음으로, 대상 언어에 유기음 계열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둘로 나뉜다. 우선, 유성음은 見母-端母-幫母로, 무성음은 溪母-透母-滂母로 사음된 경우이다. 여기에는 韃靼館譯語, 畏兀兒館譯語, 回回館譯語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유성음과 무성음 모두 見母-端母-幫母로 사음된 경우이다. 여기에는 滿刺加館譯語와 日本館譯語가 해당된다.

그렇기에 訓民正音 解例本の 언술을 고려한다면, 朝鮮館譯語에서 초성의 폐쇄음이 사음된 방식은 占城館譯語, 西番館譯語, 安南館譯語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의 사음 방식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15세기 국어의 음가 추정에 사용할 것이다.

(나) 心母-淸母, 審母-穿母

여기에서는 마찰음 계열 성모들 중 心母-淸母, 審母-穿母가 사음하는 데에 쓰인 양상을 정리하겠다. 각 譯語에서 心母-淸母, 審母-穿母가 사용된 양상을 아래의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21]

譯語	心母	審母	淸母	穿母
朝鮮館	/ʌ/(비구개성)	/ʌ/(구개성)	/ʌ/(비구개성)	/ʌ/(구개성)
日本館	s	ʃ	—	—
西番館	s, z, ɕ, ʒ	ʃ	ʧ	tɕʰ, tɕʰ
畏兀兒館	s	ʃ	—	ʧ
韃靼館	s	ʃ	—	ʧ
回回館	s	ʃ	—	ʧ
滿刺加館	s	—	—	—
占城館	s	s	—	dz, dzʰ

위의 사음 양상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된다. 첫째, 西番館譯語의 心母 사음

양상이 다른 譯語와 유난히 다르다. 둘째, 占城館譯語의 審母와 穿母의 사음 양상이 다른 譯語와 유난히 다르다. 셋째, 淸母가 쓰인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선, 西田龍雄(1963)에서 西番館譯語에서 心母가 /s/가 아닌 /z/, /c/, /z/도 사음한다고 분석한 근거는 불확실하였다. /z/, /c/, /z/에 대한 추정은 모두 티베트 문어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한 형식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z/의 경우에는 현대 라사 방언에서는 /s/로 이미 합류하였고, /c/, /z/도 현대의 그 어떤 방언에서도 그대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다른 譯語의 사음 양상을 우선하여 받아들이고 西番館譯語에서 心母가 /z/, /c/, /z/도 사음하였다고 본 점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占城館譯語를 재구한 유일한 자료인 Edwards and Blagden(1939)은 현대 참어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자료로서, 주된 참고 자료인 Aymonier and Cabaton(1906)도 20세기 참어 사전이었다. 여기에 ‘s’로 표기된 것의 음가를 참 조어, 현대 방언 등을 토대로 역추적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해보면 審母로 표기된 ‘s’는 실제 발음은 [ʃ]에 가까웠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자세한 해석은 [부록 1]의 8장 참고). 그러므로 審母의 사음 양상 해석에서 占城館譯語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Edwards and Blagden(1939)에 재구된 기호를 그대로 따르면 占城館譯語에서 穿母는 ‘j’와 ‘jh’를 사음한 것이 된다. 그렇지만 ‘j’는 세르보-크로아티아어의 ‘đ’와 발음이 같고, ‘jh’는 ‘j’에 기식성이 더해진 것이라는 Aymonier and Cabaton(1906)의 기술에 따라 본고에서 국제음성기호인 ‘dz’, ‘dzʰ’로 재구한 것이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Edwards and Blagden(1939)은 현대 참어 단어를 역사언어학적 인식이 결여된 채 그대로 옮겨 놓은 자료로서 Aymonier and Cabaton(1906)도 당대 20세기 참어 사전이었다. 그렇기에 다른 譯語에서 穿母가 보여주는 사음 양상과 동떨어져 있는 ‘dz’, ‘dzʰ’라는 재구는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판단되어 배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淸母는 다른 譯語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ㄷ’의 음가를 온전히 논의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함께 ‘ㄷ’의 음가를 나타냈다고 생각되는 穿母도 논의에서 배제하고 ‘ㄷ’의 음가는 파악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 精母-照母-日母

여기에서는 마찰음 계열 성모들 중 精母-照母-日母가 사음하는 데에 쓰인 양상을 정리하겠다. 각 譯語에서 精母-照母-日母가 사용된 양상을 아래의 [표 22]에 제시하였다.

[표 22]

譯語	精母	照母	日母
朝鮮館	/ʦ/, /ʣ/(비구개정)	/ʦ/(구개정)	/ʣ/(구개정)
日本館	ʦ, dz	ʃ	ʒ
西番館	t, d, ʦ, dz	ʦ, dz, tɕ, dz	ʒ
畏兀兒館	ʒ	ʣ	ʒ
韃靼館	ʒ	ʣ	—
回回館	ʒ	ʣ	—
滿刺加館	—	ʃ, ʣ	—
占城館	tɕ	dz	—

[표 22]의 사음 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된다. 첫째, 西番館譯語의 精母, 照母 사음 양상이 다른 譯語와 유난히 다르다. 둘째, 占城館譯語의 精母 사음 양상이 다른 譯語와 유난히 다르다.

우선, 西田龍雄(1963)에서 西番館譯語에서 精母가 /t/, /d/도 사음하였고, 照母가 /tɕ/, /dz/도 사음하였다고 분석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추정은 모두 티베트 문어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는데, 현대의 방언에서 확인되는 바는 라사(Lhasa) 방언에 그치고 대부분 서로 다른 음소로 반영되어 있다. 만약 다른 譯語에서도 동일한 사음 양상이 확인되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西田龍雄(1963)의 추정 내용만으로는 精母와 /t/, /d/, 照母와 /tɕ/, /dz/의 대응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照母와 /dz/의 대응 관계는 占城館譯語에서 확인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Edwards and Blagden(1939)의 재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점이 있다. Edwards and Blagden(1939)에서 참고한 Aymonier and Cabaton(1906)은 각 기호

가 나타내는 음가의 설명을 세르보-크로아트어(serbo-croate)로 빗대어 설명하였지, 객관적인 음가 기술을 해 놓지 않았다. 가령, Edwards and Blagden(1939)의 기호 ‘c’는 본고에서 ‘t͡ɕ’로 재구되었는데, 이 음가에 대한 설명은 “ca는 매우 구개음화한 전경구개음인데 그 발음이 tiare의 ti와 inquiet의 qui의 사이와 비슷하다. cf. 세르보-크로아트어어의 ć.”라고만 되어 있었다.²⁷⁾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Edwards and Blagden(1939)가 나타내고자 하였던 음가가 [t͡ɕ]였는지, [t͡ɕʰ]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다른 譯語에서도 동일한 사음 양상이 확인되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추정 내용만으로는 精母가 /t͡ɕ/를, 照母가 /dz/를 사음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선별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23]과 같다. 본고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사음 양상은 ‘—’로 지웠고, 받아들이기로 한 사음 양상은 아무런 표시 없이 그대로 살려 두었다.

27) Aymonier and Cabaton(1906: XVI)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ča est une prépalatale très mouillée dont la prononciation est intermédiaire entre celle du ti de tiare et du qui de inquiet; cf. ć (h) du serbo-croate."

[표 23]

			순음		설음, 치음						아음	후음
			양순	순치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경구개	권설	연구개	성문
폐쇄음	무성	무기	p 幫滂			t 端透		t 精			k 見溪	
		유기	p ^h 滂			t ^h 透					k ^h 溪	
	유성	무기	b 幫			d 端		d 精		d 端	g 見	
		유기									g 見	
파찰음	무성	무기			ts 精	ʈʂ 照清穿	tʃ 精照			tʃ 照		
		유기					tʃ 穿			tʃ 穿		
	유성	무기			dz 精	dʒ 照	dʒ 照穿			dʒ 照		
		유기					dʒ 穿					
마찰음	무성		ϕ 非	f 非		s 心審	ʃ 審	s 心		s 審	x 曉	h 曉
	유성			v 幫		z 精	ʒ 日	z 精		ʒ 日	ɣ 見影	
유음	전동				r 來							
	탄설				ɾ 來							
	설측찰				ɭ 來							
	설측접근				l 來							
	설측탄설				ɭ 來							
비음			m 明			n 泥		n̥ 泥	n̄ 泥			

여기에서 다시 ‘—’로 지워진 내용을 완전히 지워서 본고에서 수용하는 성모의 사음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4]와 같다.

[표 24]

			순음		설음, 치음						아음	후음
			양순	순치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경구개	권설	연구개	성문
폐쇄음	무성	무기	p 幫				t 端				k 見	
		유기	p ^h 滂				t ^h 透				k ^h 溪	
	유성	무기	b 幫				d 端				g 見	
		유기										
파찰음	무성	무기				ts 精	tʃ 照			tʃ 照		
		유기										
	유성	무기				dz 精	dʒ 照			dz 照		
		유기										
마찰음	무성		ɸ 非	f 非		s 心	ʃ 審			ʃ 審	x 曉	h 曉
	유성			v 幫		z 精	ʒ 日			ʒ 日	ʒ 見影	
유음	전동					r 來						
	탄설					r 來						
	설측찰					l 來						
	설접근					l 來						
	설탄					l 來						
비음			m 明			n 泥		n̥ 泥	n̄ 泥			

3.4 운모 표기

우선, 비교 대상 譯語를 전향 분석하여 대상 운모가 각 언어의 표기에 사용된 양상을 [표 25]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25]

譯語	/a/	/ə/	/jə/	/i/	/ji/	/wo/	/u/	/-n/	/-ŋ/
日本館	a	a, o	i	i, u	i	o	u	n	ŋ
西番館	a	a, o	i	i	i	o	u	n	ŋ
畏兀兒館	a	ä, a	i	—	i	o	u	n	ŋ
回回館	a, aː	a	i	—	i	o	u, uː	n	ŋ
滿刺加館	a	ə, o	i	i	i	—	u	n	ŋ
占城館	a	ɔw, a	i	—	i, iː	—	u	n	ŋ

한어의 운모 /jə/(眞文韻 開口呼), /ji/, /wo/, /u/, /-n/, /-ŋ/은 굳이 선택적으로 수용하지 않아도 정치한 사음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표에 굵게 표시해 두었다. 한어의 운모 /jə/(眞文韻 開口呼), /ji/는 전설고모음 ‘i’를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한어의 운모 /wo/는 후설중고모음 ‘o’를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한어의 운모 /u/는 후설고모음 ‘u’를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한어의 운모 /-n/과 /-ŋ/은 각각 ‘n’과 ‘ŋ’을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한어의 운모 /a/, /ə/, /i/가 사음에 사용된 양상은 정리가 필요하다. 운모 /a/의 사음 양상은 언뜻 보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각 譯語에서 운모 /a/로 사음된 모음들은 ‘a’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음가를 지녔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저모음이었음은 확실하다. 각 譯語별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록 1]에 되어 있다.

(가) 운모 /a/, /ə/

[표 26]

譯語	ə	a	o	u	ä	ɔw	총 개수
日本館	—	<u>63</u>	<u>55</u>	13	—	—	144
西番館		<u>85</u>	<u>93</u>	26			238
畏兀兒館		<u>71</u>	26	1	<u>81</u>		242
回回館		<u>230</u>	—	8	—		277
滿刺加館		<u>45</u>	3	<u>18</u>			7
占城館	—	<u>37</u>	—	9	—	<u>45</u>	126

[표 26]에서 ‘총 개수’는 첨기에 사용된 사음자와 미해결항을 제외한 개수를 말한다. 표에는 사음의 양상을 모두 드러내지는 않고 상위의 둘만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u’의 경우, 모든 譯語의 사음 양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표에 포함시켰다. 위의 표에 표시한 것 외의 것은 [부록 2]를 참고할 수 있다.

[표 26]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滿刺加館譯語이다. 한어의 운모 /a/가 滿刺加館譯語의 ‘ə’를 사음하는 데에 쓰인 데에서 그치지 않고, 滿刺加館譯語의 ‘ə’와의 진정한 대응을 보이는 것도 한어의 운모 /a/이다. ‘o’를 사음하는 데에도 쓰이기는 하였지만, 말레이어에서 ‘o’는 고유어의 음소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진지하게 고려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에 滿刺加館譯語의 사음 양상은 한어의 운모 /a/의 사음 음가가 [ə]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면, 한어의 운모 /a/의 사음 범위를 좀 더 좁힐 수 있게 된다. 日本館譯語, 西番館譯語, 畏兀兒館譯語에서 한어의 운모 /a/로 사음된 ‘a’가 운모 /ə/로도 사음이 되었고, 한어의 운모 /ə/는 ‘a’ 외에도 상대적으로 후설에서 조음되는 ‘o’, ‘u’, ‘ä’ 등을 사음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음이 보인다. 운모 /a/의 사음 음가는 [ə]로 정하였으므로 운모 /a/의 사음 범위는 적어도 [ə]보다는 후설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운모 /i/

[표 27]

譯語	i	u	총 개수
日本館	44	28	73
西番館	37	—	37
畏兀兒館	—	—	5
回回館	—	—	3
滿刺加館	—	—	16
占城館	—	—	3

[표 27]의 구성 방식은 [표 26]의 구성 방식과 동일하다.

모음을 사음하는 데에 쓰인 것들 중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日本館譯語의 사음 양상이다. 여기에서도 운모 /i/는 ‘i’와 ‘u’ 그 어느 것보다도 진정한 대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둘을 사음 하는 데에 쓰여, 운모 /i/와 진정한 대응을 이룰 만한 사음 음가는 그 사이에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더하여, 논의에 포함되지 못한 譯語가 많은데 여기에서 한어의 운모 /i/가 아예 사음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만 표시된 까닭은, 이들 譯語에서 한어의 운모 /i/가 첨기에만 쓰였기 때문이다. 西番館譯語에서도 한어의 운모 /i/가 ‘i’를 사음하는 데보다는 첨기에 더 많은 수가 쓰였다. 이렇게 첨기에 사용된 경우는 어떠한 함의를 지닌다고 생각되지만 자세한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선별한, 華夷譯語에서 각 운모가 사음한 음가 혹은 영역을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jə/, /ji/(i)		(i)	/u/(u)
		/i/	
(e)	/ə/(ə)	/wo/(o)	
		/a/	
		(a)	(a)

[그림 1]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의 상단에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이 한어의 운모 /i/의 사음 영역이고, [그림 1]의 하단에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이 한어의 운모 /a/의 사음 영역이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i, i, u, e, ə, o, a, a’는 각 위치의 음가를 나타내 주기 위한 국제음성기호이다.

3.5 첨기

7개 譯語에 나타난 첨기 양상을 차등 없이 표시해보면 아래의 [표 28]과 같다. 앞서 安南館譯語는 성모의 주표기 양상에서만 고려하기로 하였으므로 安南館譯語를 제외한 7개 譯語의 첨기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8]

		양순	순치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연구개	후연구개	성문
폐쇄음	무성	p 幫滂			t 端透			k 溪見	q 溪見	
	유성	b 幫			d 端			g 見		
파찰음	무성					tʃ 穿照				
	유성					ɖʒ 照日				
마찰음	무성		f 非		s 心	ʃ 審		x 曉		h 曉
	유성				z 精	ʒ 日		ɣ 影溪見曉		
유음	전동				r 兒來					
	탄설				r 兒來					
	설측근접				l 來兒					
비음		m 明			n /-n/					

기본적으로 위의 표는 성모의 사음 양상을 정리한 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금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兒’는 ‘兒’라는 사음자가 아니라 ‘兒化韻’ 전체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n/은 운미 /-n/을 지니고 있는 첨기자를 뜻한다. 전향 분석을 한 표이기는 하지만 보다 선명한 정리를 위하여 표기의 오류로 보이는 유일례는 무시하였다. [부록 2]에서는 모든 유일례를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였으므로 필요한 경우 [부록 2]를 참고할 수 있다.

華夷譯語에는 첨기용으로 쓰인 사음자가 따로 있었다고 보인다. [부록 2]를 살펴보면 각 음계의 첨기에 사용된 사음자는 아래의 [표 29]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 29]

幫	卜, 補, 不, 白, 鋪
滂	批
端	的, 答, 得, 都
透	忒, 剔, 惕, 禿, 帖
見	格, 革, 吉, 艮, 故, 果
溪	克, 闊, 乞, 苦
非	夫, 伏
心	思, 習, 糸, 西, 速, 桑
審	失
精	子, 聚, 則
日	日
穿	赤, 除, 出
照	只, 褚
曉	黑, 諛, 哈, 蛤, 吸
影	額, 兒
兒	兒, 二
來	力, 勒, 里, 刺, 魯, 綠, 羅, 路, 弄, 利
明	密, 母, 木
/-n/	音

그런데 [표 29]에 정리된 사음자를 모두 첨기용 사음자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첨기로 인식하지 않고 사음하였다고 생각되는 유일례 혹은 소수예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선별하고 華夷譯語에 사용된 첨기용 사음자가 무엇인지 가려내도록 하겠다.

첨기용 사음자가 있다는 것은 해당 음가가 첨기될 수 있었음을 뜻하므로 이 선별 작업은 朝鮮館譯語에서 중성의 음가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첨기용 사음자를 두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우선,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서 둘 이상의 譯語에서 첨기에 사용되었는지를 살폈다. 각 譯語는 서로 다른 관(館)에서 편찬된 것이므로 각각 다른 실무자가 편찬하였다고 생각된다. 華夷譯語 편찬 당시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런던본(London本)에 명기되어 있는 각 관(館)의 관리만 보아도 그러함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서 편찬되었는데 동일한 사음자가 첨기에 사용되

었다면 당시 ‘첨기용 사음자’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만약 하나의 譯語에서만 사용되었다면, 두 번째 기준으로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어사에 사용되었는가를 살폈다. 아무리 많은 수의 어휘항에 사용되었더라도 모두 동일한 어사를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첨기용 사음자로 쓰였다고 하기 보다는 앞서 정리한 華夷譯語의 성격인 ‘일관된 표기’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見-溪-影-曉

여기에서는 연구개 폐쇄음을 첨기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던 見母와 溪母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중 見母, 溪母는 影母, 曉母와 함께 ‘y’를 첨기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 影母, 曉母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첨기용 사음자를 선별해 보도록 하겠다. 사음한 음소 혹은 음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사음자가 사용된 양상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30]과 같다.

[표 30]

		回回館	畏兀兒館	韃靼館	占城館	계
見	格				1	1
	革	27	1			28
	吉	1				1
	艮		1			1
	故		1			1
	果		1			1
溪	克	22	42	◎		64+◎
	闊		2			2
	乞		1			1
	苦	1	3			4
影	額	11				11
	兒		2			2
曉	黑		18	◎		18+◎
	蛤			◎		◎
	訖	49				49
	哈	1				1
	吸	1				1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見母에서 첨기용 사음자로 인정되는 것은 ‘革’뿐이다. 溪母에서는 ‘克’이 첨기용 사음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苦’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둘 이상의 譯語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兒’는 畏兀兒館譯語에서 이미 兒化된 처지로서 ‘r’를 첨기할 때에 주로 쓰였다. 그러므로 影母에서 첨기용 사음자로 인정되는 것은 ‘額’이다. 曉母에서 첨기용 사음자로 인정되는 것은 ‘黑’과 ‘訖’이다. ‘蛤’의 경우, 韃靼館譯語의 전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 어사에서 고루 사용된 사음자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譯語에서 사용된 예가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 譯語에서 見母, 溪母, 影母, 曉母가 첨기에 사용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回回館	畏兀兒館	韃靼館
見母	g, q, ʁ	ʁ	—
溪母	k	k, q, ʁ	k
影母	ʁ	—	—
曉母	h, x	x	ʁ

우선, [표 31]에 나타난 첨기의 대상 중에서 미파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무성음인 ‘k’, ‘q’가 첨기된 譯語는 페르시아어가 사음된 回回館譯語와 위구르어가 사음된 畏兀兒館譯語이었는데, 이들 언어에서는 ‘k’와 ‘q’가 절대 어말 위치에 서도 미파화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인 예는 [부록 1]의 4장과 6장을 참고할 수 있다.

‘q’와 ‘ʁ’는 譯語에 따라 달리 첨기된 것으로서 음가의 차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15세기 페르시아어, 위구르어, 몽골어에서 이들이 종성에서 어떠한 음가를 지녔는지에 관한 정밀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ʁ’의 경우, 15세기 위구르어와 몽골어에서 초성의 위치에서조차 음소로서의 지위가 확고하지 않았고, 특정한 음운론

적 환경에서만 출현하였음이 확인된다(4.1.3 참고). 그러므로 畏兀兒館譯語와 韃靼館譯語의 ‘x’ 첨기 양상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다. 페르시아어에서 ‘q’는 고유어의 음소 /x/와 아랍어로부터의 차용어에 쓰인 /k₂/가 하나의 음소로 합류한 것으로서 20세기 페르시아어에서는 확인되지만 13세기에는 아직 음소화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부록 1] 6장 참고). 回回館譯語에서 ‘q’를 첨기했다고 추정되는 것들이 사실은 /x/나 /k₂/를 첨기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回回館譯語의 ‘q’ 첨기 양상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다.

(나) 幫-滂-非

여기에서는 양순 폐쇄음을 첨기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던 幫母와 滂母와 함께 양순 마찰음을 첨기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던 非母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첨기용 사음자를 선별해 보도록 하겠다. 사음한 음소 혹은 음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사음자가 사용된 양상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32]와 같다.

[표 32]

		回回館	畏兀兒館	西番館	韃靼館	占城館	계
幫	卜	32	11	20			63
	不				●	6	6+●
	補		9	1			10
	白	1		3			4
	緋			1			1
滂	批		1				1
非	夫		3				3
	伏	25					25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幫母의 ‘卜’과 ‘不’이 첨기용 사음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補’와 ‘白’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둘 이상의 譯語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緋’는 ‘補’의 오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지만 저본에 적힌 모습을 실제로 확인해 보아야만 여부를 알 수 있겠다. 滂母의 경우 ‘批’로 단 한 번 첨기된 것이 전부이므로 滂母의 첨기용 사음자가 존재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非母의 ‘夫’와 ‘伏’은 둘 다 첨기용 사음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정리된 바를 반영하여 각 譯語에서 幫母, 滂母, 非母가 첨기에 사용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3]과 같다.

[표 33]

	回回館	畏兀兒館	西番館	韃靼館	占城館
幫母	b, p	b, p	b, p	b	b, p
非母	f	f	—	—	—

[표 33]의 첨기 양상 중 다소 독특하게 보이는 것은 ‘p’이다. 상술한 ‘k’, ‘g’, ‘q’와 후술할 ‘d’, ‘t’ 등 폐쇄음의 첨기 양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무성음은 유기음 계열의 성모로, 유성음은 무기음 계열의 성모로 첨기되는 데에 반하여 ‘p’는 무성음인데도 무기음 계열의 성모로 사음된 것이다. /p/로 재구되긴 하였지만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실은 음성 실현이 [b]인 것을 사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성음화될 수 없는 환경의 ‘p’가 幫母로 첨기됨이 (21)와 같이 확인된다.

(21)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畏-34	雲起	課克科 _卜	kök qo <u>p</u>
畏-703	薄	與 _卜 哈納	yu <u>p</u> qana
西-6	雲	_卜 吝	/p <u>r</u> in/ (文)s <u>p</u> rin
回-1622	左	徹 _卜	č <u>a</u> p

(다) 端-透

여기에서는 치조 폐쇄음을 첨기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던 端母와 透母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첨기용 사음자를 선별해 보도록 하겠다. 사음한 음소 혹은 음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사음자가 사용된 양상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34]와 같다.

[표 34]

		回回館	畏兀兒館	滿刺加館	占城館	日本館	계
端	的		2	3	2	10	17
	得	58					58
	都	1					1
	答				1		1
透	忒	26	27				53
	剔	14					14
	惕		6				6
	禿		1				1
	帖		1				1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端母의 ‘的’과 ‘得’이 첨기용 사음자로 인정된다. 透母에서는 ‘忒’이 가장 강력한 첨기용 사음자이고, ‘剔’과 ‘惕’도 유효한 첨기용 사음자이다.

지금까지 정리된 바를 반영하여 각 譯語에서 端母, 透母가 첨기에 사용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5]와 같다.

[표 35]

	回回館	畏兀兒館	滿刺加館	占城館	日本館
端母	d	d	t, tʰ	t	t
透母	t	t	—	—	—

우선, 滿刺加館譯語에서 端母로 첨기된 ‘t’와 ‘tʰ’는 논의에서 제외해야겠다. 현대 말레이어를 제시하고 있는 Edwards and Blagden(1931)의 ‘tʰ’와 ‘t’가 15세기 말레이어에서는 /d/ 등 다른 음소였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부록 1]의 7장 참고). 또한, 日本館譯語에서 端母로 첨기된 ‘t’도 논의에서 제외해야겠다. 논저에 따라 ‘的’이 ‘t’를 첨기하였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부록 1]의 1장 참고).

占城館譯語는 무기음 성모인 端母가 무성음 ‘t’를 첨기하는 데에 사용된 유일한 譯語이다. 그렇다고 하여 占城館譯語의 사음 양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占城館譯語

에서 端母로 첨기된 ‘t’는 어두자음군의 제1요소인데, 참어의 어두자음군은 모음 탈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니 만큼 15세기 참어에서도 그 음가가 [t]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t’의 가장 강력한 첨기 성모는 透母로, ‘d’의 가장 강력한 첨기 성모는 端母로 보아야 한다. 첫째, 占城館譯語에서는 ‘t’와 유성성에 의해 대립되는 ‘d’가 첨기되는 모습이 없다. 둘째, 回回館譯語와 畏兀兒館譯語에서는 ‘t’와 ‘d’가 모두 첨기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이 각기 端母와 透母로 첨기되었다. 그렇기에 占城館譯語를 통해 추론되는 ‘t’와 端母의 대응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부차적인 대응 관계라고 보는 게 낫겠다.

(라) 心-審

여기에서는 心母와 審母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첨기용 사음자를 선별해 보도록 하겠다. 사음한 음가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사음자가 사용된 양상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36]과 같다.

[표 36]

		回回館	畏兀兒館	西番館	韃靼館	滿刺加館	계
心	思	51	36	13	●	14	114+●
	習		7			1	8
	糸		3				3
	西		3				3
	速		2				2
	桑	1					1
審	失	41	70		●		111+●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心母의 가장 강력한 첨기용 사음자는 ‘思’이다. 그렇지만 ‘習, 糸, 速’도 서로 다른 어사에 사용되었으므로 무시할 수는 없다. ‘西’는 모두 동일한 어사 ‘eski’의 ‘s’를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心母의 첨기용 사음자에서는 제외된다(畏-150, 491, 713). 審母의 첨기용 사음자는 ‘失’이다.

지금까지 정리된 바를 반영하여 각 譯語에서 心母, 審母가 첨기에 사용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7]과 같다.

[표 37]

	回回館	畏兀兒館	西番館	韃靼館	滿刺加館
心母	s	s	s	s	s
審母	ʃ	ʃ	—	ʃ	—

心母와 審母의 첨기 양상은 매우 정치하여 별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心母는 ‘s’를 첨기하는 데에, 審母는 ‘ʃ’를 첨기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마) 穿-照, 精-日

여기에서는 穿母와 照母, 精母와 日母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첨기용 사음자를 선별해 보도록 하겠다. 사음한 음가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사음자가 사용된 양상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38]과 같다.

[표 38]

		回回館	畏兀兒館	계
穿	赤		9	9
	除		5	5
	出		2	2
照	只	7		7
	楮		1	
日	日	2		2
精	子	19	58	77
	聚		1	1
	則	1		1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穿母의 첨기용 사음자는 ‘赤’이었다고 생각된다. ‘除’는 동일한 어사 ‘üč’를 사음하는 데에만 쓰였으므로 제외되지만(畏-193, 238, 250,

265, 804), ‘出’은 서로 다른 어사에서 사용되었으므로 무시할 수는 없다. 照母의 첨기용 사음자는 ‘只’였고, 日母의 첨기용 사음자는 ‘日’이었으며, 精母의 첨기용 사음자는 ‘子’였다.

지금까지 정리된 바를 반영하여 각 譯語에서 穿母, 照母, 精母, 日母가 첨기에 사용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9]와 같다.

[표 39]

	回回館	畏兀兒館
穿母	—	ʃ
照母	ʧ	—
精母	ʒ	ʒ
日母	ʧ, ʒ	—

우선, 穿母, 照母, 精母의 첨기 양상은 매우 정치하여 별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穿母는 ‘ʃ’를 첨기하는 데에, 照母는 ‘ʧ’를 첨기하는 데에, 精母는 ‘ʒ’를 첨기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日母의 경우, 예도 단 두 항이면서 각기 다른 음가를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回回館譯語 내의 여러 어사에서 ‘ʧ’가 照母로 첨기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ʒ’가 日母와 대응을 이룬다고 보인다.

(사) 來-兒

여기에서는 來母와 兒化韻으로 첨기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첨기용 사음자를 선별해 보도록 하겠다. 사음한 음가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사음자가 사용된 양상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40]과 같다.

[표 40]

		回回館	畏兀兒館	西番館	韃靼館	滿刺加館	占城館	계
來	勒	2	16		●			18
	力	43	14			1		58
	里		29		●			29
	刺	1				3		4
	魯		2					2
	綠		1					1
	羅					1		1
	路					1		1
	弄					1		1
	利					1		1
兒	兒	146	249	124	●	19	10	548+●
	二				●			●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來母의 가장 강력한 첨기용 사음자로 인정되는 것은 ‘勒’, ‘力’, ‘里’이다. 그러나 ‘刺’도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둘 이상의 譯語의 첨기에 사용되었으므로 무시할 수 없다. ‘里’는 향찰의 말음첨기자 ‘理’를 떠올리게 한다. 兒化韻의 첨기용 사음자는 ‘兒’와 ‘二’이다. ‘二’는 朝鮮館譯語에서 ‘ㄹ’을 사음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 사음자이므로 兒化韻의 첨기용 사음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정리된 바를 반영하여 각 譯語에서 來母, 兒化韻이 첨기에 사용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回回館	畏兀兒館	西番館	韃靼館	滿刺加館	占城館
來母	l, r	l, r	l	l, r	r	—
兒化韻	r, l	r, l	r	r, l	r	r

위의 표만 본다면 來母, 兒化韻이 ‘l, r, r’를 사음하는 데에 원칙 없이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부록 2]에 정리해 놓은 각 첨기자가 ‘l’, ‘r’, ‘r’ 각각을 사음하는 데에 사용된 개수를 감안한다면 ‘l’은 來母에, ‘r, r’는 兒化韻에 가장 확실

한 대응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l’가 兒化韻으로, ‘r, r’가 來母로 첨기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부차적인 대응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 明, /-n/

여기에서는 明母字와 운미 /-n/을 지닌 사음자로 첨기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첨기용 사음자를 선별해 보도록 하겠다. 사음한 음가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사음자가 사용된 양상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回回館	畏兀兒館	계
明	密	11		11
	母	1		1
	木		1	1
/-n/	音	12		12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면 ‘密’만이 明母의 첨기용 사음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木’은 鷄林類事에서 국어의 종성 ‘ㄱ’을 첨기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운미 /-n/을 지닌 첨기용 사음자는 ‘音’인데, 이 사실은 향찰의 말음첨기에 쓰이는 ‘音’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까지 정리된 바를 반영하여 각 譯語에서 明母字와 운미 /-n/을 지닌 사음자가 첨기에 사용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3]과 같다.

[표 43]

	回回館	畏兀兒館
明母	m	m
/-n/	n	—

明母字와 운미 /-n/을 지닌 사음자가 첨기에 사용된 양상은 매우 정치하여 별다

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明母字는 ‘m’를 첨기하는 데에, 운미 /-n/을 지닌 사음자는 ‘n’를 첨기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선별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44]와 같다. 본고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첨기 양상은 ‘—’로 지웠고, 받아들이기로 한 첨기 양상 중 부차적인 것은 괄호 속에 넣었다.

[표 44]

		양순	순치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연구개	후연구개	성문
폐쇄음	무성	p 幫滂			t 透(端)			k 溪見	q 溪見	
	유성	b 幫			d 端			g 見		
파찰음	무성					tʃ 穿照				
	유성					dʒ 照母				
마찰음	무성		f 非		s 心	ʃ 審		x 曉		h 曉
	유성				z 精	ʒ 日		ɣ 影溪見曉		
유음	전동				r 兒(來)					
	탄설				ɾ 兒(來)					
	설측근접			l 來(兒)						
비음		m 明			n /-n/					

여기에서 다시 ‘—’로 지워진 내용을 완전히 지워서 본고에서 수용하는 첨기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5]와 같다.

[표 45]

		양순	순치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연구개	후연구개	성문
폐쇄음	무성	p 幫			t 透(端)			k 溪	q 溪	
	유성	b 幫			d 端			g 見		
파찰음	무성					tʃ 穿				
	유성					dʒ 照				
마찰음	무성		f 非		s 心	ʃ 審		x 曉		h 曉
	유성				z 精	ʒ 日		ʝ 影見		
유음	전동				r 兒(來)					
	탄설				r 兒(來)					
	설측근접				l 來(兒)					
비음		m 明			n /-n/					

지금까지 선별한 내용을 가지고 첨기용 사음자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6]과 같다. 본고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사음자는 ‘—’로 지웠고, 받아들이기로 한 첨기용 사음자 중 부차적인 것은 괄호 속에 넣었다.

[표 46]

幫	卜, (補), 不, (白), 緇
滂	批
端	的, 簪, 得, 都
透	忒, (剔), (惕), 禿, 帖
見	格, 革, 吉, 畏, 故, 果
溪	克, 闕, 乞, (苦)
非	夫, 伏
心	思, (習), (糸), 西, 速, 桑

審	失
精	子, 聚, 冊
日	日
穿	赤, 除, (出)
照	只, 褚
曉	黑, 諛, 哈, 蛤, 喫
影	額, 晃
來	力, 勒, 里, (刺), (魯), 綠, 羅, 路, 弄, 利
兒	兒, 二
明	密, 母, (木)
/-n/	音

여기에서 다시 ‘—’로 지워진 내용을 완전히 지워서 본고에서 수용하는 첨기용 사음자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7]과 같다.

[표 47]

幫	卜, 不, (補), (白)
端	的, 得
透	忒, (剔), (惕)
見	革
溪	克, (苦)
非	夫, 伏
心	思, (習), (糸)
審	失
精	子
日	日
穿	赤, (出)
照	只
曉	黑, 諛
影	額
來	力, 勒, 里, (刺), (魯)
兒	兒, 二
明	密, (木)
/-n/	音

4. 朝鮮館譯語의 음가 추정

4.1 초성

4.1.1 ‘ㄴ’

15세기 문헌에서 ‘ㄴ’은 제한적인 환경에만 보인다. 그 환경은 모음과 모음 사이, ‘ㄹ’ 또는 ‘ㄷ’과 모음 사이였다. 이렇게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나타나던 ‘ㄴ’은 1450년대까지만 존속하였다고 여겨진다(李基文 1998: 140-141). ‘ㄴ’을 하나의 음소로 보았을 때, 그 음가에 대해서는 양순 유성 마찰음 [β]설, 양순 유성 파열음 [b]설, 양순 무성 마찰음 [ɸ]설, 순치유성마찰음 [v]설, 활음 [w]설 등 여러 주장이 있어왔다. 이들 중 다수설은 양순 유성 마찰음 [β]설이었고, 이는 李基文(1977), 李基文(1998) 등에서도 받아들여진 바 있다.

기준에 朝鮮館譯語만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ㄴ’의 음가에 대해 朝鮮館譯語가 소극적인 증거로만 쓰일 수 있었다. 朝鮮館譯語에서 ‘ㄴ’을 사음하는 데에 쓰인 幫母는 ‘ㄴ’을 사음하는 데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실은 ‘ㄷ’을 사음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것만으로는 ‘ㄴ’의 음가를 적극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대해 權仁瀚(1998)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따라 “국어의 /ㄴ/이 有聲摩擦音(/β/)인 관계로 한어의 經脣音 /f/로써 사음하기가 부적합하여 重脣音 /p/로 사음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과 함께 〈譯語〉의 편찬이 /ㄴ/의 음소적 기능이 확고했던 시기 즉, 訓民正音 창제에 앞서는 시기에 편찬되었음을 알려주는 예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면서 “譯語의 자료는 국어의 초성 /ㄴ/이 /p/에 근접한 소리였다는 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음가를 알려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 밝힌 華夷譯語의 非母와 幫母의 사음 양상은 朝鮮館譯語를 ‘ㄴ’의 음가 추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문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3.3에서 밝혔던 華夷譯語 내 성모의 사음 양상 중 非母와 幫母의 주표기 양상만을 아래의 [표 48]에 옮겨 놓았다.

[표 48]

	양순음		순치음	
	무성	유성	무성	유성
파열음	幫	幫		
마찰음	非B	A	非	幫

이러한 사음 양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준다.

첫째, [ϕ]설이 부정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A가 바로 李基文(1972ㄱ)에서 추정
한 ‘빙’의 음가 [β]의 자리이다. 李基文(1972ㄱ)의 설과 대립되었던 [ϕ]설의 자리
는 B인데 이 자리는 非母가 차지하고 있다. 만약 ‘빙’가 [ϕ]였다면 朝鮮館譯語에서
非母로 사음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幫母로 사음되었다. 그러므로 [ϕ]설은 華
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확실히 부정될 수 있게 된다.²⁸⁾

둘째, ‘빙’가 순음 계열의 마찰음이었음이 분명하다면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통
해 ‘빙’는 유성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β/ 혹은 [β]를 지닌 언어가 없어 A의
자리에 幫母가 쓰인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그러나 순음 계열의 마찰
음 중 무성음에는 모두 非母가 그 표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非母로 표기되지 않았
던 ‘빙’는 유성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빙’가 순음 계열의 마찰음이라는 사실이 訓民正音 解例本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빙’는 유성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과
함께 살펴본 朝鮮館譯語는 ‘빙’가 [β]였을 가능성과 [v]였을 가능성을 남기고 나머
지 가능성은 배제하게 해주는 증거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朝鮮館譯語만을 살펴보

28) 더하여, 日本館譯語에서 非母로 표기된 ‘ϕ’를 초성으로 가지는 ‘ハ, ヒ, フ, ヘ, ホ’가 伊路波와
捷解新語에서 한글로 표기된 모습과 비교해 보면 ‘빙’의 음가가 [ϕ]가 아님이 더욱 확실해진다.

	伊路波	捷解新語
ハ	바, 하	화
ヒ	피	비, 피
フ	부, 후	후
ヘ	페	페, 피
ホ	부, 호	호

위의 표에서 다섯 글자 모두 ‘빙’만으로 표기되지 않고 보충적인 표기를 더하고 있어 ‘빙’와 ハ행의
‘ϕ’이 동일 음가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았을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4.1.2 ‘△’

‘△’는 이송녕(1956)에 의해 중세 국어 음소로서의 지위가 확립되었다(李基文 1977: 30). 이것의 음가가 15세기 국어에서 [z]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李基文(1977: 35)에서는 ‘△’를 가지고 있는 어사들을 기원적으로 ‘△’를 가지고 있던 것들과 기원적으로 ‘ㄸ’가 유성음화되어 ‘△’를 가지게 된 것들로 구분하여 기원적으로도 ‘△’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 이것 또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朝鮮館譯語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인 權仁瀚(1998)에서도 ‘△’의 음가를 [z]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의 표기 양상이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 日母와 精母로 사음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내려졌다. 日母의 조음방법상의 특성과 精母의 조음위치상의 특성을 종합하여 ‘△’의 음가가 기존의 정설인 [z]라고 추론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權仁瀚(1998)과는 달리 ‘△’의 사음 양상이 후행하는 모음의 구개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기에 그 결론도 다르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가 비구개성 모음 앞에서는 精母로, 구개성 모음 앞에서는 日母로 표기되었다고 정리한 바 있다(2.4.1.2 참고). 이로써 ‘ㄸ’과 ‘△’는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였을 때의 표기 방법으로서 精母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음 양상을 한어 음계 精母의 음가에만 근거하여 이해한다면 ‘ㄸ’과 ‘△’가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여서는 동일하게 실현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華夷譯語에서 精母가 쓰인 양상도 고려하여 이해한다면 이러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3.3.2에서 선택적으로 수용한 心母, 審母, 精母, 日母, 照母의 華夷譯語에서의 주표기 양상을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 49]

		치경	후치경	권설
파찰음	무성	ts 精A	tʃ 照	tʃ 照
	유성	dz 精A	dʒ 照	dʒ 照
마찰음	무성	s 心	ʃ 審	ʃ 審
	유성	z 精B	ʒ 日	ʒ 日

위의 표에 보이듯이 華夷譯語의 사음에 쓰인 精母는 파찰음에도, 마찰음에도 쓰여서 파찰음에서는 照母와, 마찰음에서는 日母와 조음위치를 기준으로 대립하고 있다. 朝鮮館譯語에서 ‘ㄷ’와 ‘ㄹ’은 구개성 모음에 선행하여서 각기 照母와 日母로 사음되었다. 그러므로 朝鮮館譯語에서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는 ‘ㄷ’을 사음하는 데에 쓰였던 精母는 照母와 대립하는 精A였을 것으로,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는 ‘ㄹ’을 사음하는 데에 쓰였던 精母는 日母와 대립하는 精B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朝鮮館譯語의 사음 양상을 근거로 ‘ㄷ’과 ‘ㄹ’이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여서 동일한 음가로 실현되었다고 추정할 이유는 없게 된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ㄹ’의 사음 양상을 정리하면, 朝鮮館譯語에서 ‘ㄹ’은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여서는 精B로, 구개성 모음에 선행하여서는 日母로 사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朝鮮館譯語의 ‘ㄹ’은 ‘ㄷ’, ‘ㄷ’, ‘ㄷ’과 동일하게 ‘구개음화의 첫 단계’를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사음되었던 것일까. ‘구개음화의 첫 단계’란 “[ts]가 i, y 앞에서 [tʃ]로 變한 것”(李基文 1977: 67)이다.²⁹⁾ 이는 구개음화의 첫 단계를

29) 李基文(1977: 65)에서는 “구개음화의 첫 단계”가 나타난 시기를 적어도 15세기 이후, 서울말을 기준으로 보아 중세국어 시기 이후라고 보아 朝鮮館譯語에 구개음화의 첫 단계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훈민정음에서 ‘ㄷ’, ‘ㄷ’, ‘ㄷ’이 모두 치음이라고 규정된 점, 사성통고 범례에 근거하여 ‘ㄷ’을 치조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서북 방언에서 ‘ㄷ’이 후행하는 모음의 성질과 무관하게 치경음 [ts]로 소리 난다는 점에 근거하여 “中世語(서울말)”에는 아직 ‘ㄷ’, ‘ㄷ’, ‘ㄷ’ 모두 후행하는 모음의 음운론적 성질과 무관하게 치경음으로 발음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權仁瀚(1998)에서는 朝鮮館譯語의 사음 양상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李基文(1977)의 해석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朝鮮館譯語 시기에 이미 ‘ㄷ’, ‘ㄷ’, ‘ㄷ’이 비구개성 모음에 선

경험하기 이전의 ‘ㅅ’, ‘ㅈ’, ‘ㅊ’는 모든 위치에서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할 때의 음가와 동일하게 실현되었음을 전제한다. 그렇기에 ‘ㄷ’도 ‘구개음화의 첫 단계’를 경험하였다는 설명은 ‘ㄷ’의 기원적인 음가도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할 때의 것과 동일하였다고 전제하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15세기 이전의 ‘ㄷ’의 음가가, 일반적으로 15세기 국어 ‘ㄷ’의 음가로 일컬어지는 [z]와 동일했는지는 검증된 바 없다. 그러므로 朝鮮館譯語의 사음 양상만을 가지고는 ‘[z]가 i, y 앞에서 [ʒ]로 變한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든 ‘[ʒ]가 i, y 외의 (반)모음 앞에서 [z]로 變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참고가 되는 자료가 전기 중세국어의 모습을 담고 있는 鷄林類事이다. 만약 朝鮮館譯語에서 ‘ㄷ’의 사음 양상이 구개음화의 첫 단계를 경험한 데에서 기인하였다면 鷄林類事の ‘ㄷ’는 精母, 從母(仄) 등으로 사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鷄林類事は 그러한 사음 양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鷄林類事에서는 ‘ㄷ’가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여서도 日母로만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李基文 1998: 110). 아래에 鷄林類事에서 비구개성모음에 선행하여서도 ‘ㄷ’가 日母로 사음된 예를 姜信沆(1980)을 참고하여 옮겨 두었다.

행해서는 각각 [ts], [tsʰ], [s]로, 구개성 모음에 선행해서는 각각 [tʃ], [tʃʰ], [ʃ]로 발음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權仁瀚 1998: 280-281). 李基文(1977)의 해석은 서울말에 국한된 것이기에, 朝鮮館譯語가 서울말을 사음했다고는 특정하지 않은 본고의 입장에서는 朝鮮館譯語의 사음 양상이 반드시 李基文(1977)의 시기 설정을 수정해 줄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朝鮮館譯語에 사음된 국어에는 權仁瀚(1998)의 해석과 같이 구개음화의 첫 단계가 보인다고 할 수는 있겠다.

(22)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
溪-31	四十	麻兩(<民>刃)	마순
		ma-z̥iən	
溪-131	盜	婆兒	버서, 바스
		p'ua-z̥i	
溪-145	第	了(→丫)兒	아스
		'a-z̥i	
溪-146	妹	了(→丫)慈	아스
		'a-ts'i	
溪-312	寫字	乞核薩	글그슬
		k'iət-hək-sat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의 이러한 사음 양상은 어쩌면 구개음화의 첫 단계를 경험하기 이전의 ‘△’가 [z]가 아니라 [ɟ]였고, ‘[ɟ]가 i, y 외의 (반)모음 앞에서 [z]로 變 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러한 생각은, 15세기 국어 ‘△’의 음가를 [z]로 잡게 한 李基文(1998)에서 본래 ‘△’의 음가를 [z]로 재구하였던 것은 칼그렌의 재구음 중 ‘z’에 의지한 바가 있었는데, 칼그렌의 ‘z’는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면, 실상 [z]보다 뒤쪽에서 조음되고 비교적 [ɟ]에 가깝게 위치한 [z]라는 점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

표기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약하게 가능성을 의심해 보는 단계이긴 하나, 일단 ‘[ɟ]가 i, y 외의 (반)모음 앞에서 [z]로 變 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또 하나의 착상을 얻게 된다. 어쩌면 ‘ᄃ>w’와 같이 ‘△>j’도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 ‘-ㅅ>ㅅ’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이 대부분 ‘o’으로 변한 日母字의 현실 한자음, ‘i’ 앞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의 소실, 訓蒙字會의 ‘ㅅ’과 ‘ㅅ’ 등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좀 더 풍부한 자료가 요청되므로 지금으로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4.1.3 ‘ㅇ’

15세기 중엽의 정음 문헌에는 두 가지의 ‘ㅇ’가 있었다(李基文 1977: 16-17). 하나는 어두가 모음으로 시작함을 표시하는 소극적인 기능의 ‘ㅇ’이다. 다른 하나는 어중에서 ‘ㄹㅇ’와 같이 13세기 이후에 “주로 특수한 위치의 ‘ㄱ’([g])에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지는 적극적인 기능의 ‘ㅇ’이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ㅇ’은 이 적극적인 기능의 ‘ㅇ’이다.

15세기 문헌에서 이 적극적인 기능의 ‘ㅇ’가 출현하는 환경은 유음, 반치음, ‘j’와 모음 사이였다고 정리된 바 있다(李基文 1977: 19). 朝鮮館譯語에서는 이들 중 첫 번째 환경 즉,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의 ‘ㅇ’만이 보이며, 이들 ‘ㅇ’의 사음에는 ‘ㄱ’를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見母가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해석되어 왔다. 權仁瀚(1998)에 따르면, 적극적인 기능의 ‘ㅇ’가 사음된 예는 아래와 같다.

(23)

교유번호	1단	2단	3단
朝-20	天晚	哈嫩展根 <u>格</u> 大	하늘점글 <u>어</u> 다
朝-265	上梁	直墨勒我 <u>根</u> 大	집막르올 <u>이</u> 다
朝-301	馬粘	得 <u>蓋</u>	들 <u>애</u>
朝-347	說	你 <u>格</u> 刺	닐 <u>어</u> 라
朝-386	省諭	阿 <u>貴</u>	알 <u>외</u>
朝-390	上御路	額落我 <u>憂</u>	어로올 <u>아</u>
朝-393	興	你 <u>憂</u>	닐 <u>어</u>
			忝完 텃만
			賞兩 상량
			罵諂 마침
			捨
			爭與 싱유
			賞額落 상어로
			亨 흥로시

이들 중 ‘格’은 華夷譯語 사음의 성격 중 ‘일관된 표기’를 다루면서 언급한,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음자로서(3.1 참고) 朝鮮館譯語 내에서 이형태인 ‘-거-’를 표기하는 데에도 쓰였다고 해석되었다. 그렇기에 이들 사음자가 ‘-어-’를 표기하는 데에 쓰였다는 기존의 여러 해석은(李基文 1968: 62, 權仁瀚 1998: 250)³⁰⁾ 곧 15세기 중엽의 문헌에서 위의 어형들이 표기된 형태를 참고하여 추론되

30) 이에 대한 선험들의 해석을 아래에 그대로 옮겨 두었다.

李基文(1968: 62): “이 예들의 「格 根 憂 蓋 貴」 등의 原則的 讀法을 擇한다면 정음 문헌의 /ㄹㅇ/과 조선관역어의 /ㄹㄱ/의 對應이 樹立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문자 그대로의 /ㄱ/[g]를

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朝鮮館譯語 자료 내적으로는 “매우 약화된 후두자음이었다 하더라도 조선관역어의 편찬자들이 이렇게 표기했을 가능성”만을 토대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추정에 그친 것이었고, 과연 진정으로 그러한 음가도 見母로 사음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확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의 이러한 아쉬움은 오로지 ‘ɣ’가 다른 譯語에서는 어떻게 사음되었는지, 그리고 국어의 ‘ㅇ’와 같이 특정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ɣ’가 다른 譯語에서는 어떻게 사음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그렇기에 앞서 본고에서는 다른 譯語에서 ‘ɣ’가 사음된 양상을 살펴보기로 정한 바 있다(2.4.1.2 참고). ‘ɣ’가 사음된 양상을 아래의 표에 정리해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50]

譯語	대응 성모	출현 환경
韃靼館	影母	유음, 연구개비음에 후행, 모음 사이
	見母	어두
畏兀兒館	影母, 見母	—
回回館	影母	하나의 음소였음.

‘ɣ’가 사음되었다고 판단된 譯語는 韃靼館譯語, 畏兀兒館譯語, 回回館譯語였다. 요점부터 말하자면, 回回館譯語에서 /ɣ/가 사음되었으나 그것이 影母로 사음되었고, 韃靼館譯語에서도 [ɣ]가 사음되었으나 그것이 환경에 따라 見母와 影母로 나뉘어 사음되었으며, 畏兀兒館譯語에서도 [ɣ]는 존재하였으나 사음에 見母와 影母가 함께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구하는 데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그것이 매우 弱화된 喉頭子音이었다 하더라도 조선관역어의 편찬자들이 이렇게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들이 여기에 분명히 하나의 子音을 들었으며 그것을 [g]에 가까운 음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칠 수 없는 重大性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g]보다도 한 段階 後の [ɣ]를 再構하는 것이 더욱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權仁瀚(1998: 250): “李基文(1960:60ff.)에서 논의된 것처럼 /ɳ/이 /p/로 사음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k/로 사음된 /o/는 軟口蓋 有聲 摩擦音 /ɣ/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온당해 보인다. 이것은 15세기 단계의 [-lŋ]에 선행하는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 되므로 <譯語> 2단의 편찬이 訓民正音 창제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우선, 回回館譯語에서 /ɣ/는 사음되었으나 그것이 影母로 사음되었다는 점에서 朝鮮館譯語의 ‘ㅇ’와는 다르다. 回回館譯語에 사음된 페르시아어에는 분명히 /ɣ/가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현대 페르시아어에서 [ɣ]는 /q/의 한 변이음이지만, 19세기 이전까지는 독립된 음소 /ɣ/이었고 음운론적 환경과 상관없이 그 음가가 유지되었다(Pisowisz 1985: 30, 43, 111-113). 19세기 이후에야 ‘ɣ’와 ‘k’가 음소 /q/의 변이음 [ɣ]와 [k]가 되어 각각 모음 사이와 어두에서만 소리 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韃靼館譯語에서는, 朝鮮館譯語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환경에서만 ‘ɣ’가 사음되었다. 이는 어떤 음소의 변이음이었다고 이해된다.³¹⁾ 그런데 韃靼館譯語에서는 15세기 정음 문헌에서의 ‘ㅇ’의 출현 양상과 비슷한 환경에서 출현하는 [ɣ]는 影母에 대응하지, 見母에 대응하지 않는다. 畏兀兒館譯語를 재구한 庄垣内正弘(1984)에서는 유음에 후행하여서만 [ɣ]가 사음되었다고 기술하였으나 실제 예를 보면 그러하지도 않아 혼란스럽다. 그 음가에 대해서도 단정하여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사음 양상을 보았을 때, 朝鮮館譯語에서 ‘ㅇ’의 음가가 [ɣ]였고, 이를 사음하기 위해 見母가 사용되었다는 기존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다. 우선, 가장 확고하게 /ɣ/를 지니고 있던 페르시아어를 전사한 回回館譯語에서 /ɣ/가 影母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華夷譯語에서 ‘ɣ’를 사음하기 위해서는 見母가 아니라 影母가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느슨하게 해석하여 [ɣ]가 존재하였던 韃靼館譯語와 畏兀兒館譯語의 사정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이다. 韃靼館譯語에서 ‘ɣ’를 사음하는 데에 見母도 사용되긴 하였으나 이는 어두 환경에 국한된 것이었다. 朝鮮館譯語에서 보이는 환경 즉, 유음에 후행한 환경에서는 影母로 사음되었다. 畏兀兒館譯語에 사음된 위구르어에서 유음에 후행하여서만 나타난 ‘ɣ’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아 해석에 조심스러워진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것이 見母로만 사음되지 않고, 影母로도 사음되었다는 점은 우리의 해석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다른 譯語의 사음 양상을 고려해 보면, 朝鮮館譯語에서 見母로 사음되었다고 생각되는 ‘ㅇ’는 아예 ‘ㄱ’ 약화현상을 겪기 전이었거나 ‘ɣ’의 단계에 도달하지는

31) 庄垣内正弘(1984)에서는 畏兀兒館譯語의 ‘ɣ’를 하나의 음소로 보았지만 유음 뒤라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나타나기에 그렇게 인정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越智サユリ(2004)의 분석과 같이 어떤 음소의 변이음이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못한 음가였으리라고 고쳐 생각하게 된다. 이로써 ‘ㄱ’ 약화현상의 연대가 訓民正音 창제로부터 그리 멀리 있지는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李基文(1968: 62)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朝鮮館譯語에서 見母로 사음된 것들이 15세기 중엽의 문헌에서는 ‘ㅇ’로 쓰였다는 사실이 ‘ㅇ’가 곧 ‘ㄱ’에서 유래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4.1.4 합용병서

15세기 국어의 초성 합용병서에는 ‘ㄸ’계, ‘ㅃ’계, ‘ㅆ’계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의 음가에 대해서는 訓民正音 解例本에 별도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음가에 관한 의견은 그야말로 분분했었다. 최근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ㄸ’계는 경음, ‘ㅃ’계는 자음군, ‘ㅆ’계는 ‘ㅈ’과 경음으로 된 자음군이라는 李基文(1955), 李基文(1998) 등의 주장이다. 어두자음군의 생성 원인은 “모음의 壓出”(李基文 1955)이라고 설명되었다. 이는 ‘ㅃ’계 합용병서가 자음군이었다는 증거 중 하나로 쓰인 鷄林類事의 ‘菩薩’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제1음절이 모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단 “*ㅃ술”로 읽고, 이것에서 제1음절의 모음이 탈락되어 어두 자음군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2.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朝鮮館譯語에는 합용병서가 평음과 동일하게 표기되었다. 李基文(1968: 57)에서는 “이것은 필시 그 表記法의 粗略性에 基因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우리를 失望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구태여 어떤 의미를 찾아본다면” 한어 화자에게 국어의 경음이나 어두 자음군이 구별하기 어려웠거나 표기할 방법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李基文 1968: 57). 權仁瀚(1998: 251)에서도 이 의견을 따른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당시 華夷譯語 편찬자들에게 어두자음군을 사음할 방식이 없었는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ㄸ’계 합용병서는 경음이고 ‘ㅃ’계 합용병서는 어두자음군이라는 기존의 생각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오직 朝鮮館譯語의 사음 양상만을 보고 도출된 것이었다. 그렇기에 좀 더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다른 譯語에서도 어두자음군이 사음에서 무시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ㅃ’계 합용병서가 어두자음군이라는 기존의 생각

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華夷譯語의 표기는 주표기와 첨기로 나뉘어 정리한 바 있다(3.2 참고). 이 때, 첨기에는 향찰과 같은 말음첨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첨기가 주표기에 선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첨기는 주로 西番館譯語에서 티베트어의 어두자음군을 표기할 때에 출현하였다. 해당되는 예는 아래와 같다.

(24)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西-26	天旱	難思干	namskam
西-6	雲	卜吝	prin
西-292	米	白列	bre
西-549	笑	兒噉	rga?

그렇기에 ‘ㄴ’계 합용병서가 朝鮮館譯語에서 평음과 동일하게 표기된 것은 한어 화자들이 자음군을 달리 표기할 방도가 없어서였다는 기존의 분석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었다. 더하여, 이러한 첨기를 비단 華夷譯語만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외국어 사음 전통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앞서 李基文(1955), 李基文(1977)에서 ‘ㄴ’계 합용병서의 발달 과정에 대한 강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한 鷄林類事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우선, 鷄林類事에서 합용병서를 사음하였다고 분석되었던 예들을 姜信沆(1980)을 참고하여 아래에 모아 두었다.

(25)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
溪-152	女兒	寶(姐→)姐	썰
		pau-tat	
溪-183	白米	漢菩薩	흰쌀
		han-p'uə-sat	
溪-184	粟	田菩薩	좁쌀, 조쌀
		t'ian-p'uə-sat	
溪-216	錦綾	菩薩	-
		p'uə-sat	
溪-236	女子勒帛	寶帶	실썩
		siət-tai	
溪-310	射	活索	활쏘, 쏘, 소-
		huat-sak	

溪-152에 대해서는 李基文(1977: 52)에서 어두자음군이 형성된 이후에 모음이 탈락하여 ‘*ㅍ’이 되고, ‘*ㅍ’이 다시 경음화하여 ‘ㅍ’로 이른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李基文(1998: 109-110)에서는 다시 “의문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鄭承喆(1997: 431)에서는 ‘寶姐’부터의 전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溪-183, 184는 이제껏 어두자음군이 아직 형성되기 전 단계, 즉 “모음의 壓出”이 아직 일어나기 전 단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溪-216은 재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2단이 溪-183, 184의 ‘쌀’을 사음한 부분과 동일하여 일단 옮겨 두었다. 溪-236, 310은 15세기 문헌에서는 합용병서로 나타나는 것들이 사음에서 무시된 예들이다.

이제 華夷譯語에서 어두자음군을 표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음자를 동원하는 첨기가 보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어두자음군의 형성 이전 단계 즉, 제1음절 모음이 압출되기 이전 단계를 상징할 논리적 필연성은 사라지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ㅍ’과 같은 어두자음군 이전 단계를 설정한 근거는 溪-183, 194였다. 그런데 이들의 ‘菩’가 모음이 불분명한 ‘ㅍ’와 같은 한 음절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첨기를 위해 쓰인 것이라고 보면 溪-183, 184가 그대로 어두자음군의 표기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게 된다.

더불어, 말레이어, 참어 등 제1음절의 모음이 탈락하여 2음절어에서 단음절어로 변화한 언어를 살펴보면, 선행하는 자음이 ‘ㄷ’, ‘ㅅ’와 같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1음절 모음이 탈락된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불과 2세기만에 ‘ㄷ’와 ‘ㅅ’에서만 제1음절 모음 탈락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시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경음화가 완성되었다는 설명은 매우 불안해 보인다.

물론, 鷄林類事의 증거를 폐기한다고 하여도 국어에서 어두자음군이 모음의 압출을 거쳐 생성되지 않았다고 확정 짓기는 힘들다. 문증은 되지 않지만 鷄林類事 이전 단계에서 이미 제1음절 모음이 전반적으로 탈락되고, 최후의 단계에 ‘ㄷ’와 ‘ㅅ’가 남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고 추후에 더 많은 논의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鷄林類事の ‘菩薩’에 막혀 그 이전으로 어두자음군의 생성 시기를 소급할 수 없었던 기존의 입장(李基文 1955: 247)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다시 朝鮮館譯語로 돌아와 여기에 표기된 합용병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朝鮮館譯語에서는 합용병서가 평음과 동일하게 사음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해당하는 예들 중에서 동일한 어형이 반복되어 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에 보이도록 하겠다.

(26)

고유번호	1단	2단	3단
朝-50	霧罩	按盖底格大 안개뻐거다	五左 무조
朝-56	地	大 ㅅ	원결
朝-93	水急	悶迫勒大 물썩르다	暑吉 슈급
朝-172	米	色二 쌀	弥 미
朝-190	摘果	刮世大臥那刺 과실따오나라	得刮 덕과
朝-506	蒸	迭刺 띠라	整 중

華夷譯語의 편찬자들에게도 어두자음군을 사음할 방도가 있었음을 알게 된 이상 ‘ㄷ’계 합용병서가 어두자음군으로 읽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표기할 방도가 없어 朝鮮館譯語에서 표기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해석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제 당시 한어 화자들에게도 어두자음군을 사음할 수 있는 ‘첨기’가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본고에서 朝鮮館譯語 시기에 이미 모든 어두 합용병서가 더 이상 어두자음군이 아니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15세기 문헌에서는 어두 합용병서가 혼기 없이 나타나는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들의 음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ㄷ’계 합용병서와 ‘ㅌ’계 합용병서의 증거로 제시되었던 자료들이 어중의 합용병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떠올려 보면, 어찌면 15세기 국어에서 어두와 어중에서 합용병서의 음가가 달랐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현대에까지 어두자음군이 나타나는 티베트어의 경우, 어두에서부터 어두자음군의 제1요소가 탈락되기 시작했음을 떠올려 본다면³²⁾ 이러한 해석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어두자음군이 어두에서 먼저 경음화되거나 제1요소를 잃어버리고 어중에서 최후에까지 음가를 유지하였다면, 어두에 출현하는 합용병서만이 음성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朝鮮館譯語의 사음 양상도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1.5 기타

이제 나머지 초성 자음을 정리해 보겠다. 나머지 초성 자음은 모두 李基文(2006)의 ‘존속 문자’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나머지 초성 자음 중 ‘ㄷ’는 3.3에 밝힌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가) ‘ㄱ-ㄷ-ㄴ’, ‘ㅋ-ㅌ-ㄴ’

‘ㄱ-ㄷ-ㄴ’와 ‘ㅋ-ㅌ-ㄴ’의 음가 추정은 이제껏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訓民正音 解例本の 서술에 근거하여 현대 국어의 음가와 같다고 간주되어 왔을 뿐이다. 본고에서도 기존의 논의에 특별히 보탬 것이 없다.

32) 티베트어의 음절초 자음군은 어두에서 종종 생략되었는데 이는 Lhasa 지역의 관리들이 쓰던 사회방언의 특성으로 생각된다(Beyer 1992:35-36). 이들이 느리고 분명하게 발음했을 때는 발음되었겠지만 빠르고 불분명하게 말할 때는 생략하거나 약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티베트어 음절초 자음이 발음상 생략되거나 약화되었던 흔적이 전사 자료에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방언마다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Beyer 1992:7).

權仁瀚(1998)에서는 朝鮮館譯語에서 ‘ㄱ-ㄷ-ㅂ’와 ‘ㅋ-ㅌ-ㅍ’의 음가를 한어 음계의 추정 음가에 근거하여 각각 [k]-[t]-[p], [kʰ]-[tʰ]-[pʰ]로 보았다. 이때, ‘ㄱ-ㄷ-ㅂ’와 ‘ㅋ-ㅌ-ㅍ’를 사음하는 데에 쓰인 음계와 각 음계의 음가를 權仁瀚(1998)에서 추정한 내용과 본고에서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고려하여 각 음계의 사음 범위를 선별한 내용을 한꺼번에 표로써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표 51]

			양순	치경	연구개
폐쇄음	무성	무기	p 幫	t 端	k 見
		유기	pʰ 滂	tʰ 透	kʰ 溪
	유성	무기	b 幫	d 端	g 見
		유기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고려하면 ‘ㄱ-ㄷ-ㅂ’는 그 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변이음들이 구별 없이 사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ㄱ-ㄷ-ㅂ’가 각각 [g], [d], [b]와 같이 유성음화되는데, 이를 朝鮮館譯語에서는 구별 없이 사음하였다는 이야기다. ‘ㅋ-ㅌ-ㅍ’의 음가에 관해서는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고려하여도 더 보탬 것이 없다.

(나) ‘ㄴ, ㄷ, ㄹ, ㅇ’

‘ㄴ, ㄷ, ㄹ, ㅇ’의 음가도 그간 訓民正音 解例本の 서술에 근거하여 현대 국어의 음가와 같다고 간주되어 왔다.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도 ‘ㄴ, ㄷ, ㄹ, ㅇ’의 음가에 대해 특별히 말해 주는 바가 없다.

(다) ‘ㅅ, ㅈ’

본고에서는 ‘ㅅ’를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3.3). 앞서 정리하였듯이(4.1.2) 權

仁瀚(1998)에서는 李基文(1998)의 추정을 반박하고 ‘ㄸ’, ‘ㅈ’, ‘ㅊ’가 朝鮮館譯語의 편찬 시기에 구개음화의 첫 단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朝鮮館譯語가 어떠한 방언을 반영하였는지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權仁瀚(1998)의 분석을 ‘朝鮮館譯語에 사음된 방언’에 한하여 받아들인다. 權仁瀚(1998)의 분석은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중성 ‘ㄷ’를 살펴보면서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부언(附言)할 것이 없다.

4.2 중성

4.2.1 ‘ㄷ’

일찍이 李基文(1998)과 李基文(1977)에서는 향찰 체계를 근거로 하여 고대 국어의 음절말 유음에는 두 종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향찰 체계에서 동명사 어미 ‘尸’와 대격 어미 ‘乙’가 각각 *r와 *l에 소급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³³⁾ 그리하여 이를 몽고어, 알타이제어와 비교하며 “고대어의 유음에는 *r와 *l이 있었고 이들이 음절말 위치에서 대립을 유지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할 수 있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이들이 후에 ‘ㄷ’ 하나로 합류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합류는 내파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李基文 1977: 95-96).

2.3.2에서 朝鮮館譯語에서도 중성의 ‘ㄷ’가 향찰처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기됨을 정리한 바 있다. 이들은 權仁瀚(1998)에서는 서로 음가의 차이가 아닌 문법범주상의 차이를 반영한 것에 그치고 모두 설측음 ‘l’의 사음에 이용된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兒化韻인 ‘二’는 체언의 중성 ‘ㄷ’를 표현하기 위하여, 來母字인 ‘勒’은 용언 어간의 중성 ‘ㄷ’를 표현하기 위하여 쓰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렇게 해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고대 국어의 음절말 유음을 해석한 방식을 살펴보면 ‘二’와 ‘勒’이 문법범주상의 차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이 이들이 음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33) 李基文(1998)의 서술 방식에 따라 *r과 *l에는 //나 []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근거로 작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朝鮮館譯語의 중성 ‘ㄹ’을 관찰하였던 文璇奎(1960)에서도 중성 ‘ㄹ’의 표기가 여럿으로 나뉘는 모습은 그 음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초기의 연구이기에 ‘勒’은 고려하지 못하긴 하였지만, 朝鮮館譯語에서 ‘二’로 첨기된 중성 ‘ㄹ’은 “「-l」 부분이 强하게 나오는 境遇”이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比較的 輕하게 나는” ‘ㄹ’을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³⁴⁾ 여기에서 “比較的 輕하게 나는” 소리라 함은 훈민정음의 반설경을 ‘ㄹ’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이는 [r]에 가까운 발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華夷譯語에서의 사음 양상은 李基文(1998), 李基文(1977) 등과 같은 방식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표 52]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전동		r 兒(來)		
탄설		r 兒(來)		
설측접근	l 來(兒)			

權仁瀚(1998: 265)에서는 韃靼館譯語에서도 朝鮮館譯語와 같이 兒化韻 ‘二’를 이용한 첨기가 來母를 사용한 첨기와 동일하게 설측음을 나타냈다는 점도 제시하였지만 韃靼館譯語 2단 재구 상황의 전모(全貌)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韃靼館譯語의 ‘二’가 설측음을 사음하였다고 확정짓기는 힘들 듯하다. 현재로서는 본고에서 참고한 越智サユリ(2004) 정도가 韃靼館譯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고 있는 최선의 자료인데, 여기에서도 ‘二’와 ‘兒’가 달리 쓰이고 있다고는 확정 짓지 않았다. /l/을 사음하는 데에는 來母를 이용한 첨기가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일부 兒化韻을 이용한 첨기도 소수 사용되었고, 그 예로 ‘二’를 사용한 첨기가 함께 언급되었을 뿐이다. 실상, 음성적인 전사가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중요한 성격 중 하나이기 때문에

34) /-ㄹ/의 표기 방식의 차이는 곧 음가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음가 추정에 대해서는 본고는 생각을 달리한다.

음가는 동일한데 문법 범주만이 달랐다면, 별개의 음계에 속하는 사음자가 아닌 동일한 음계에 속하는 사음자를 사용하였어야 자연스럽기도 하다.

이렇듯 朝鮮館譯語에서 ‘ㄹ’을 兒化韻과 來母로 첨기한 것은 음성실현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각기 어떠한 음가를 나타내고자 하였는가는 밝힐 수 없다. 鷄林類事에서 종성의 ‘ㄹ’가 오로지 한어의 입성운미 /-t/로 정치하게 표기되었다는(姜信沆 1980: 178-180) 점과³⁵⁾ 소신애(2008)에서 개진된, 종성 음가가 중세 국어에서도 종성 ‘ㄹ’의 음가가 탄설음과 설측음의 둘이었다는 의견이 참고가 될 뿐이다.

4.2.2 ‘ㄹ’

4.1.1에서 밝힌 바와 같이 15세기 문헌에서 ‘ㄹ’은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만 보인다. 만약 ‘ㄹ’가 ‘ㄱ’, ‘ㄷ’, ‘ㅈ’, ‘ㅊ’ 등과 연결되면 ‘ㄹ’가 되었다(李基文 1998: 149). ‘돌-’(助)에 ‘-고’가 연결되면 ‘돌고’가 되는 식이다. 15세기 문헌에서는 ‘*돌고’와 같은 어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어쩌면 기존의 논의에서 朝鮮館譯語의 종성 ‘ㄹ’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權仁瀚(1998)에서도 종성 ‘ㄹ’의 사음은 논의하지 않았고 종성 ‘ㄹ’가 幫母인 ‘卜’으로 첨기되었다고 분석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첫째, 訓民正音 解例本の 체계에서 15세기 국어 종성 ‘ㄱ’, ‘ㄷ’, ‘ㄹ’은 모두 측급

35) 姜信沆(1980)의 재구를 따르자면, 이들은 모두 체언의 말음 ‘ㄹ’이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의 일부를 아래에 예시한다.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
溪-30	三十	實漢 ɕiət-han	설·흔
溪-58	水	沒 muət	물
溪-208	珠	區戌 k'iuə-siuət	구·슬
溪-247	梁	沒涕里 muət-t'i-li	·물·드리(·다)
溪-306	紫	字南木 puət-nam-mək	·블·나모

(促急)한 음으로서 자연부류를 이룬다. 그런데 朝鮮館譯語에서 유독 종성 ‘ㄷ’만이, 비록 일부이지만, 첨기되고 그 외의 ‘ㄱ’, ‘ㄷ’는 사음에서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점이 혼란을 준다.

둘째, 15세기 한어의 음계에서도 운미의 /-k/, /-t/, /-p/는 모두 입성운미(入聲韻尾)로서 자연부류를 이루었다. 또한 朝鮮館譯語를 비롯하여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華夷譯語의 8개 譯語중 安南館譯語를 제외하고 7개 譯語에서 사용된 북방음계에서는 이미 /-p/는 /-k/, /-t/와 함께 이미 소실된 상태였다. 한어 음계의 특성으로 인해 朝鮮館譯語에서 종성의 /-ㄷ/만이 첨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까닭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절말 자음은 유성음인 경우 혹은 무성음이어도 지속음이거나 외파되는 경우에만 첨기되었다. 그런데 朝鮮館譯語에 사음된 종성의 ‘ㄷ’는 이들 중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적다.³⁶⁾ 기존 15세기 국어 종성의 음가에 대한 이해와 華夷譯語 전체의 사음 원칙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오로지 朝鮮館譯語의 ‘ㅌ’을 종성의 ‘ㄷ’를 첨기한 것으로 볼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 참고로, 앞서 이미 ‘ㄷ’의 음가에 대해서는 華夷譯語 안에서만 보아도 유성음임이 확인된 바 있다(4.1.1. 참고). 우선, 權仁瀚(1998)에서 ‘ㅌ’으로 종성 ‘ㄷ’가 첨기되었다고 해석한 항목들을 아래의 (27)에 모두 보였다.

36) 소신애(2008: 각주 8)에서 종성의 미파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으나, 여기에서도 종성의 ‘ㄷ’는 그 순서의 처음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까지 미파화되지 않은 ‘ㄷ’가 朝鮮館譯語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정적으로, 權仁瀚(1998: 270)에서도 朝鮮館譯語에 사음된 국어의 종성 ‘ㄷ’는 무기음인 /p/가 이미 미파화된 상태라고 보았다. 이때 미파화의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항들이 제시되었다.

고유번호	1단	2단	3단	
朝-128	押馬	원결	按罵	압마
朝-129	押物	원결	按悶	압물

朝-363, 364에서 국어의 종성 ‘ㄷ’는 한어의 운미 /-n/에 대응하고 있는데, 權仁瀚(1998: 270)에서는 이것이 종성 위치에서 자음의 내파화를 전제로 하는 비음동화에 기인하였다고 분석하였다.

(27)

고유번호	1단	2단		3단	
朝-128	冷	尺 _卜 大	칠다→칠다	稜	링
朝-129	熱	得 _卜 大	덜다→덜다	耶	열

이들은 정음 문헌에서 각기 ‘치^브니 치^본 치^번’, ‘더^본(더^본) 더^불’와 같은 활용 양상을 보이기에 모두 어간 말음이 ‘ங’이었다고 추정되지만, 權仁瀚(1998)에서 朝-128, 129를 ‘칩다, 덩다’와 같이 재구한 까닭은 15세기 정음 문헌에서 ‘ங’가 ‘ㄱ’, ‘ㄷ’, ‘ㅈ’, ‘ㅊ’ 등과 연접되면 ‘ㄷ’가 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朝鮮館譯語는 훈민정음 창제보다 이른 시기의 국어를 반영하기에 이러한 정음 문헌의 공식을 朝鮮館譯語에 그대로 적용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朝鮮館譯語에서 朝-128, 129는 각각 “*칠다”와 “*덜다”로도 재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ங’가 朝鮮館譯語의 성립 시기에는 모음간, ‘ㄱ’ 또는 ‘ㄷ’와 모음 사이뿐만 아니라 모음과 자음 사이에서도 출현하였다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되는 예의 수가 적고, 본고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華夷譯語 표기상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추후에 좀 더 많은 자료가 보충된다면 ‘ங’가 ‘ㄱ’, ‘ㄷ’, ‘ㅈ’, ‘ㅊ’ 등에 연접하여서는 ‘ㄷ’가 되는 현상은 朝鮮館譯語의 시기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후행하는 자음은 유성음화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朝鮮館譯語나 華夷譯語를 통해서는 그 유성음화 여부를 알 수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朝鮮館譯語에서 초성 ‘ㄷ’를 사음하는 데에 쓰인 端母는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을 표기하는 데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분석되었기 때문이다(3.2.2 참고).

끝으로, 여기에 더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이 둘이 더 있다. (28)의 朝-27, 30이 그 두 항목이다.

(28)

고유번호	1단	2단		3단	
朝-128	日暖	害得 _大	히#덜다	忍根	실난
朝-129	月斜	得二 _吉 格大	들#기 ^불 어다	臥捨	월샤

朝-27의 경우 朝-129의 합성어인데 ‘卜’이 생략된 경우이다. 구(句) 혹은 합성어로 쓰일 때에는 종종 첨기가 생략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3.1.2에서 언급한 바 있다.

4.2.3 ‘ㄴ’

고대국어에서 종성 ‘ㄴ’, ‘ㄷ’, ‘ㄹ’이 중화되지 않았음은 분명히 보인다. 鄉藥救急方의 말음첨기에서 종성 ‘ㄴ’은 ‘叱’로, 종성 ‘ㄷ’과 ‘ㄹ’은 ‘次’로 각각 달리 첨기되었기 때문이다. 더하여, ‘ㄷ’과 ‘ㄹ’도 실상 종성에서 아직 중화되지 않았지만 표기의 조잡성으로 인해 ‘次’를 공유했다고 여겨진다(李基文 1977: 83-84). 그런데 15세기에는 음절말 미파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종성 ‘ㄴ’이 ‘ㄷ’, ‘ㄹ’와는 이미 중화되었고, ‘ㄷ’과의 음운론적 대립만이 유지되었다(李基文 1977: 78).

李基文(1998)에서는 종성에서 ‘ㄴ’과 ‘ㄷ’의 대립이 유지되었다는 여러 근거를 들었는데, 그 중에는 朝鮮館譯語의 사음 양상도 속해 있었다. 朝鮮館譯語에서 15세기 정음 문헌의 종성 ‘ㄴ’이 모두 心母 ‘思’로 첨기되어 있는 반면에 종성 ‘ㄷ’은 사음에서 모두 무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던 것이다. 더불어 最古 華夷譯語와 四夷館系 華夷譯語에서 ‘思’가 음절말 ‘s’의 첨기에 사용되었던 점을 들어 논리를 보강하였다. 權仁瀚(1998)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받아 들였다.

지금까지 정리한 기존의 논의에는 두 가지 한계가 보인다. 하나는, 다른 譯語에서라도 음절말의 다른 마찰음 혹은 파찰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첨기되었는지, 혹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 본래 華夷譯語에서 음절말의 모든 마찰음과 파찰음을 음가의 구분 없이 ‘思’로만 통일해서 쓰는 것이라면 朝鮮館譯語의 ‘思’를 종성 ‘ㄴ’의 음가 추정이나 종성 ‘ㄷ’, ‘ㄹ’과의 중화의 근거로 삼기에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다른 譯語에서 ‘思’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종이나 朝鮮館譯語가 실려 있는, 구어를 전사한 會同館系 華夷譯語가 아니라 문어를 전사한 最古 華夷譯語와 四夷館系 華夷譯語를 참고하였다는 점이다. 문어를 전사한 경우에는 실제 음가와는 상관없이 적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最古 華夷譯語와 四夷館系 華夷譯語를 朝鮮館譯語와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

계점을 다른 華夷譯語 전체의 첨기 양상을 살핌으로써 극복하고자 하였다. 3.5에서 정리한 華夷譯語의 첨기 양상 중 치경 마찰음과 후치경 파찰음의 첨기 양상을 아래의 [표 53]에 제시하였다.

[표 53]

		치경	후치경
파찰음	무성		ʃ 穿
	유성		ʒ 照
마찰음	무성	s 心	ʃ 審
	유성	z 精	ʒ 日

위의 양상을 보면, 華夷譯語에서 心母 외에 照母, 穿母, 審母, 日母도 첨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朝鮮館譯語에서 ‘思’로 종성 ‘ㄴ’을 첨기했던 것은 실제 중화된 음가를 반영한 것이었지, 종성 ‘ㄷ’, ‘ㄷ’가 종성 ‘ㄴ’과 아직 음운론적 대립을 이루고 있었는데도 달리 표기할 방도가 없어 ‘思’로 통합하여 표기한 것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이들 사음 양상을 보면 초성 주표기에서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는 환경에서 쓰였던 성모로 종성이 첨기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는 ‘ㄷ’을 사음하는 데에 쓰인 精A와 비구개성 모음에 선행하는 ‘ㄷ’를 사음하는 데에 쓰인 淸母가 첨기에 사용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그래도 照母, 穿母, 審母, 日母, 精B가 첨기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점을 통해 방증하는 역할 정도는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鷄林類事에서는 국어의 치음 계열 종성이 ‘翹’로 첨기되었다고 분석된 바 있는데, ‘翹’가 어떠한 음가를 나타내고자 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姜信沆 (1980: 181-182)에서는 “翹의 추정음은 ...[중략]... 〈중한〉의 갓(皮), 낫(面)도 갓, ㄴ이 있으므로 어느 음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유독 시자로 말음을 독립시켜 표기한 것이 특이하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翹’가 西番館譯語에 쓰인 예가 있

어 주목된다. 구체적인 예는 [부록 1]의 3장을 참고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2.4 ‘△’

종성 ‘△’는 비록 訓民正音의 팔중성법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15세기 국어에 분명히 실현되었다고 보인다. 종성 ‘△’가 출현하였던 모음과 ‘ㅇ’, ‘ங’ 사이에서 ‘ㅅ’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들 환경에서는 ‘△’와 ‘ㅅ’가 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그 음성 실현은 분명히 ‘△’의 [z]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15세기 문헌에서 종성 ‘△’가 보이는 점은 이러한 음성 실현을 반영하지 못한 訓民正音의 팔중성법에 대한 “批判의 發露”라고도 할 수 있다(李基文 1977:83).

朝鮮館譯語에서도 종성에서 ‘△’가 ‘ㅅ’와는 달리 첨기되는 모습이 관찰됨이 權仁瀚(1998)에서 밝혀진 바 있다. 종성의 ‘ㅅ’가 心母인 ‘思’로 첨기되었음에 반하여 종성의 ‘△’는 精母인 ‘自’로 첨기되었다는 분석이었다. 그렇지만 해당되는 예가 하나뿐이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엔 다소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한 아쉬움을 본고에서는 두 방향에서 해소하고자 한다. 朝鮮館譯語에서 종성 ‘△’가 첨기된 예를 추가하는 것이 한 방향이고, 다른 譯語에서 精母 특히, 精B가 첨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다른 한 방향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앞서 종성 ‘△’의 첨기 예에 두 항을 추가함으로써 朝鮮館譯語에서 15세기 국어의 종성 ‘△’를 精母인 ‘自’로 첨기한 항목은 셋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 세 항목을 (29)에 정리해 두었다.

(29)

고유번호	1단	2단		3단	
朝-18	天邊	哈嫩格 _自	하늘 _△	忝扁	턴변
朝-122	秋	格 _自	_△ [ㄱ슬]	處	츄
朝-123	冬	解 _自	_△ [겨슬]	董	동

다음으로, 精母 중에서도 精B가 첨기에 사용되었음은 앞서 종성 ‘ㅅ’의 음가를 논

하면서 밝힌 바 있다. 이때, 다른 譯語에 精B의 첨기용 사음자로 ‘自’가 사용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3.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精B의 첨기용 사음자로는 ‘子’만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朝鮮館譯語에서 ‘自’가 첨기에 사용된 예 세 개를 확보한 지금 ‘自’ 또한 서로 다른 어사에 2회 이상 사용된 사음자이므로 어엿한 첨기용 사음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4.2.5 겹받침

朝鮮館譯語에 보이는 겹받침은 ‘ㄹ’과 ‘ㄹ’이다. 근대국어 자료와는 달리 중세 국어 자료에서 ‘ㄹ’과 ‘ㄹ’을 가지고 있던 단어들은 모음에 선행할 때에는 연쇄표기로 제2요소를 후행하는 음절의 초성으로, 자음에 선행할 때에는 어간말에 모두 표기하였기에 표기대로 음성실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홍윤표 1987:105-110). 權仁瀚(1998: 269)에서도 의견을 같이 한다. 비록 朝鮮館譯語에서는 ‘ㄹ’과 ‘ㄹ’의 제1요소 ‘ㄹ’만이 사음되거나 아예 사음에서 무시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국어의 실제 음성실현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ㄹ’과 ‘ㄹ’의 발음을 한어로 적절히 표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해석에서는 한어에서 진정으로 어말자음군을 사음할 방도가 없었는가를 문증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回回館譯語에서 페르시아어의 어말자음군이 사음된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말자음군이 매우 다양한 페르시아어를 기록한 回回館譯語에는 어말자음군이 주표기와 첨기를 이용해 여러 방식으로 표기된 점이 주목된다. 回回館譯語를 재구한 本田實信(1963)에 분석되어 있지는 않으나 어휘항이 재구된 모습에도 다양한 어말자음군의 존재가 분명히 확인된다. 본고는 回回館譯語에서 페르시아어의 어말자음군은 네 방식으로 표기되었다고 본다.

첫째, 어말자음군의 모든 요소가 첨기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의 일부를 아래의 (30)에 제시하였다.

(30)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回-1019	霜	僕失克	paš <u>k</u>
回-1022	雪	白兒伏	bar <u>f</u>
回-1024	電	白兒革	bar <u>q</u>
回-1036	星移	洗他勒亦那 <u>革力</u>	sitārahi-na <u>ql</u>
回-1078	御路	傻 <u>諛刺諛</u>	šā <u>h-r̥h</u>

둘째, 어말자음군의 제1요소는 운미의 주표기로 쓰였고, 나머지 요소는 첨기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의 일부를 아래의 (31)에 제시하였다.

(31)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回-1049	程	法兒 <u>桑革</u>	far <u>sang</u>
回-1052	林	<u>振革力</u>	<u>jangal</u>
回-1151	王瓜	把得 <u>郎革</u>	bādr <u>ang</u>
回-1230	蟒	那 <u>杭革</u>	na <u>hang</u>

셋째, 한 사음자로 첨기하되, 어말자음군의 제1요소는 성모로, 제2요소는 운미로 첨기하였다. 이는 回回館譯語만의 독특한 첨기 방식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의 전부를 아래의 (32)에 제시하였다.

(32)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回-1104	蟒	革林	garm
回-1197	子種	禿恨	tu x m
回-1323	盆	勒食	la t n
回-1440	羞	捨藍	ša r m
回-1468	眼	徹深	ča s m
回-1559	玉	葉深	ya s m
回-1569	夾玉石	葉深白桑革哈勤	ya s m ba-sangxārah
回-1571	詩	那尊	na z m
回-1680	憐憫	勒恨克兒丹	ra h m kardan

넷째, 일부이기는 하지만 朝鮮館譯語와 같이 어말자음군 중 한 요소만 첨기되었다. 이는 朝鮮館譯語와 같은 사음 방식이므로 해당하는 항목의 전부를 아래의 (33)에 제시하였다.

(33)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回-1076	旱路	刺吸拜六	rahi-barr
回-1217	鹿	革外子	gavazn
回-1236	鴨	白武	ba t t
回-1564	貓睛	蹠乃力吸兒	‘ainu’l-hirr
回-1651	豎	土力	turr

이로써 華夷譯語의 편찬자들에게는 어말자음군을 사음할 여러 방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시금 華夷譯語 편찬자들이 왜 朝鮮館譯語에 와서는 어말자음군의 제1요소와 제2요소를 그대로 사음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은 그저 표기의 조잡성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여기에서는 3.2에서 정리한 원칙 2를 다시 음미해 보면 어떨까 한다. ‘리’나 ‘래’의 제2요소 ‘ㄱ’와 ‘ㄴ’은 이들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국어의 종성의 ‘ㄱ’와 ‘ㄴ’이 첨기되지 못하고 모두 사음에서 무

시되었다는 사실과 평행하게 이해될 수 있다. 제1요소 ‘ㄹ’가 兒化韻으로 첨기된 점과 관련하여서는 선불리 그 함의를 밝힐 수가 없다. 다만, 겹받침의 제1요소로 쓰인 ‘ㄹ’을 탄설음이라고 주장한 소신애(2008)의 논의가 참고가 되긴 한다.

4.2.6 기타

이제 나머지 종성 자음을 정리해 보겠다. 나머지 종성 자음은 모두 李基文(2006)의 ‘존속 문자’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가) ‘ㄱ’-‘ㅋ’, ‘ㄷ’-‘ㅌ’, ‘ㅂ’-‘ㅍ’

李基文(1977: 83)에 따르면, 13세기 중엽에는 음절말에서 평음과 유기음의 중화가 이미 일어났다. 訓民正音 解例本の 팔종성법도 이들 평음과 유기음이 이미 음절말에서 중화되고 미파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은 모두 朝鮮館譯語의 사음에서 무시되었음을 살핀 바 있다. 이를 權仁瀚(1998)에서는 한어의 입성운미(入聲韻尾)가 파입되었기 때문으로 이들의 발음이 종성 위치에서 중화되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하였다.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과 함께 살펴보면 한어의 입성운미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외파되는 연구개폐쇄음, 치조폐쇄음, 양순폐쇄음은 첨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 한 향도 첨기되지 않은 국어의 종성 ‘ㄱ’-‘ㅋ’, ‘ㄷ’-‘ㅌ’, ‘ㅂ’-‘ㅍ’의 음가는 이들 조건 중 어떤 것도 충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朝鮮館譯語가 당시 국어에서 이들이 미파화되었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증거가 된다.

(나) ‘ㄴ’, ‘ㄹ’, ‘ㅇ’

이들에 대해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기존의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되어줄 뿐이다.

4.3 중성

여기에서는 朝鮮館譯語의 중성 표기 양상을 통해 15세기 국어의 모음 음가 추정도를 그려보고, 이를 ‘구체자 검증’을 통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2.3.3에서 정리한 朝鮮館譯語의 모음 사음 양상을 아래의 [표 54]에 다시금 옮겨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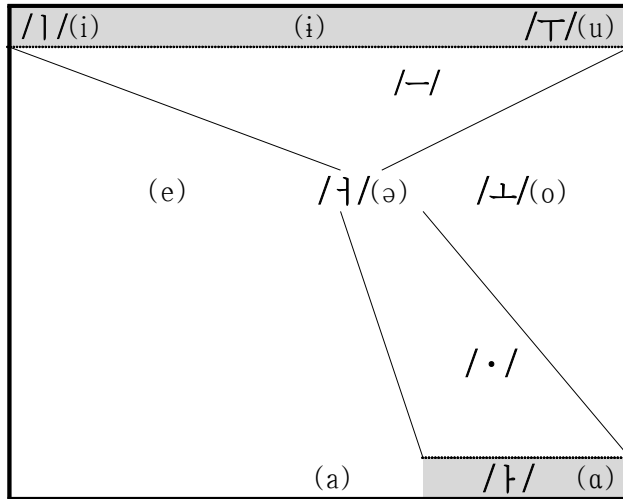
[표 54]

분류	모음	사음자의 운모	
기본자	/·/	/ə/	/a/
	/ㅡ/	/ə/	/i/
	/ㅣ/	/jə/ 眞.開	/ji/
초출자	/ㅏ/	/a/	
	/ㅓ/	/ə/	
	/ㅗ/	/wo/	
	/ㅜ/	/u/	

초출자인 ‘ㅏ’, ‘ㅓ’, ‘ㅗ’, ‘ㅜ’는 오직 하나의 운모에만 진정한 대응을 이루므로 음가 추정도를 그리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3.4에서 정리한, 각 한어의 운모가 華夷譯語에서 사음한 음가가 바로 ‘ㅏ’, ‘ㅓ’, ‘ㅗ’, ‘ㅜ’의 음가로 바로 받아들여진다. 이때, ‘ㅏ’와 진정한 대응을 이루는 한어의 운모 /a/가 華夷譯語에서 사음한 음가는 비교적 넓은 범위라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 기본자인 ‘ㅣ’는 비록 두 운모와 대응을 이루지만 3.4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운모 /jə/(眞文韻 開口呼)와 /ji/ 모두 華夷譯語에서 ‘i’를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음가 추정도를 그리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기본자인 ‘·’와 ‘ㅡ’이다. 이들은 각기 두 운모와 대응될 뿐만 아니라, 두 운모 중 하나씩은 사음 음가 범위가 넓다. ‘·’를 사음한 운모 /a/, ‘ㅡ’를 사음한 운모 /i/가 그러하다. 그리하여 ‘·’와 ‘ㅡ’의 음가는 확정하기 힘들고,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세모꼴의 범위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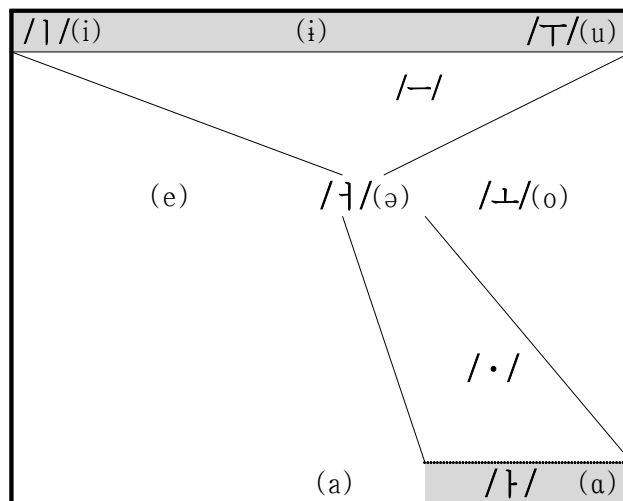
이제 본고에서 朝鮮館譯語의 모음 음가를 추정한 내용 중 ‘ㅓ’, ‘ㅑ’, ‘ㅓ’의 음가를 ‘구체자 검증’을 통해 다시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미리 정한 바와 같이 대응되는 개수가 20개 이하이면 논의에서 제외하였다(2.3 참고). 비교 대상 譯語를 ‘구체자 검증’ 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55]와 같다. ‘구체자 검증’의 구체적인 모습은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5]

譯語	/ㅓ/	/ㅑ/	/ㅓ/
日本館	—	—	—
西番館	—	—	—
畏兀兒館	ä	a	<u>ä, i</u>
回回館	a	a, a'	a
滿刺加館	<u>ə</u>	<u>a, ə</u>	—
占城館	—	a	—

[표 55]를 통해 한 가지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畏兀兒館譯語의 사음 양상을 통해 ‘ㅡ’를 보다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고모음인 ‘i’뿐만 아니라 체계상으로는 저모음, 음가상으로는 중모음인 ‘a’도 사음하는 데에 쓰였기 때문에 ‘i’보다는 아래쪽에서 조음되었다고 생각된다. 畏兀兒館譯語의 모음 ‘i’와 ‘a’의 음가에 관한 논의는 [부록 1]의 4장을 참고할 수 있다. 이것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모음 음가 추정도를 완성해 보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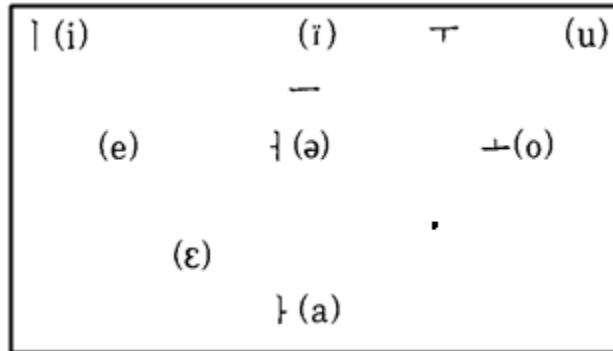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3]과 같이 완성되는 朝鮮館譯語의 모음 음가 추정도는 김성규(1996)에서 제시한 외국어 사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된 15세기 국어 모음 음가의 추정도와 유사하여 참고가 된다. 김성규(1996)에서는 오로지 외국어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도출될 수 있는 15세기 국어 모음 음가의 추정도를 제시한 바 있다.³⁷⁾ 이는 아래와 같다.

37) [그림 4]에서 ‘·’는 출판사의 과실로 문서 편집 과정에서 탈자가 되었기에 추가로 그려 넣은 것이다.

[그림 4]



[그림 4]와 [그림 3]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차이 점도 지니기 때문이다. 첫째, [그림 3]에는 ‘ㅍ’가 좀 더 뒤쪽에 표시되어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u]와 같은 자리에서 조음되었다고 추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朝鮮館譯語에서 ‘ㅍ’는 한어의 운모 /u/와 진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었고, 운모 /u/는 華夷譯語에서 주로 각 언어의 후설고모음을 사음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근거한 추정이었다. 둘째, ‘·’와 ‘—’, ‘ㅓ’의 위치를 확정짓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림 4]에 표시한 ‘·’, ‘—’, ‘ㅓ’의 영역 안에 [그림 3]에 표시된 ‘·’, ‘—’, ‘ㅓ’가 각 기 포함되기 때문에 서로 배치(背馳)되는 결론은 아니다.

5. 결론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본고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본 논의는 朝鮮館譯語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하는 한어 음계 목록을 확정짓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초성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見母(‘ㄱ’, ‘ㅇ’), 溪母(‘ㄴ’), 端母(‘ㄷ’), 透母(‘ㄸ’), 泥母(‘ㄹ’), 幫母(‘ㅁ’, ‘ㅂ’), 滂母(‘ㅃ’), 非母(‘ㅍ’), 明母(‘ㅁ’), 心母(‘ㅅ’), 審母(‘ㅆ’), 照母(‘ㅈ’), 精母(‘ㅉ’, ‘ㅊ’), 日母(‘ㅌ’), 曉母(‘ㅎ’) 등 15개 성모와 ‘ㅇ’의 사음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중성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a/('ㅏ', 'ㅑ'), /ə/('ㅓ', 'ㅕ', 'ㅡ'), /jə/('ㅗ'), /ji/('ㅛ'), /i/('ㅣ'), /u/('ㅜ'), /wo/('ㅜ') 등 7개 운모의 사음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성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n/, /-ŋ/ 등 양성운미의 사음 양상과 첨기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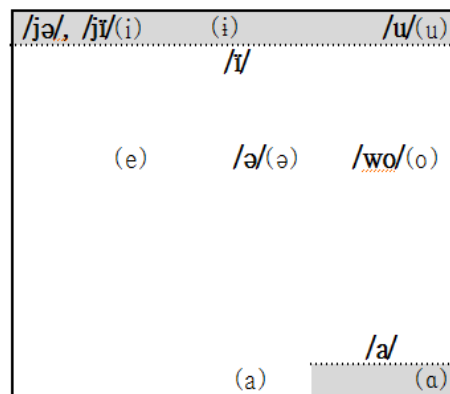
확정된 음계 목록의 사음 양상은 華夷譯語 사음의 성격과 원칙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華夷譯語는 음성전사가 되면서도 동일한 譯語 내의 동일한 형태소는 일관된 표기를 하는 성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음의 성격 위에서 향찰의 첨기 개념을 조작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음의 원칙도 밝혔다. 첫 번째 원칙은 15세기 한어의 음절 구조를 공식 삼아 연역적으로 도출하였는데, 한어의 음절 구조에 들어맞는 요소들은 주표기가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첨기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원칙은 각 譯語에서 첨기된 음가들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는데, 유성음이거나 지속음이거나 외파음이거나만 첨기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15개 성모와 7개 운모의 사음 양상과 첨기 양상은 사음의 성격과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 譯語의 재구 내용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파악할 수 있었다. 이때, 성모의 사음 음가는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지만 운모의 사음 음가는 영역으로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한 사음 양상을 제시하자면 아래의 [표 56]과 [그림 5]와 같다.

[표 56]

見	溪	端	透	泥	幫	滂	非	明	心	審	照	精	日	曉
g	k ^h	d	t ^h	n	b	p ^h	ɸ	m	s	ʃ	tʃ	ʈ	ʒ	h
k	t			n̥	p		f			ʂ	ʈʂ	dʒ	ʒ̥	x
				ɲ	v						dʒ̥	z		
											tʂ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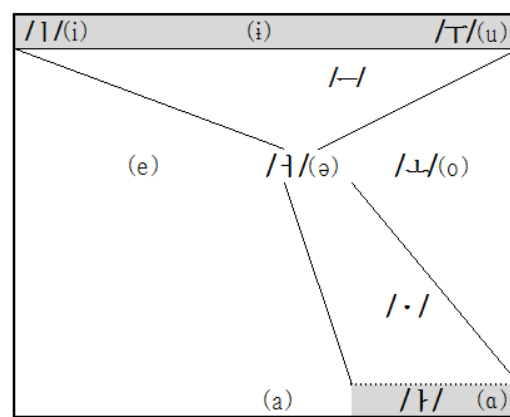
첨기의 경우, 되도록 여러 譯語의 재구 내용을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朝鮮館譯語에는 첨기의 예가 적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모습을 살피는 데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첨기용 사음자가 쓰이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특수한 대응을 보이는 경우는 추려 내었다. 이렇게 정리한 첨기 양상과 첨기용 사음자는 아래의 [표 57]과 같다.

[표 57]

성모	사음 음가	사음자
幫	p, b	卜, 不, (補), (白)
端	d, (t)	的, 得
透	t	忒, (剔), (惕)
見	g, q, (ɣ)	革
溪	k	克, (苦)
非	f	夫, 伏
心	s	思, (習), (糸)
審	ʃ	失
精	z	子
日	ʒ	日
穿	tʃ	赤, (出)
照	ʈʂ	只
曉	x, h	黑, 諛
影	ʁ	額
來	l, (r, ɾ)	力, 勒, 里, (刺), (魯)
兒	r, ɾ, (l)	兒, 二
明	m	密, (木)
/-n/	n	音

최종적으로,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으로써 朝鮮館譯語에 들어 있는 15세기 국어의 음가를 추정해 보았다. 초성 중에서는 ‘ㄴ’, ‘ㄷ’, ‘ㄹ’, 합용병서의 음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ㄴ’에 대해서는, 華夷譯語에서 非母의 사음 음가가 ‘f’, ‘ϕ’이고, 幫母의 사음 음가와 非母의 사음 음가가 유성성을 기준으로 대립함을 확인함으로써 朝鮮館譯語가 ‘ㄴ’의 음가를 추정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인 증거가 되어줄을 확인하였다. ‘ㄷ’에 대해서는, 朝鮮館譯語에서 ‘ㄷ’가 후행하는 모음의 구개성에 따라 사음됨을 새로이 정리하고, 기원적인 ‘ㄷ’의 음가는 [ʒ]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ㄹ’에 대해서는, 華夷譯語에서 ‘ʁ’가 見母가 아니라 影母로 사음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朝鮮館譯語 시기에는 아직 ‘ㄹ’ 약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추론하였다. 합용병서에 대해서는, 華夷譯語에서 어두자음군의 제1요소는 첨기로 사음될 수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어두자음군의 형성 시기가 계림유사 이전 시기로 소급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중성에 관한 논의는 ‘·’, ‘一’, ‘丨’, ‘卜’, ‘ㄱ’, ‘ㄴ’, ‘ㄷ’ 등 단모음의 모음 추정도를 그리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본고에서 그린 모음 추정도의 모습은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 ‘卜’, ‘一’는 모음 추정도에서 한 지점에 정확히 표시되지 못하고 영역으로만 표현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그린 모음 추정도는 아래의 [그림 6]과 같았다.



어 사음 문자로서 한자를 바라보고, 여러 譯語의 사음자를 비교·분석하여 華夷譯語의 사음 규칙을 도출해 내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살피지 못한 사음의 성격이나 원칙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 제기된 여러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믿음직스러운 자료가 더욱 풍부하게 축적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사전류

寧繼福(1985), 《中原音韻表稿》, 吉林文史出版社.

藤堂明保 編(1978), 《學研 漢和大字典》, 學習研究社.

李珍華·周長楫(1999),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

郭錫良(1986),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民衆書林 編(1966),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Aymonier, Etienne and Cabaton, Antoine (1906), *Aymonier and Cabaton's Dictionnaire Cam-Francais*, Paris: Ernest Leroux.

Giles, Herbert Allen (1912), *A Chinese-English Dictionary*, B. Quaritch.

Wilkinson, R. J. (1901), *Malay-English Dictionary*, Singapore: R.O.

논저류

姜信沆(1972), 「朝鮮館譯語」의 寫音에 대하여, 《어학연구》 8(1), 1-50.

姜信沆(1980),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姜信沆(1995), 《增補 朝鮮館譯語研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姜信沆(2003),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강신항(2006), 『훈민정음』 「해례」의 설명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302-331.

고영근(2010), 《제3판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집문당.

權仁瀚(1998), 《朝鮮館譯語의 音韻論的 研究》, 太學士.

金芳漢(1964), 國語母音體系의 變動에 관한 考察, 《東亞文化》 2, 29-80.

김성규(1996), 중세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국립국어연구원, 7-55.

김성규(2009),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41-68.

- 金完鎭(1963),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63-99.
- 金完鎭(1967), 音韻史, 《韓國文化史大系》 5,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13-164.
- 金完鎭(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어학연구》 14(2), 127-139.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周弼(2003), 후기 중세국어의 音韻現象과 母音體系, 《어문연구》 117, 5-30
- 金喆憲(1963), 「朝鮮館譯語」 研究, 《국어국문학》 26, 151-176.
- 唐作藩(2000), 심소희 역, 《중국 음운학》, 교육과학사.
- 李基文(1955),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 187-258.
- 李基文(1957), 朝鮮館譯語의 編纂年代, 《文理大學報》(서울대) 5(1).
- 李基文(1968), 朝鮮館譯語의 綜合的 檢討, 《논문집》(서울대) 14.
- 李基文(1977),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 李基文(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 李基文(2006),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45-70.
- 文璇奎(1960),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의 「ㄹ(ㄹ)」表記法 考察, 《국어국문학》 22, 46-49.
- 文璇奎(1962), 朝鮮館譯語考論-編成時期, 表記法 及 音韻에 對하여-, 《아세아연구》 10, 219-249.
- 뽀뽀, 니콜라스(1992), 유원수 역, 《몽골문어문법》, 민음사
- 薛鳳生(1990), 김태경 외 역, 《쉬에 횡성의 중국어 음운학 특강》, 현학사.
- 소신애(2008), 중세 국어 음절말 유음의 음가와 그 변화, 《국어학》 53, 35-64.
- 李敦柱(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塔出版社.
- 이재돈(2007), 《중국어음운학》, 학교방.
- 鄭承喆(1997), 자음의 변화, 《國語史研究》, 태학사, 423-455.
- 鄭承喆(2003), 語頭子音群의 硬音化와 激音化, 《한국문화》 32, 31-48.
- 한미경 외(2006), 《일본어의 역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홍운표(1987), 近代國語의 語幹末子音群 表記에 對하여, 《국어학》 16, 91-124.

- 更科慎一(2003), 所謂甲種本華夷訳語の漢字音訳手法の一端, 《人文学報》 341, 1-18.
-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 編(1965), 《伊路波》, 京都 : 京都大學國文學會.
- 大友信一・木村晟(1968), 《日本館訳語 本文と索引》, 洛文社.
- 北村甫・西田龍雄(1960), チベット文字轉寫とチベット語表記, 《日本西藏學會々報》 7, 1-4.
- 西田龍雄(1963), 十六世紀における西康省チベット語天全方言について一漢語・チベット語単語集いわゆる丙種本『西番館訳語』の研究一, 《京都大学文学部研究紀要》7, 174-84[역순].
- 西田龍雄(1970), 《西番館訳語の研究》, 京都松香堂.
- 小倉進平(1941), 「朝鮮館譯語」研究 上, 《東洋學報》 28(3).
- 松本丁俊・丁鋒(1997), 『日本館譯語』中日対音考釈, 《論集》(駒澤大学) 45, 1-38.
- 實信本田(1963), 「回回館訳語」に就いて, 《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11, 224-150[역순].
- 吳禮權 (1998), 《中國語言哲學史》, 臺灣商務印書館.
- 越智サユリ(2004), 華夷譯語丙種本『韃靼譯語』におけるモンゴル語について, 《京都大学言語学研究》 23, 115-144.
- 入江さやか(2012), 日本語の音素の分布・配列に関する歴史的研究, 《同志社日本語研究》 1, 1-210.
- 蔣垂東(1996), ロンドン大学本『日本語訳語』の識語をめぐって, 《筑波日本語研究》1, 73-83.
- 蔣垂東(1998), ロンドン大学本『日本館訳語』にみる独自の用字法をめぐって, 《筑波日本語研究》 3, 60-75.
- 斎太田(1987), 丙種本西番館訳語校本, 《神戸市外国語大学外国学研究》 17, 157-215
- 田坂興道(1943ㄗ), 回回館訳語語譯, 《東洋學報》 30, 96-133.
- 田坂興道(1943ㄗ), 回回館訳語語譯, 《東洋學報》 30, 100-164.
- 正弘庄垣内(1984), 『畏兀児館譯語』の研究 -明代ウイグル口語の再構-, 《神戸市外

国語大学外国学研究》 14, 51-172.

陳荊和(1966), 安南訳語の研究(一), 《史學》(慶應義塾大學) 39(3), 307-348.

陳荊和(1967ㄊ), 安南訳語の研究(二), 《史學》(慶應義塾大學) 39(4), 481-497.

陳荊和(1967ㄌ), 安南訳語の研究(三), 《史學》(慶應義塾大學) 40(1), 25-85.

陳荊和(1968ㄊ), 安南訳語の研究(四), 《史學》(慶應義塾大學) 41(1), 1-63.

陳荊和(1968ㄌ), 安南訳語の研究(五), 《史學》(慶應義塾大學) 41(2), 205-248.

陳荊和(1968ㄎ), 安南訳語の研究(六), 《史學》(慶應義塾大學) 41(3), 409-459.

清瀬義三郎則府(1973), 女真音再構成考, 《言語研究》 64, 12-43.

Adelaar, Alexancer (2005), Structural Diveristy in The Malayic Subgroup, in Adelaar, K. Alexander and Nikolaus Himmelmann (eds.), *The Austronesian Languages of Asia and Madagascar*, Abingdon: Routledge, 202-226.

Adelaar, K. Alexander and Nikolaus Himmelmann (eds.) (2005), *The Austronesian Languages of Asia and Madagascar*, Abingdon: Routledge.

Beyer, Stephen (1992), *The Classical Tibetan Languag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Blood, David (1967), Phonological Units in Cham, *Anthropological Linguistics* 9(8), 15-32.

Collins, James T. (1998), *Malay, World Language: a short history*,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Denwood, Philip (1999), *Tibetan*, Philadelphia: John Benjamins North America.

Edwards, E.D. and Blagden, C.O. (1931), A Chinese Vocabulary of Malacca Malay Words and Phrases Collected between A. D. 1403 and 1511,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Studies* 6(3), 715-749.

Edwards, E.D. and Blagden, C.O. (1939), A Chinese Vocabulary of Cham Words and Phrases,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Studies* 10(1), 53-91

Fuchs, Walter (1931), Remarks on a New Hua-I-I-Yü, *Bulletin of the Catholic University* 8, 91-97.

Gregerson, Kenneth J. (1969), A Study of Middle Vietnamese Phonology,

-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Etudes Indochinoises* 44, 135–193.
- Hahn, Reinhard F. (1991), *Spoken Uighur*,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Hall, T. Alan (1997), *The Phonology of Coronal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ill, NW (2010), An Overview of Old Tibetan Phonology,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108(2), 110–125.
- Janhunen, Juha (2003), Proto–Mongolic, in Janhunen, Juha (eds.), *The Mongolic Languages*, Routledge, 1–29.
- Janhunen, Juha (eds.) (2003), *The Mongolic Languages*, London: Routledge.
- Kaye, Alan S. (eds.) (1997), *Phonologies of Asia and Africa: Including the Caucasus* 2, Indiana: Eisenbrauns.
- Krámský, Jiří (1939), A Study in the Phonology of Modern Persian, *Archív Orientální* 11(1), 66–83.
- Labrone, Laurence (2012), *The Phonology of Japane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hdi, Waruno (2005), Old Malay, in Adelaar, K. Alexander and Nikolaus Himmelmann (eds.) (2005), *The Austronesian Languages of Asia and Madagascar*, Abingdon: Routledge, 182–201.
- Mahootian, Shahrzad (1997), *Persian*, London: Routledge.
- Maris, M.Yunus (1980), *The Malay Sound System*, Kuala Lumpur: Penerbit Fajar Bakti Sdn. Bhd.
- Nguyễn, Đình-Hoà (1997), *Vietnamese*,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Nugteren, Hans (2003), Shira Yughur, in Janhunen, Juha (eds.), *The Mongolic Languages*, Routledge, 265–285.
- Pisowicz, Andrzej (1985), Origins of the New and Middle Persian Phonological system, Nakładem Uniwersytetu Jagiellońskiego.
- Rahbar, Elham Rohany (2008), A Historical Study of the Persian Vowel System, *Kansa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30, 233–245.
- Rybatzki, Volker (2003), Middle Mongol, in Janhunen, Juha (eds.), *The*

- Mongolic Languages*, Routledge, 57–82.
- Teeuw, A. (1959), The History of the Malay Language. A preliminary survey, *Bijdragen tot de Taal Landen Volkenkunde* 115(2), 138–156.
- Thurgood, Graham (1999), *From Ancient Cham to Modern Dialects: Two Thousand Years of Language Contact and Chang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Thurgood, Graham (2005), Phan Rang Cham, in Adelaar, K. Alexander and Nikolaus Himmelmann (eds.), *The Austronesian Languages of Asia and Madagascar*, Abingdon: Routledge, 489–512.
- Windfuhr, Gernot (eds.) (2009), *The Iranian Languages*, Abingdon: Routledge.
- Windfuhr, Gernot and Perry, John R. (2009), Persian and Tajik, in Windfuhr, Gernot (eds.) , *The Iranian Languages*, Abingdon: Routledge, 416–544.
- Windfuhr, Gernot L. (1997), Persian Phonology, in Kaye, Alan S. (eds.), *Phonologies of Asia and Africa: Including the Caucasus 2*, Indiana: Eisenbrauns, 675–68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ransliterate Letters in *Huayiyiyu*

Focused on the Estimation of the Phonetic Value of *Chaoxianguanyiyu*

Kim, Ji-eun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oxianguanyiyu (A word list of Chinese–Korean phrases) is one of the word lists in the *Huayiyiyu* (Chinese–Barbarian Dictionary) published by the *Huitongguan* ('Bureau for Barbarian languages'). The paper attempts to approximate and estimate the phonetic value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15th Century appearing in *Chaoxianguanyiyu* by adopting a corpus-based approach to compare the usage of transliterate letters in *Chaoxianguanyiyu* with other word lists found in the *Huayiyiyu*. These include but not limited to *Dadaguanyiyu* (A word list of Chinese–Mongolian phrases), *Yuwuerguanyiyu* (A word list of Chinese–Uyghur phrases), *Huihuiguanyiyu* (A word list of Chinese–Persian phrases), *Zhanshengguanyiyu* (A word list of Chinese–Cham phrases), *Manlajiaguanyiyu* (A word list of Chinese–Malay phrases), *Annanguanyiyu* (A word list of Chinese–Vietnamese phrases), *Ribenguanyiyu* (A word list of Chinese–Japanese phrases), and *Xifanguanyiyu* (A word list of Chinese–Tibetan phras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cepts in Chinese Phonology, 15th Century Chinese *yinxi* as well as the transliteration of other sources in *Huayiyiyu*, Chinese *yinxi* in *Chaoxianguanyiyu* were found to be suitable to be categorized into the onset, nucleus, and coda. Also, it was determined that a)

the morphemes were transliterated phonetically instead of phonemically, and b) each morpheme was transliterated in the same manner for each of the wordlist. Then, two principles in the transliteration of the *Huayiyiyu*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oncept of *chumgi* (Supplementary inscriptions) and the two characteristics determined. First, elements which do not fit into the Chinese syllable structure can be the object of *chumgi*. Second, elements satisfying the first principle should be voiced, constituent or released sound. Phonetic scope of each *yinxī* transliterated in the *Huayiyiyu* was then estimated using these principles. Finally, the estimated *yinxī* of 15th Century Korean language were then sorted into and presented as charts.

With regards to consonants, it was suggested that there was room to reconsider the phonetic value of ‘△’, ‘○’, ‘ㄷ’, and the consonant clusters. There were also evidence to support the existence of ‘ㄹ’ at the coda in *Huayiyiyu*. With regards to vowels, phonetic value of ‘—’, ‘·’, ‘ㅏ’ could not be accurately estimated or deduced. However, possible phonetic values for each vowel were presented in a schematic diagram offering a more comprehensive estimation for the phonetic value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15th Century.

Keywords: *Huayiyiyu*, *Chaoxianguanyiyu*, 15th Century Korean language, Middle Korean, phonetic value, *chumgi*

Student Number: 2014–20080

[부록 1]-비교 대상 譯語의 이해

1. 日本館譯語

본문에서 밝힌 바 있듯이, 日本館譯語 연구는 일본 내에서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다. 더욱이 松本丁俊·丁鋒(1997)은 국제음성기호로 日本館譯語를 재구해 놓았기에 본고에서 스스로 재구할 내용은 없다. 그렇지만 渡辺三男(1961) 등 日本館譯語를 연구한 다른 자료도 참고하여 분석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함께 제시하고 일본어학계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겠다.

[성모의 표기]

먼저, 日本館譯語에서 성모가 표기에 사용된 양상은 아래와 같다. 원활한 비교를 위해 일부 항목에서는 渡辺三男(1961)의 가나 재구음도 하단에 병기하였다.

(34)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非	φ	日-2	日	非禄	φiru
泥	n	日-7	雷	納禄嗑密	narukami
來	l	日-13	天晴	唆喇那法里的	soranoφarete
明	m	日-6	雲	枯木	kumo
照	ʃ	日-43	地	只	ʃi チ
精	ts	日-46	土	足只	tsuʃi ツチ
	dz	日-5	風	刊節	kandzie カゼ
日	3	日-54	城	遶	ziau ジャウ
		日-478	錢	熱尼	zieni ゼニ
心	s	日-1	天	唆喇	sora
審	ʃ	日-4	星	波世	poʃi
曉	x	日-51	灰	活各立	xokori

非母는 음절초의 /φ/(ハ行)에 대응되었다. 日本館譯語 시기의 일본어는 중세일본어 단계에 속하는데, 이때의 ハ行은 [φ]이었다. 중세일본어 단계에서는 /p/ > /f/ > /h/의 통시적 변화의 단계 중 /p/ > /f/는 완성되고 /f/ > /h/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Frellesvig 2010: 311), 기독교자료에 보면 ‘ハハ(母)’를 발음할 때에는 입술이 두 번 만나지만 ‘チチ(父)’를 발음할 때에는 입술이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한미경 외 2006: 199-130).

朝鮮館譯語와 같이 精母는 두 음소에 대응되며, 照母, 日母 모두와 연관이 있다. 照母는 タ行의 ‘チ’에 대응되는데, 精母도 タ行의 ‘ツ’와 ‘チ’에 대응된다. 日母는 ザ行의 ‘ジ’와 ‘ゼ’에 대응되는데, 精母도 ザ行의 ‘ゼ’에 대응된다.

[운모의 표기]

다음으로, 日本館譯語에서 운모가 표기에 사용된 양상은 아래와 같다.

(35)

韻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a/	a	日-5	風	刊節	<u>k</u> andzie
/ə/	a	日-32	天上	唆喇乃噓密	soranok <u>k</u> ami
	o	日-153	蘿蔔	大根	daik <u>o</u> n
/i/	i	日-209	蜴蟹	各尼	kani
	u	日-449	醋	寺	<u>s</u> u
/jĩ/	i	日-144	枝	空不世	kombu <u>f</u> i
/jə/	i	日-45	水	民足	<u>m</u> indzu
/wo/	o	日-13	天晴	唆喇那法里的	sorano <u>o</u> parete ³⁸⁾
/u/	u	日-2	日	非祿	φ <u>i</u> ru
	o	日-6	雲	枯木	kum <u>o</u>
/-n/	n	日-5	風	刊節	<u>k</u> andzie
	m	日-240	盛	幹不立	<u>k</u> amburi
/-ŋ/	ŋ	日-187	驢	羊急吾馬	ia <u>ŋ</u> giuma
	m	日-144	枝	空不世	<u>k</u> ombu <u>f</u> i

38) /a/와 /wo/의 두 종류의 운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재구되는 ‘那’는 日本館譯語에서 /o/를 전사하

한어의 운모 /wo/는 일본어의 /o/에 대응되는데, 日本館譯語에서 대체로 일본어의 /o/는 /u/와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음하지 못하였다(蔣垂東 1998: 67-68). 특히 ‘木’의 경우가 그러하다. 日本館譯語에는 총 33개의 /mo/가 출현하는데, 일본어의 실제 발음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런던본 외에는 대부분 운모가 /u/인 ‘木’으로 사음되어 있고, 런던대학본에도 일부인 14개만이 운모가 /u~o/인 ‘莫’로 고쳐 사음되어 있다.

중세일본어에서는 양순자음에 선행해서는 변이음 [m]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Frellesvig 2010: 310), 日本館譯語에서는 이것이 한어의 운미 /-n/, /-ŋ/에 고루 대응되었다.

[첨기]

마지막으로, 日本館譯語의 첨기 양상은 아래와 같다. 해당되는 예는 총 10개 항목의 10자(字)로서 모든 예를 아래에 제시해 놓았다.

는 데만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日本館譯語에서는 ‘那’가 운모 /wo/로서 사용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듯하다. 해당되는 예들을 아래에 들어 둔다.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日-359	富貴	答那世	tanɔʃi
日-385	方物	木那哇	monɔwa

(36)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端	t	日-99	正月	燒哇的	fiaɲɯat シャウグワチ
		日-100	二月	寧哇的	niɲɯat ニグワチ
		日-101	三月	散哇的	saɲɯat サングワチ
		日-102	四月	升哇的	fiɲɯat シグワチ
		日-103	五月	翁哇的	ɲoɲɯat ゴグワチ
		日-104	六月	祿谷哇的	rokuɲɯat ログワチ
		日-105	七月	世只哇的	ʃitʃiɲɯat シチグワチ
		日-106	八月	法只哇的	ɸatʃiɲɯat ハチグワチ
		日-107	九月	谷哇的	kɯɲat クグワチ
		日-108	十月	柔哇的	ʒiɲɯat ジグワチ

松本丁俊·丁鋒(1997)의 상단과 같은 재구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松本丁俊·丁鋒(1997)은 일본에서 활동한 포르투갈 선교사가 사음해 놓은 중세일본어 사전에 기대어 어휘항목들의 발음을 재구하였다. 선교사들이 사음한 자료에 기반을 둔 중세일본어 자료들은 일본 한자어의 음절말에 /t/를 설정하고 있다(Frellesvig 2010: 316-318). 그렇기에 松本丁俊·丁鋒(1997)의 재구 방식에 대해서 일본 학계에서 모두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령, 渡辺三男(1961: 8)에서는 이들 항목에 대해 위 표의 하단과 같이 재구하였다.

2. 安南館譯語

본고에서 安南館譯語는 초성에 관해서만 다루진다. 陳荊和(1967ㄱ)에 따르면 安

南館譯語의 사음을 맡은 사람은 남방계로 추정되어 朝鮮館譯語를 비롯한 대부분의 譯語들이 北方音系에 기초하여 전사된 것과 운모의 사용 양상이 특히 다르기 때문이다.

安南館譯語는 오로지 한 명의 연구자, 陳荊和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아쉽다. 다만, 陳荊和(1968ㄴ)와 陳荊和(1968ㄷ)에서 이미 베트남어의 음운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의 음가를 국제음성기호로 변환을 해놓은 상태라는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따로 기호를 변환하지 않고 陳荊和(1968ㄴ)와 陳荊和(1968ㄷ)에 제시된 바를 참고하도록 한다.

安南館譯語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15세기 베트남어의 음운 체계를 재구해 놓은 다른 연구를 참고하여 그 검토 내용의 타당성을 재고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처지에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 듯하다. 우선, 15세기 베트남어의 15세기 음운 체계를 연구한 자료는 찾기 힘들다. 베트남어 음운 체계를 통시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연구할 만한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차선택으로 그나마 安南館譯語와 가까운 시기인 17세기의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 대한 연구인 Gregerson(1981)을 선별적으로 참고해 보려고 한다. Gregerson(1981)에서 재구한 17세기 베트남어 음운 체계도 후대에 이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현대 베트남어 대한 연구인 Nguyễn(1997)와 Gregerson(1981)을 비교하여 선별적으로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다.

[성모의 표기]

이제 安南館譯語의 사음 양상을 정리하겠다. 安南館譯語에서 성모가 표기에 사용된 양상은 아래와 같다.

(37)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見	g	安-202	米	稿	<u>g</u> ao
	k	安-16	有雲	箇梅	có mây
	g ^h	安-339	椅	己	<u>gh</u> é
溪	k ^h	安-282	孔雀	空爵	<u>kh</u> ông tu'óc
端	d	安-30	紅雲	鐸梅	mây <u>đ</u> o
	t	安-18	天晴	雲旦	*blò'i(trò'i) <u>t</u> anh
透	t ^h	安-141	今月	奈燙 ³⁹⁾	<u>th</u> áng nay
非	f	安-307	房	放	<u>ph</u> òng
泥	n	安-54	山	內	<u>n</u> úi
	ɲ	安-42	星多	抄鈕	sao <u>nh</u> ieu
來	l	安-13	日落	靄吝	*blò'i(trò'i) <u>l</u> an
明	m	安-6	雲	梅	<u>m</u> ây
曉	x	安-96	花園	滑文	vu'ò'n <u>h</u> oa

陳荊和(1968ㄴ)에서는,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어의 見母가 /g^h/(339)를 사음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고 정리하였다. 그런데 17세기 베트남의 음운 체계를 정리한 Gregerson(1981)에서는 /g^h/의 존재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陳荊和(1968ㄴ)에서도 [g^h]를 추론해낸 논리에 대한 설명을 따로 두지 않았고, 단 한 항에서만 출현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安南館譯語 시기의 베트남어에는 아예 양순폐쇄음에 유성성의 대립이 없어 幫母로 /b/가 사음되었고, 더불어 유성순치마찰음인 /v/도 사음되었다. 한편, 滂母로 사음된 /b/도 3항 있기는 하지만 幫母로 사음된 것과 비교하여 너무나 미미한 숫자이기 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지만 非母에 관해서는 살펴 보았다. 陳荊和(1968ㄴ)에 따르면, 安南館譯語에서 非母로 사음된, 현대 베트남어에서도 여전히 Quốc Ngữ로는 ‘ph’로 표기되는 베트남어의 초성 /ph/은 근대 베트남어 단계에서는 거의 擦音化되어 음가가 [f]로 변하게 되었다. Quốc Ngữ로는 ‘ph’로 표기되는 베트남어의 초성은 현대 베트남어에서는 아예 /f/로 음소화하였다(Nguyễn 1997: 20).

39) 이렇게 사음자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여러 譯語에서 눈에 띈다. 安-141항 2단의 올바른 순서는 ‘燙奈’가 되겠다.

그런데 Gregerson(1969)에서는 다른 견해를 취한다. 여기에서는 17세기의 중세 베트남어 단계에까지 Quốc Ngữ의 ‘ph’는 /pʰ/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Gregerson(1969)에서 근거로 삼는 것은 현대 남부 방언에서도 ‘ph’가 /pʰ/로 발음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 문자적으로 ‘ph’로 표기했다는 것, 베트남어로 유럽어를 사울 때 [p]를 ‘ph’로 사음하였다는 것 등의 추측일 뿐이다. 또한 Gregerson(1969)도 Maspero(1912: 13)를 인용하여 ‘ph’의 발음에는 지역적 편차가 있어 20세기 초반에 ‘ph’는 사이공(Saigon)에서는 여전히 [pʰ]로 발음했지만, 적어도 하노이(Hanoi)에서는 이미 [f]로 발음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安南館譯語에서 非母로 사음된 음절초 /pʰ/는 적어도 [f]로 발음하던 지역의 언어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來母는 /l/와 /tr/를 사음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고 분석되었지만 본고에서는 /r/와 /tr/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陳荊和(1968)에서는 /tr/가 [tʂ]의 음가를 지니는 “複合聲母”라고 표현되었는데, 여기에서 “複合聲母”는 어두자음군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자음이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한어에 이러한 복합성모를 나타낼 수 있는 성모가 없어서 端母와 來母의 두 성모로 표현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Gregerson(1981: 158-159)에 따르면 /tr/는 17세기 베트남어에서 “voiceless apical retroflex released stops”이었고 여기에서 ‘r’는 하나의 독립된 음가를 지닌 것이 아니라 권설음임을 나타내주는 표지로서 기능하였다. 정리하자면, 安南館譯語에 음소 /tr/는 그 권설화된 음성에 이끌려 상당 부분이 來母로 사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來母와 진정한 의미에서 대응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는 없어 본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한편, 安南館譯語에서 치음 성모의 사음 양상은 아래와 같이 독특하다.

[표 58]

聲母	照	精	日	心	審	清	穿
寫音	tʃ, tʂ, z	tʃ, t, ʂ, z	z, d, ɲ	ʂ, tʰ	ʂ, tʰ	s	ʂ

이러한 특징은 베트남어의 통시적인 음운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어의 /t/는 /s/에서 유래하였다는 점, 베트남어 독서음의 /čy/는 한어의 精母, 照母, 淸母에서 모두 유래하였다는 점 등이 그러한 음운 변화이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安南館譯語를 통해 華夷譯語 치음 사음 양상의 일반을 알아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치음의 음가 설정에서 安南館譯語는 제외하였다.

3. 西番館譯語

西田龍雄(1963)에는 西番館譯語의 어휘항이 국제음성기호로 재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운론적으로도 분석되어 있다. 西田龍雄(1963)의 재구는 齋太田(1987)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기도 하다. 혹 西田龍雄(1963)와 齋太田(1987)의 연구만으로는 西番館譯語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여길수도 있기에 본고에서는 당시 티베트어의 상황을 보기 위한 다른 자료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Beyer(1992)와 Denwood(1999)를 주로 참고하였다.

다른 자료를 참고하기 이전에 티베트어에 관한 이해가 다소 요구된다. 티베트어는 크게 서사어와 구어로 나뉜다(西田龍雄 1963). 서사어는 다시 고전 티베트어와 중고 티베트어로 나뉜다. 고전 티베트어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며 발전하여 산스크리트어화된 번역 단어와 번역 문체가 주를 이루는 서사어이다. 반면, 중고 티베트어는 9세기 초까지 각 시대 각 지역에서 발전된 구어 형식이 표기면에 반영된 서사어이다. 티베트 문어가 본래 구어를 기반으로 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티베트어에서 구어와 문어는 각기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

西番館譯語에 기록된 언어는 현재의 서강성(西康省) 천전시(天全市)를 중심으로 사용되던 표준적인 구어라고 생각되지만(西田龍雄 1963: 94) 오히려 동부(東部) 지역인 창도(昌都) 방언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10세기 이후의 티베트 구어 형식을 기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西番館譯語에 사음된 당시 티베트 구어에 관한 정보는 오직 西番館譯語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중고 티베트어에 관한 정보나 여러 티베트 방언에 관한 정보는 Beyer(1992)와 Denwood(1999)에서 얻을 수 있기에 이들을 참고하였던 것이다.

[성모의 표기]

먼저, 西番館譯語의 성모 표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티베트어의 자음 체계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西田龍雄(1963)에서 정리한 西番館譯語에 기록된 티베트어의 자음 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 59]

			양순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권설	연구개	성문			
폐쇄음	무성	무기	p		t		t̚		k	ʔ			
		유기	pʰ		tʰ		t̚ʰ		kʰ				
	유성	무기	b		d		d̚		g				
파찰음	무성	무기			ts		t͡ɕ	t͡ɕ					
		유기			tsʰ		t͡ɕʰ	t͡ɕʰ					
	유성	무기			dz		d͡ʒ	d͡ʒ					
마찰음	무성				s		ɕ	ɕ	h				
	유성				z		ʒ	ʒ					
접근음													
유음	전동						r						
	설측마찰				ɭ								
	설측접근				l								
비음			m		n		n̚		ŋ				

아래는 Beyer(1992: 66)에 재구된 중고 티베트어의 자음 체계를 통일성을 위해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하여 본고의 체계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반모음 /j/, /w/의 경우, 본고에서는 모음과 묶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삭제하였다.

[표 60]

			양순	치경	후치경	경구개	권설	연구개	성문	
폐쇄음	무성	무기	p	t				k	ʔ	
		유기	p ^h	t ^h				k ^h		
	유성	무기	b	d				g		
파찰음	무성	무기		ts	tʃ					
		유기		ts ^h	tʃ ^h					
	유성	무기		dz	dʒ					
마찰음	무성			s	ʃ					h
	유성			z	ʒ					
접근음										
유음	탄설						ɾ			
비음			m	n		ɲ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티베트어의 음절초 자음이 西番館譯語에서 성모로 표기된 양상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8)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見	g	西-15	虹	吒谷兒	dza-gur
	k	西-16	星	噶兒麻	kar-ma
溪	k ^h	西-14	雪	渴瓦	kha-wa
		西-297	槐	看包盛	kham-paw sin
端	d	西-17	烟	覩襪	dza-gur
		西-24	天晴	難臥黨	nam ɣo-dan
	t	西-145	河深	出烏丁零	tehu-wu tin-rin
		西-183	看城	渴兒大瓦	khar ta-wa
透	t ^h	西-19	天上	難吉駝	nam di za?
		西-23	天陰	難渴替	nam kha thi?
幫	b	西-82	雪下	渴瓦博	kha-wa ba?
		西-111	浪	把洛	ba-lo?
	p	西-8	雨	叉兒巴	tchar pa

		西-22	天高	難吉團 _卜	nam d̥i thon- <u>pu</u>
滂	p ^h	西-122	山洞	黎鋪	ri <u>phu?</u>
		西-143	過水	出帕兒卓	tchu <u>phar</u> dz̥o
泥	n	西-1	天	難	<u>nam</u>
		西-33	黑天	難吉納 _卜	<u>nam</u> d̥i naʔ pu
	n̥	西-3	日	你麻	n̥i-ma
		西-65	星少	噶兒麻紐	kar-ma <u>n̥u</u>
來	l	西-4	月	老瓦	<u>law</u> -wa
		西-5	風	弄	<u>luŋ</u>
	ɬ	西-509	畫匠	喇索烏	<u>ɬa</u> zo-u
		西-642	鞋	濫	<u>ɬam</u>
	r	西-202	董卜韓胡地方	節木攏巴薩叉	d̥eʔ mu <u>roŋ</u> -pa sa-teha
		西-220	今日	疊零	de <u>riŋ</u>
明	m	西-13	霜	白木	ba- <u>mu</u>
		西-617	眼	密	<u>mi?</u>
照	tʂ	西-275	申時	周烏覷剋	<u>tʂew</u> -u du-tʂoʔ
		西-561	怕	吒	<u>tʂa?</u>
	dz̥	西-49	日暖	你麻卓	n̥i-ma <u>dz̥o</u>
		西-655	茶	吒	<u>dz̥a</u>
精	ʈ	西-121	山尖	黎尊木	ri <u>tsum</u> mu
	dz	西-47	日斜	你麻足兒	n̥i-ma <u>dzur</u>
日	ʒ	西-138	水窄	出認充	tchu <u>ʒen</u> tehun
心	s	西-2	地	薩	<u>sa</u>
審	ʂ	西-28	天知	難吉舍	nam d̥i <u>ʂe</u>
曉	h	西-203	四川地方	成讀胡薩叉	tʂon tu <u>hu</u> sa teha

본문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치음 성모의 사음 양상 중 일부만을 받아들였다(본문 3.3 참고).

泥母로 사음된 /n̥/는 치경구개비음이고, 來母로 사음된 /l/, /r/는 각각 치경설측음, 전동음이다. 한어 북방음계에서 /n/와 /n̥/는 변별되지 않았고, 다른 유음도 그러하였으나 西田龍雄(1963)에서는 티베트 문어와 현대 티베트 방언을 통해 이들 음소를 재구해 냈다.

[운모의 표기]

다음으로, 西番館譯語의 운모 표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티베트어의 모음 체계에 관한 내용을 우선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아래는 西田龍雄(1963)에 재구된 西番館譯語에 반영된 티베트어의 단모음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음가에 대한 설명을 베풀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병렬적으로 제시해 두겠다.

(39)

a	i	u	e	o	ü
---	---	---	---	---	---

이때, 통시적 음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중국 티베트어의 모음 체계는 아래와 같다(Beyer 1992: 66). 그런데 ‘e’는 저모음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제음성기호로는 ‘ɛ’가 아닌지 의심이 되고, ‘a’도 후설모음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제음성기호로는 ‘ɑ’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표 61]

	전설	후설	
	평순	원순	
고모음	i	u	
저모음	e	a	o

또한, 모음 체계를 공식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참고한 여러 방언의 모음 음소 목록도 아래에 제시해 둔다(Denwood 1999: 300).

[표 62]

Balti	/a/	/ɪ/	/ʊ/	/ɛ/	/ɔ/
Ladakhi	/ə/	/i/	/u/	/e/	/o/
Amdo Khake	/a/	/ə/	/u/	/e/	/o/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티베트어의 모음이 西番館譯語에서 운모로 표기된 양상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40)

韻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a	a	西-1	天	難	<u>nam</u>
ə	a	西-13	霜	白木	<u>ba</u> -mu
	o	西-9	電	洛	<u>loʔ</u>
	u	西-5	風	弄	<u>luŋ</u>
i	i	西-50	日影	你麻綦止	n̥i.ma.ʈhim. <u>dzi</u>
j̥i	i	西-50	日影	你麻綦止	<u>n̥i</u> .ma.ʈhim.dzi
jə	i	西-6	雲	卜吝	<u>prin</u>
wo	o	西-91	石	塚	<u>do</u>
u	u	西-244	九月	老瓦谷巴	law-wa <u>gu</u> -pa
-n	n	西-540	是誰	俗銀	su. <u>yin</u>
	m	西-1	天	難	<u>nam</u>
-ŋ	ŋ	西-44	日長	你麻零	n̥i-ma <u>riŋ</u>

西番館譯語의 이러한 사음 양상은 한어의 운모 /ə/와 진정한 대응을 이룰 만한 모음이 당시 티베트어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고 티베트어에도 그렇지만 현대 티베트의 여러 방언도 대부분 5모음 체계로서(Denwood 1999: 300)⁴⁰⁾ /a/는 후설 평순저모음, /o/는 후설원순저모음, /u/는 후설원순고모음이다. 그러니까 한어의 운모 /ə/는 티베트어의 후설모음을 전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티베트어의 후설모음이 어느 정도로 뒤쪽에서 조음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참기]

마지막으로, 西番館譯語의 첨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티베트어의

40) Denwood(1999: 300)에 따르면, 음성적인 전사를 하면 [a], [ə], [ʌ], [i], [u], [y], [ɛ], [e], [o], [ɔ] 등 10개 이상의 변이음이 나타난다고는 한다. 그렇지만 본고는 결국 청자가 모음을 인식하고 이를 사음하는 과정은 결국 상당 부분 모음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모음의 음가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범언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어 화자들도 결국 해당 모음을 음소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음절말 자음과 자음군에 관한 내용을 우선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표 2]에서 짚게 표시하고 밑줄을 친 것들은 음절말 위치에 쓰였던 것들이다.

한편, 티베트어는 다양한 어두자음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西番館譯語에서도 보인다. 西田龍雄(1963)에 따르면, 西番館譯語에는 다음과 같은 어두자음군이 기록되어 있다.

(41)

pr-, br-	sk-, sg-, st-, sb-	sn-, sm-	rg-, rt-, rd-, rd _z -
----------	--------------------	----------	----------------------------------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西番館譯語의 첨기 양상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42)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幫	p	西-6	雲	卜吝	/p <u>rin</u> /
	b	西-292	米	白列	/b <u>re</u> /
來	l	西-12	露	思勒巴	/zi <u>l</u> -pa/
兒	r	西-15	虹	吒谷兒	/dza-gu <u>r</u> /
		西-549	笑	兒噶	/r <u>ga</u> ʔ/
心	s	西-308	花謝	滅奪耶思	/me-toʔ ye <u>s</u> /
		西-26	天旱	難思干	/nam <u>s</u> ka <u>m</u> /

西田龍雄(1963)에 따르면, 西番館譯語에 사음된 티베트어에는 음절말에 연구개폐쇄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⁴¹⁾ 중성 ‘d’, ‘b’가 이미 무성음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음에서 이들이 무시된 것이다. Denwood(1999: 71)에 따르면, 현대 라사 방언에서도 분명히 들리는 음절말 자음은 /m/와 /p/뿐이다. 음절말의 ‘p’가 외파되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티베트어의 어두자음군의 제1요소, 음절말 /s/, /l/, /r/는 충실

41) Denwood(1999)에 따르면, 현대 라사 방언에는 티베트 문어의 음절말 연구개폐쇄음이 느리고 정확한 발화에서는 연구개비음처럼 들리기는 하며, 일부 티베트 방언에는 티베트 문어의 음절말 자음들이 모두 변별적으로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히 첨기되어 있다.

한편, 鷄林類事에서 국어의 치음 계열 중성을 사음한 것으로 해석된 ‘翅’가⁴²⁾ 西番館譯語에 쓰인 예가 있어 눈에 띈다. 아래에 그 항들을 들어 둔다.

(43)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翅 t̚shi	西-234	萬年	羅翅剉	/lo.t̚shi.ʈʰo/
	西-235	萬萬年	羅翅剉翅剉	/lo.t̚shi.ʈʰo.t̚shi.ʈʰo/
	西-421	椅	肉翅	/ʒuʔ.t̚shi/
	西-422	床	聶翅	/n̥e.t̚shi/
	西-423	橙	翅度	/t̚shi.duʔ/
	西-725	壹萬	翅剉治	/t̚shi.ʈʰo.ʈʰiʔ/
	西-733	壹千兩	山翅剉治	/ʃan.t̚shi.ʈʰo.ʈʰiʔ/

위의 (44)와 같은 예가 鷄林類事の 치음 계열 중성의 음가를 추정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겠다.

4. 畏兀兒館譯語

庄垣内正弘(1984)에는 畏兀兒館譯語가 모두 재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운론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畏兀兒館譯語의 종합적인 연구는 오로지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증을 위해 별도의 논저를 참고하고자 한다. 畏兀兒館譯語에 담긴 언어는 동부 위구르어였던⁴³⁾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동부 위구르어의

42) 강신항(1980: 181-182)에서 설명한 鷄林類事の 내용을 아래에 옮겼다.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溪-100	皮	渴翅	꺄, 꺄
溪-163	面	捺翅	낫, 낫, 낫츠
溪-170	面美	捺翅朝勳	낫치도훈
溪-171	面醜	捺翅沒朝勳	낫치 :몬도훈
溪-335	問物多少	密翅易成	머치이서

43) 현재 위구르족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둘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몽고어군 언어를 사용하는 東部 위구르(Eastern Yughur)이고, 다른 하나는 터키어군 언어를 사용하는 서부 위구르(Western Yughur)이다(Nugteren 2003: 265). 畏兀兒館譯語는 東部 위구르의 언어의 15세기-16세기 모습을 전사하였다고 보면 되겠다. 2차 자료에서는 畏兀兒館譯語에 기록된 언어를

음운 체계를 통시적으로 연구하였거나 15세기 음운 체계를 공시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몽골어군 언어(mongolic languages)에 대한 연구와 현대 위구르어를 연구한 Hahn(1991)이 조금 참고가 될 뿐이다. 몽골어군 언어를 연구한 논저는 韃靼館譯語를 다루며 살펴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庄垣内正弘(1984)에서 밝힌 畏兀兒館譯語에 담긴 위구르어의 음운 체계와 Hahn(1991)을 참고하여 정리하기로 하겠다.

[성모의 표기]

먼저, 畏兀兒館譯語의 성모 표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위구르어의 자음 체계에 관한 내용을 우선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庄垣内正弘(1984)에 따르면, 畏兀兒館譯語에 기록된 위구르어의 자음 체계는 아래와 같다고 추정된다. 庄垣内正弘(1984)은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본고에서 기호를 수정하였다. 庄垣内正弘(1984)에서 사용하였던 기호는 괄호 안에 나타내었고, 국제음성기호는 괄호 바깥에 나타내었다.

[표 63]

		양순	순치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연구개	후연구개	
폐쇄음	무성	p			t			k	q	
	유성	b			d			g		
파찰음	무성					tʃ(←č)				
	유성					ɖʃ(←j)				
마찰음	무성				f	s		ʃ(←š)	x	
	유성					z(←ž)		ʒ(←ž)	ʝ	
유음	탄설					r(←r)				
	설측근접					l				
비음		m		n			ɳ			

“동방 튀르크어”라고 부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위구르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구르어의 음절초 자음이 畏兀兒館譯語에서 성모로 표기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4)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非	f	畏-327	胡椒	菲兒肺兒	<u>fil</u> fil
心	s	畏-67	黃風	撒力硯勒	sarīy yāl
審	ʃ	畏-78	霜	手得林	šüüdärin
照	ɖʒ	畏-195	黃羊川	者連串	ǰärän čol
精	z	畏-542	褲	以雜兒	izar
日	ʒ	畏-575	羅	穰阿刺	zaŋ a la
泥	n	畏-57	星光	與里都子奴兒	yulduz <u>nur</u>
來	l	畏-15	雷	祿刺阿思	lu <u>la</u> a sɪ
	r	畏-11	天河	悉額力得兒呪	täŋgäri dārya
明	m	畏-9	水	木子	<u>muz</u>
曉	x	畏-13	露	黑牢	xīraw
見	ɣ	畏-612	鵝	噉子	<u>ɣaz</u>
影		畏-8	雨	養兀兒	yam <u>ɣur</u>

庄垣内正弘(1984)에서 畏兀兒館譯語에서 /f/가 대응한다고 본 근거는 回回館譯語의 사음 양상에 있다. 回回館譯語에서 非母가 /f/에 대응되기 때문에 畏兀兒館譯語에서도 그러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畏兀兒館譯語에 非母로 사음된 음절초 /f/의 경우에는 그 음가가 [ɸ]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치 일본어와 같이 畏兀兒館譯語에 사음된 위구르어의 /f/ 중 일부는 이후에 /h/로 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⁴⁴⁾

‘ɣ’는 影母와 見母에 대응한다. 影母와 見母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庄垣内正弘(1984)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지 못하였다.

44) 가령, 아래의 항목에서 夫는 非母字이다. 이 항목은 庄垣内正弘(1984: 18)에서 畏兀兒館譯語 성립 당시의 음은 /mafut/라고 재구되었으나, 실제로 현대 북방 위구르어에서는 /mahut/로 발음된다고 제시되었다.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畏-1033	番夏布	馬夫禿	/mafut/ > /mahut/

[운모의 표기]

다음으로, 畏兀兒館譯語의 운모 표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위구르어의 모음 체계에 관한 내용을 우선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庄垣内正弘(1984)에서 위구르어의 모음 체계는 특별히 재구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대립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64]

전설	i	ü	e	ä	ö
후설	u		a		o
협음 (高)	i	e	ü	u	
광음 (低)	ä	a	ö	o	
비원순음	i	e	ä	a	
원순음	ü	u	ö	o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구르어의 모음이 畏兀兒館譯語에서 운모로 표기된 양상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45)

韻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a/	a	畏-88	土	脫夫刺	tofra ^q
/ə/	ä	畏-1	天	忝額力	tä ^q äri
/i/	.	畏-5	星	與里都子	yuldu ^z
/jī/	i	畏-542	褲	以雜兒	īzar
/jə/	i	畏-73	細雨	引赤革養兀兒	yinčigä yam ^ɣ ur
/wo/	o	畏-89	塵	唾	to ^ɣ
	ö	畏-2	雲	課克	kök
/u/	u	畏-5	星	與里都子	yuldu ^z
	ü	畏-14	雹	門都兒	mündür
/-n/	n	畏-3	日	昆	kün
/-ŋ/	ŋ	畏-233	千年	命蔭	miŋ yil

庄垣内正弘(1984)에 따르면, 畏兀兒館譯語에 사음된 /ä/는 고모음성을 기준으로 /i/와 대립하였고, 원순성을 기준으로 /ö/와 대립하였다. Hahn(1991: 38-39)에 따르면, 현대 위구르어의 /ä/는 [æ~ɛ~e~i]로 실현된다. 이들의 통시적 변화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모든 환경에서 실현되는 변이음은 [ɛ]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ä/의 기원적인 음가는 [ɛ]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æ]는 후연구개음이나 인두음에 연결했을 때와 후행하는 유음이 탈락했을 때의 변이음이다. [e]는 음라우트로 인해 발생하거나 단모음 /ä/가 개음절에서 연구개음에 후행하고 비원순모음에 선행하여서 나타날 때의 변이음이다. [i]는 고모음화(vowel raising)로 인해 실현되는 변이음이다.

庄垣内正弘(1984)에 따르면, 위구르어에서 /o/와 /ö/는 서로 **전설성**을 기준으로 대립한다. 그러므로 畏兀兒館譯語의 사음 양상은 한어의 운모 /wo/의 **전설성**에 관한 정보는 주지 않는다.

[참기]

마지막으로, 畏兀兒館譯語의 첨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위구르어의 음절말 자음이 어떠한 음가를 지녔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庄垣内正弘(1984)에서 음절초 위치에서 쓰이는 자음의 대부분이 음절말 위치에서도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다. 즉, 15세기 국어의 종성과는 달리 미파화되고 중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Hahn(1991)에 따르면, 현대 위구르어에서도 절대 어말 위치의 무성폐쇄음도 약하게만 외파되거나(lightly aspirated) 아예 미파화(non-aspirated)되기도 하지만 아예 미파화되지는 않았다. 어중에서는 분명히 외파되고 있다. 현대 위구르어에서 유성음의 경우 절대 어말 위치에서는 무성음화되는 경향이 보이지만 15세기 위구르어에서도 그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畏兀兒館譯語의 첨기 양상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46)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溪	k	畏-2	雲	課克	kök
	q	畏-303	梧桐城	脫苦刺兀	toqra <u>y</u> u
	ɣ	畏-581	旗	阿藍禿克	alam tu <u>y</u>
端	d	畏-721	實	慎刺思的	šin ras <u>d</u>
透	t	畏-632	風	批楊	pi <u>t</u>
幫	b	畏-313	黑棘	噶刺褚卜安	qara čub <u>y</u> an
	p	畏-60	風起	硯勒科卜	yäl qop <u>p</u>
非	f	畏-308	桃兒	夏夫塔祿	ša <u>f</u> tal <u>u</u>
來	l	畏-6	風	硯勒	yäl
兒	r	畏-7	雪	噶兒	qar
明	m	畏-584	印	塔木阿	ta <u>m</u> ya
精	z	畏-5	星	與里都子	yuldu <u>z</u>
心	s	畏-16	天上	忝額力五思吞	täppäri ustun
審	ʃ	畏-39	日中	昆土失的	kün tü <u>ʃ</u> di
照	tʃ	畏-425	出力	苦褚赤阿的	kü <u>č</u> čiyadi
穿		畏-119	山尖	塔五赤	ta <u>y</u> u <u>č</u>

庄垣内正弘(1984)에서는 畏兀兒館譯語의 일부 예에서 /q/, /k/가 사음에 반영되지 않은 까닭은 위구르어 /q/의 음가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외교문서 번역을 위해 위구르 문어를 축자적으로 사음한 高昌館譯語에서도 위구르어의 음절말 /q/, /k/가 한어의 사음에서 ‘ø’에 대응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庄垣内正弘(1984)에 따르면, 畏兀兒館譯語에 사음된 위구르어에는 음절말 위치에 /b/와 /p/의 대립이 유지되었기에 비록 1항목뿐이지만 滂母인 ‘批’로 음절말의 /p/를 첨기하였으나 滂母가 당시 위구르어의 /p/를 첨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幫母로 첨기된 것이다.

12·13세기 국어의 종성 ‘口’를 표기할 때에는 ‘木’으로 하고 15세기 국어의 종성 ‘口’를 표기할 때에는 ‘門’으로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鷄林類事에서는 ‘木’이 ‘나무’를 뜻하는 어휘항을 첨기하는 데에 쓰였기 때문에 사음자의 표의성과 연관지을 수 있겠지만 畏兀兒館譯語에서는 ‘물개’를 뜻하는 어휘항을 사음하는 데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만 설명할 수도 없을 듯하다. 차라리 사음한 사람에 따라 다른 사음자를

택한 것으로 설명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5. 韃靼館譯語

越智サユリ(2004)는 韃靼館譯語의 각 항이 재구된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 오직 음운론적으로 분석된 내용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韃靼館譯語 재구의 전모(全貌)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越智サユリ(2004)의 분석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또, 한 연구자에 의해서만 韃靼館譯語가 재구된 상황에서는 그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가 힘들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越智サユリ(2004)의 분석 내용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별도의 몽골어 연구 논저를 토대로 그 분석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韃靼館譯語에 음역된 언어는 중세 몽골어(13세기~16세기)이다.⁴⁵⁾ ‘韃靼’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에게 현재의 타타르족(tatar族)을 연상시킨다. 사실 ‘韃靼’은 華夷譯語가 편찬된 明 이전까지는 그들만을 지시하는 표현이었으나 明(明) 이후부터는 몽골 지방 혹은 몽골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었다(民衆書林 編 1966: 2530). 현존하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추정되는 몽골어군 언어(Mongolic Languages)들의 조상인 몽골조어(Mongol祖語;Proto-Mongolic)로부터 시작되는 몽골어는 문어와 구어가 서로 동떨어져 있다. 몽골 문어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여러 측

45) 중세 몽골어는 몽골 제국 기간 혹은 그 직후에 기록된 자료에 담긴 몽골어를 칭하는 학술 용어이다(Rybatzki 2003: 57). 몽골 구어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시기의 자료가 가장 이르기 쉽고 가장 풍부하지만 그 이전 시기의 몽골 구어가 몽골 문어 연구 혹은 방언 연구를 통해 추정되기 때문에 ‘중세’ 몽골어라고 칭하게 된다. 그 이전 시기의 몽골 구어까지를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시기 구분이 가능하다(뽕뽕 1992: 23).

1. 고대 몽골어: 몽골 제국 성립(1206) 이전~13세기.
2. 중세 몽골어: 몽골 제국 기간(1206~ 동안 혹은 그 직후. 13세기에서 16세기 말.
3. 현대 몽골어: 16세기 말 이후~

중세 몽골어는 넓은 의미에서는 당시의 몽골 문어인 전고전 몽골 문어(Preclassical Written Mongol)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몽골 문어는 몽골 구어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연구하게 된다(Rybatzki 2003: 57). 중세 몽골어는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과거의 언어’가 되지만 현대에도 여러 방언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만주 지방의 다구르어(Dagur語)와 아프가니스탄의 몽골어는 중세 몽골어와 매우 흡사하다(뽕뽕 1992: 25).

면에서 몽골 구어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韃靼館譯語에 전사된 것은 몽골 구어이다.

[성모의 표기]

Rybatzki(2003: 64)에 따르면, 중세 몽골어의 자음 체계는 아래와 같다고 추정된다. 韃靼館譯語의 사음 양상은 성모에 한해서만 살펴볼 예정이므로 자음 체계만 제시하였다.

[표 65]

			양순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연구개	후연구개
폐쇄음	무성		p		t			k	q
	유성	무기	b		d			g	
		유기				g ^h			
파찰음	무성				ʃ				
	유성				ɕ				
마찰음	무성		s		ʃ	x			
	유성								
유음	—		r						
	설측근접		l						
비음			m		n				

중세 몽골어는 이전 시기에 비해 다음과 몇 가지 음운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보배 1992: 24). 첫째, 어두의 ‘*p’ 또는 ‘*f’는 ‘h’로 변했다. 둘째, 모음 사이의 ‘*y’와 ‘*g’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나 모음 축약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모음 ‘i’와 ‘e’는 모든 위치에서 유지되었다. 넷째, 파찰음 ‘ʃ’와 ‘ʤ’가, 현대 일부 방언에서는 ‘ts’와 ‘dz’로 변했지만, 모든 위치에서 여전히 치찰음으로 발음되었다.⁴⁶⁾

46) 일부 현대 몽골 방언에서처럼 치조파찰음 ‘ts’와 ‘dz’, 경구개 파찰음 ‘ʃ’와 ‘ʤ’로 분화하지 않았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몽골어의 음절초 자음이 韃靼館譯語에서 성모로 표기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7)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心	s	韃-4	魚	只蛤孫	jiyasun
審	ʃ	韃-8	湯	書連	ʃūlen
照	ɖʒ	韃-7	打	占赤	ʃanči
精	z	韃-5	筆	兀租	üzük
穿	tʃ	韃-6	花	扯扯	čeček
泥	n	韃-20	日	納藍	nan
來	l	韃-21	舌	克連	kelen
	r	韃-22	雨	忽刺	qura
明	m	韃-19	肉	米罕	miqan
曉	x	韃-18	紅	忽刺安	hulafian
見	ɣ	韃-14	野鷄	古兒敖	yurhau
曉		韃-12	薤菜	豁豁孫	yoyosun
影		韃-15	皇帝	蛤安	qafan

몽골 문어와 현대 몽골 방언들의 음소 목록에는 /tʃ/, /ɖʒ/, /s/, /ʃ/가 있으나 /z/는 없다. 越智サユリ(2004)에 따르면, 精母가 나타낸 [z]는 15세기 몽골어의 차용어에만 쓰였는데, 후에 차용어가 고유어화 되어감에 따라 [z]가 몽골어의 음운체계에 맞는 /ɖʒ/로 합류한 것이다.

현대 몽골어에는 韃靼館譯語에서 曉母로 사음된 것들이 모두 모음으로 시작되나, 越智サユリ(2004)에서는 몽고 제 방언과의 비교를 통해 /x/를 재구하였다. 다만, /x/를 초성으로 하는 음절도 影母字로 사음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韃靼館譯語에 사음된 몽골어에서는 음절초 자음 /x/가 소실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앞서 제시한 중세 몽골어 자음 체계에서도 /x/가 음소로서 존재하므로(Rybatzki 2003: 64), 越智サユリ(2004)의 해석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韃靼館譯語에서 ‘ɣ’는 見母나 曉母로 전사된 경우에는 [ɣ]의 음가를 유지하고 있

다는 취지이다.

었지만 影母로 전사된 경우에는 모음 사이에서는 [ɬ]로, 유음에 후행해서는 매우 약화된 [ɣ]로, 연구개비음에 후행해서는 [ŋ]로 실현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첨기]

마지막으로, 韃靼館譯語의 첨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몽골조어에서 음절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제한적이었다. 몽골조어에는 오직 비음 /*m/, /*n/, /*ŋ/과 유음 /*r/, /*l/, 마찰음 /*s/, 폐쇄음 /*b/, /*d/, /*g/만이 사용되었다(Janhunen 2003: 10). 몽골어의 음절말 자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越智サユリ(2004)에서 제시한 설명을 활용하였다.

(48)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溪	k	韃-29	與	幹克	ök (文)ög
幫	b	韃-27	熟縝	乞不	ki b
來	l	韃-41	唾	紉勒不孫	ni l busun
兒		韃-42	鄉道 驢	阿亦二 額兒只干	ayi l e l jigen
兒	r	韃-45	伴當	那可兒	nökör r
心	s	韃-34	國	兀魯思	ulu s
審	ʃ	韃-35	玉	蛤失	qa ʃ

越智サユリ(2004)에 따르면, 韃靼館譯語 시기의 몽골어의 음절말 /d/, /b/, /g/는 무성음화의 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d/는 완전히 무성음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음절말의 /b/가 幫母로 첨기된 까닭은, 이들 중 /b/가 아직 유성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그렇지만 越智サユリ(2004)는 음절말의 /g/가 무성음화되어 형성된 음절말 /k/가 溪母로 첨기된 까닭은 명시하지 않았지다. 그러나 현대 몽골어의 발음을 들어보면 어말의 연구개폐쇄음 ‘T’가 외파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참고가 된다.

越智サユリ(2004)에서, 韃靼館譯語의 이러한 사음 양상은 15세기 몽골어에서 아직 두 음소가 완전히 중화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몽골 문어

와 현대 몽골 문어에는 음절말의 /ʃ/가 없지만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몽골어의 음절말 위치에 /ʃ/가 있다가 /s/와 합류되었다고 판단되었다.⁴⁷⁾

6. 回回館譯語

本田實信(1963)에는 回回館譯語의 어휘항을 재구해 놓기는 하였지만, 이를 음운론적으로 분석해 놓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5세기 페르시아어의 상황을 다른 연구를 참고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였다. 그런데 아직 15세기 페르시아어 음소에 관한 공시적인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페르시아어 음운 체계에 관한 통시적인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 Pisowicz(1985)와 Rahbar(2008)를 주로 참고하였다. 자음의 경우, Pisowicz(1985)에서 밝힌 13세기 음운 체계와 20세기 음운 체계를 비교해 가며 그 중간쯤에 위치한 回回館譯語의 음운 체계를 가늠하였다. 모음 체계의 경우, 최근의 연구인 Rahbar(2008)를 기준으로 하여 Pisowicz(1985)에서 재구한 15세기 모음 체계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성모의 표기]

먼저, 回回館譯語의 성모 표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페르시아어의 자음 체계에 관한 내용을 우선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페르시아어의 음절초 자음은 통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윗줄은 13세기 페르시아어 음소 목록이고, 아랫줄은 20세기 페르시아어 음소 목록이다. Pisowicz(1985)에 제시된 목록 중에서 반모음 /j/는 본고에서는 모음과 묶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삭제하였다.

[표 66]

p	t	k ₁	b	d	g	h	w	f	s	z	ʃ	ʒ	ʃ	ʒ	x	x ^w	ʁ	k ₂	ʔ	m	n	ɾ	l		
				↓											↓										↓
p	t	k	b	d	g	h	v	f	s	z	ʃ	ʒ	ʃ	ʒ	x		q	ʔ	m	n	ɾ	l			

47) 越智サユリ(2004)에 따르면, 음절말 /ʃ/는 위구르어로부터의 차용어에서만 나타났다가 이후에 몽골어의 음절말 /s/에 합류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韃靼館譯語만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다.

위의 표에서 ‘k₁’는 고유어에 쓰인 음소이고, ‘k₂’는 아랍어로부터의 외래어에 쓰인 음소이다. 질게 표시된 기호들은 Pisowicz(1985)와 本田實信(1963)에서 쓰인 로마자 기호를 본고에서 국제음성기호로 바꾼 것이다. 이들 중 ‘r’은 본래 Pisowicz(1985)와 本田實信(1963)에서 ‘r’로 쓰였다. ‘r’는 국제음성기호에서는 [+지속성]인 전동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Pisowicz(1985)는 ‘r’를 [-지속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전동음은 [-지속성]이고, 탄설음은 [+지속성]이기에(Hall 1977: 131) Pisowicz(1985)는 전동음이 아닌 탄설음을 나타내기 위해 ‘r’를 사용했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r’로 바꾸었다.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페르시아어의 음절초 자음이 回回館譯語에서 성모로 표기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9)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非	f	回-1140	檳榔	伏犯力	<u>fū</u> faɫ
心	s	回-1017	星	洗他勒	<u>sī</u> taɾah
審	ʃ	回-1020	露	捨卜喃	<u>ša</u> bnam
照	dʒ	回-1052	林	撮革力	<u>ja</u> ŋaɫ
精	z	回-1038	地	則民	<u>za</u> mīn
穿	ʧ	回-1061	泉	扯失默	<u>ča</u> šmah
泥	n	回-1020	露	捨卜喃	šab <u>na</u> m
來	l	回-1071	山水	賽刺卜	sai <u>la</u> b
	r	回-1013	雷	勒阿得	<u>ra</u> ʔd
明	m	回-1011	天	阿思媽	a <u>sma</u>
曉	h	回-1076	旱路	刺吸拜六	<u>rahi</u> -barr
	x	回-1641	小	乎兒得	<u>xu</u> rd
影	ʁ	回-1021	霧	五把兒	<u>yubā</u> r

非母로 사음된 /f/(ف)는 중고 페르시아어의 음소 목록에 이미 존재하였고(Windfuhr 2009: 58), 이 음소는 현대 페르시아어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음절초 자음의 사음에 쓰인 日母는 확인할 수가 없어 아쉽다. 本田實信(1963)의 재구를 따르

자면, 중고 페르시아어의 /x/는 연구개파찰음이었고, /h/는 후두파찰음이었다.

[운모의 표기]

다음으로, 回回館譯語의 운모 표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페르시아어의 모음 체계에 관한 내용을 우선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페르시아어의 단모음은 통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Rahbar 2008: 235). 윗줄은 13세기 페르시아어 음소 목록이고, 아랫줄은 20세기 페르시아어 음소 목록이다.

[표 67]

a	a:	i	i:	e:	u	u:	o:
↓							
a	ɑ	e	i	o	u		

Pisowicz(1985: 89)에서 15세기 페르시아어 모음을 재구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전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듯하다. 일단, Pisowicz(1985: 89)에서 밝힌 15세기 페르시아어 모음 음가를 아래에 밝히겠다.

[표 68]

a	a:	i	i:	e:	u	u:	o:
↓							
a/e	a:	i	i:	e/i	u	u:	o/u
a	ɑ	e	i	o	u		

중간에 굵게 테를 두른 상자의 내용이 Pisowicz(1985: 89)에서 밝힌 페르시아어의 모음의 15세기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굵게 쓴 ‘a/e’는 본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Pisowicz(1985)는 Rahbar(2008)와는 달리 상당수의 13세기 /a/가 현대 페르시아어에서 [e]로도 실현되는 것 같다고 하였으나, [e]에 대해서는 연구자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여 “[?]”를 달아 두었고(Pisowicz 1985: 75), 현대 페르시아어에서 13세기 /a/의 후계자는 오히려 /æ/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e’ 중에서

‘a’만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표 69]

a	aː	i	iː	eː	u	uː	oː
↓							
a	aː	i	iː	e/i	u	uː	o/u
a	a	e	i		o	u	

回回館譯語에서 운모가 표기에 사용된 양상은 아래와 같다.

(50)

韻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a/	a	回-1020	露	捨卜 <u>噏</u>	šabnam
	ā	回-1035	煙息	都得阿刺米 <u>丹</u>	dūd āramī <u>dan</u>
/ə/	a	回-1198	葫蘿蔔	革 <u>則</u> 兒	gazar
/i/	.	回-1011	天	阿 <u>思</u> 媽	āsmā
/ji/	i	回-1017	星	<u>洗</u> 他勒	sitarah
/jə/	i	回-1606	四十	尺 <u>欣</u> 力	čihil
	ī	回-1087	中國	癡 <u>音</u>	chīn
/wo/	u	回-1144	硫黃	<u>果</u> 吉兒得	gūgird
	a	回-1168	菓	乜 <u>窩</u>	mīvah
/u/	u	回-1028	日蝕	<u>苦</u> 蘇伏	kusūf
	ū	回-1026	煙	<u>都</u> 得	dūd
/-n/	n	回-1437	笑	罕底 <u>丹</u>	χandīdan
	m	回-1110	今日	<u>囚</u> 羅子	imrūz
/-ŋ/	ŋ	回-1014	雨	把 <u>郎</u>	bārān

本田實信(1963)의 재구 내용을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回回館譯語에서 한어의 운미 /-ŋ/에 대응하는 페르시아어의 음절말 자음은 [n]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 페르시아어에서 동일 음절 내에서 /g/에 선행하는 /n/의 변이음은 [ŋ]이므로(Krámský 1939: 74) 回回館譯語에서 한어의 운미 /-ŋ/이 전사한 것은 [n]가 아니라 [ŋ]이라고 생각된다.

[첨기]

마지막으로, 回回館譯語의 첨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참고한 논저들에서 13세기 페르시아어의 음절말 자음들이 어떻게 발음되었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은 보이지 않는다. 몇몇 단편적인 언급은 보인다. 먼저, Krámský(1939)에 따르면, 현대 페르시아어에서 어말 자음은 어두 자음과 동일하게 출현하기는 하나 (Krámský 1939: 79) 유성 자음의 경우 무성음화되어 무성 자음과 중화된다고 하였다(Krámský 1939: 73-74). 그러나 Pisowicz(1985)에 따르면, 이러한 Krámský(1939)의 분석은 정밀하지 못한 것이었다. Pisowicz(1985: 37)에 따르면, 절대 어말 위치에서는 /b/, /d/, /g/, /ɖ/ 등 유성 자음의 유성성이 감소되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p], [t], [k], [tʃ]로 실현되어 /b/와 /p/, /d/와 /t/, /g/와 /k/, /ɖ/와 /tʃ/가 짝을 지어 어말 위치에서 중화되었을 정도는 아니었다. 중화되지 않을 만큼의 유성성은 유지하고 있되 초성에서보다는 유성성이 감소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페르시아어에서 자음들은 어말 위치에서 중화되거나 미파화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回回館譯語의 첨기 양상은 아래와 같다.

(51)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見	g	回-1049	程	法兒桑 <u>革</u>	farsang
	q	回-1024	電	白兒 <u>革</u>	barq
溪	k	回-1126	一年	葉克撒力	yak sāl
影	ɣ	回-1081	菓園	把 <u>額</u>	bāɣ
端	d	回-1018	風	把 <u>得</u>	bād
透	t	回-1040	田	卽刺阿 <u>剔</u>	zirā'at
幫	b	回-1638	西	默額力 <u>卜</u>	mayrib
	p	回-1622	左	徹 <u>卜</u>	čap
非	f	回-1022	雪	白兒 <u>伏</u>	barf
來	l	回-1048	橋	僕 <u>力</u>	puł
兒	r	回-1094	秋	體兒媽 <u>說</u>	tīrmāh
明	m	回-1107	古	革底 <u>密</u>	qadīm
精	z	回-1062	池	蒿 <u>子</u>	ḥauz
心	s	回-1025	虹	高 <u>思</u>	qaus
審	ʃ	回-1228	鼠	木 <u>失</u>	mūš
照	ɟ	回-1063	浪	毛 <u>只</u>	mauj
/-n/	n	回-1297	鞍	卽 <u>音</u>	zīn

현대 페르시아어(Modern Persian)에서 중성 자음은 초성과 동일하게 사용된다.⁴⁸⁾ 그러나 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변이음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Pisowicz(1985: 128)에 따르면, 고전 페르시아어(Classical Persian)의 음절 경계에는 매개 모음(anaptyxic vowels)이 첨가될 수도 있었다. 이는 현대 페르시아어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회回館譯語에서 첨기가 특별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양상은 이러한 페르시아어의 특성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7. 滿刺加館譯語

Edwards and Blagden(1931)에서는 滿刺加館譯語의 어휘항을 재구해 놓기는 하였지만, 이를 음운론적으로 분석해 놓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

48) Krámský(1939: 79): "All consonants occur alike at the beginning, in the middle or at the end of words."

해서는 15세기 말레이어의 상황을 다른 연구를 참고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말레이어 음운 체계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Teeuw(1959: 138)에서 말레이어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이후로 7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중고 말레이어에⁴⁹⁾ 대한 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지만 아직 15세기 말레이 구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대 말레이어의 음운 체계를 제시하고 Edwards and Blagden(1931)에서 사용한 현대 말레이어 음운 체계와 비교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성모의 표기]

먼저, 滿刺加館譯語의 성모 표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말레이어의 자음 체계에 관한 내용을 우선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아래는 Mahdi(2005: 186)에서 수마트라 기록(Sumatran-script)에 바탕을 두고 재구된 중고 말레이어의 음절초 자음 체계를 통일성을 위해 국제음성기호로 바꾸고 체계도 다소간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특히, 반모음 /j/의 경우 본고에서는 모음과 묶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삭제하였다.

49) 滿刺加館譯語는 초기 말레이어에 속하게 된다. 초기 말레이어에 속하는 중고 말레이어(Old Malay, OM)는 가장 오래된 말레이어 자료가 있는 7세기부터 10세기까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Mahdi 2013: 182).

[표 70]

			양순	순치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경구개	권설	연구개	성문				
폐쇄음	무성	무기	p			t			c		k					
		유기				(tʰ)					(kʰ)					
	유성	무기				d			ɟ	d	g					
		유기	(bʰ)			(dʰ)										
마찰음	무성			v [b ~ _w]		s		(ç[ç~ç̥])		ʃ		h				
	유성															
접근음									r							
유음	전동								l							
	설측접근															
비음							n			ɲ	ɳ	ŋ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말레이어의 음절초 자음이 滿刺加館譯語에서 성모로 표기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2)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心	s	滿-41	月落	麻速補藍	bulan masok
審		滿-104	凉	色菊	sějok
照	ɕ	滿-7	雨	烏占	hujan
	ʃ	滿-118	木耳	真答溫	chēndawan
泥	n	滿-14	霞	邦孤寧	mambang kuning
來	l	滿-3	月	補藍	bulan
	r	滿-6	雷	孤路	guroh
明	m	滿-52	地	布迷	bumi
曉	h	滿-7	雨	烏占	hujan

日母, 精母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心母, 審母는 모두 ‘s’를 사음되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 중 心母에 ‘s’이 대응된다고 보는 게 옳겠다. 心母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수항에 그칠 뿐만 아니라, 말레이어와 참어의 /s/는 Proto-Cham의 *t^h에서 유래하는데, *t^h는 나중에 이 음소는 선행하는 모음에 따라 /h/와 /s/로 갈리게 되기 때문에(Thurgood 1999: 7) 그대로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滿刺加館譯語에서는 ‘h’가 影母에 대응되기도 하는데, 이는 ‘h’가 소실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고 말레이어의 초성 자음 체계에서는 분명 음절 초에 후두마찰음이 존재하지만(Mahdi 2005: 186), 현대 말레이어 초성 자음 체계에는 후두마찰음이 존재하지 않는다(Maris 1980: 52). 이렇게 /h/가 소실되는 것은 말레이어군 언어(Malayic languages) 중 여러 하위 언어에서 일어나는 통시적 현상이다(Adelaar 2005: 206).

[운모의 표기]

다음으로, 滿刺加館譯語의 운모 표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말레이어의 모음 체계에 관한 내용을 우선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아래는 Mahdi(2005: 188)와 Wilkinson(1901)을 종합하여 중고 말레이어의 단모음 체계를 국제음성기호로 나타낸 것이다.⁵⁰⁾

[표 71]

	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i i:		u u:
중모음	(e)	(ə)	(o)
저모음	a a:		

50) Edwards and Blagden(1931)에서 각 모음의 음가는 Wilkinson(1901)의 방식에 따라 전사된 것으로 보인다. Wilkinson(1901)에서는 이탈리아 모음 음가에 따라 전사되었으므로(“The Roman letters used should be given ...[중략]... their Italian values as regards vowels”) 이에 따라 모음 음가를 정하였다. 한편, 말레이어의 표기에서는 단모음 /a/에 대한 표기가 애매모음 ‘ə’를 표기하는 데에도 사용되기도 하였다(Mahdi 2005: 188). 그러나 이는 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위의 표에서 ‘e’와 ‘o’는 산스크리트어로부터 유입된 외래어에서만 보이는 것들이다. ‘ə’는 애매모음으로서 표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거나 /a/와 동일하게 표기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말레이어의 모음이 滿刺加館譯語에서 운모로 표기된 양상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53)

韻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a	a	滿-3	月	補藍	bulan
ə	ə	滿-99	昏	格藍	kəlam
i	i	滿-119	龍眼	必答納知南	bəɖara china
ji	i	滿-2	日	哈利	matahari
jə	i	滿-4	風	安因	aɲin
wo	o	滿-6	雷	孤路	guroh
u	u	滿-7	雨	烏占	hujan
-n	n	滿-9	雷	安奔	əmbun
	m	滿-9	天晴	安奔	əmbun
-ŋ	ŋ	滿-10	星	兵因當	bintang

중고 말레이어의 /a/는 저모음이었고 이는 현대 표준 말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표준 말레이어에도 전설저모음과 후설저모음이 없기 때문에 /a/는 중설저모음이라기보다는 저모음이라고만 보는 게 타당하다.

말레이어의 모음 /ə/의 사음 양상은 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것이다. 초성이 양순자음이면 주로 운모 /u/로 사음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주로 한어의 /ə/로 사음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말레이어의 모음 /ə/에 진정으로 대응되는 한어의 운모는 /ə/라고 보아야 한다.

말레이어의 /o/가 어느 한 운모에 대응되지 못한 것은 음소로서의 지위가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말레이어의 /o/는 본래 고유어의 음운 체계 안에는 없던 것으로서 중고 말레이어에서 /o/는 고유어에는 나타나지 않고 산스크리트어에서 유입된 외래어에만 나타난다(Mahdi 2005: 188).

[첨기]

마지막으로, 滿刺加館譯語의 첨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중고 말레이어의 음절말 자음 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말레이어의 음절말 자음 체계는 단편적인 언술과 초성 자음 재구 내용에 기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滿刺加館譯語의 첨기 양상은 아래와 같다.

(72)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端	t	滿-220	虎皮	孤 _의 亞利毛	kulit harimau
來	l	滿-173	驪	革 _刺 歹	kal _l dai
兒	r	滿-65	井	蘇木 _兒	sumor
心	s	滿-92	夏	巴都 _思	panas

Maris(1980: 55-56)에 따르면, 현대 말레이어의 음절말 /t/, /d/는 음절말에서는 미파화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미파화가 일어났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Edwards and Blagden(1931)에 ‘t’로 재구된 것들은 滿刺加館譯語 시기에는 ‘d’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Edwards and Blagden(1931)은 대개 현대 말레이어로 滿刺加館譯語를 재구하였기 때문이다.

현대 말레이어에서 음절말의 /k/, /t/, /p/ 등은 미파화된다. 중고 말레이어 단계의 음절말 폐쇄음에 관한 연구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滿刺加館譯語에서 음절말 ‘k’, ‘t’, ‘p’가 사음에서 무시된 까닭은 당시에 이들이 이미 미파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Maris(1980: 67-70)에 따르면, 현대 말레이어에서는 음절말에 /s/, /ʃ/, /ʒ/ 등이 존재하지만, 이들 중 활발하게 쓰이는 것은 /s/뿐이고, /ʃ/는 몇몇 외래어휘에만, /ʒ/는 소수의 특정 어휘에만 쓰인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현대 말레이어에서 /s/, /ʃ/, /ʒ/ 등은 초성에서와 같이 종성에서도 중화되지 않고 음가대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滿刺加館譯語에 첨기된 ‘s’도 그 음가대로 발음되었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다.

8. 占城館譯語

Edwards and Blagden(1939)에서는 占城館譯語의 어휘향을 재구해 놓기는 하였지만, 이를 음운론적으로 분석해 놓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5세기 동부 참어(東部 Cham語; Eastern Cham)의 상황을⁵¹⁾ 다른 연구를 참고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참어는 오스트로네시안 언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 있는 언어이긴 하지만 아직 참어의 역사적인 연구 혹은 음운론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참어의 음운 인식 단위를 연구한 David Blood(1967)이 참어에 대한 본격적인 음운 연구의 시발점이 되고, 가장 최근 참어의 통시적인 음운론을 다룬 저서는 Thurgood(1999)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15세기 참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연구는 들어 있지 않고 제 방언과 기록된 자료를 통해 가장 이른 시기의 참어인 참조어(Cham祖語; Proto-Chamic)을 재구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 재구 과정에서 참어의 일반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占城館譯語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더불어 占城館譯語에 기록된 참어의 직접적인 파생 언어(daughter language)인 동부 참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재구도 Blood(1967)에서 이루어지고 Thurgood(2005)에서 재확인·수정된⁵²⁾ 바 있으므로 이것도 참고하도록 하겠다.⁵³⁾

51) 占城館譯語에 음역된 언어는 동부 참어(Eastern Cham)이다. ‘점성(占城)’에서 ‘점(占)’은 참어 혹은 참족(Cham)을 뜻하고 ‘성(城)’은 도시를 뜻하니, ‘점성’은 곧 참족의 나라인 참파(Champa)를 가리키는 말이었다(Thurgood 1999: 2). 베트남 중부에서 선사시대부터 15세기가 넘도록 강성한 제국의 지위를 누려왔던 참파는 1471년에 Vijaya의 남경(南京)이 베트남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 참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참어가 오늘날과 같이 분화되는 결과는 낳게 된다(Thurgood 1999: 22-23). (이들 중 북부 수마트라의 참족은 참파의 멸망 이전에 이미 11세기를 전후하여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추정되기도 한다(Thurgood 1999: 23).) 이후 베트남의 참족이 쓰는 동부 참어, 해남의 참족이 쓰는 Tsat, 캄보디아의 참족이 쓰는 서부 참어(Western Cham), 북부 수마트라의 참족이 쓰는 Acehnese 등으로 나뉘게 되었다.

Aymonier and Cabaton(1906)에 따르면 참어는 크게는 두 집단으로 나뉜다. 한 집단은 안남의 극 남부에 살면서 동부 참어를 말하는 이들과, 한 집단은 캄보디아, 시암, 코친차이나에 살고 있으면서 서부(西部) 참어를 말하는 이들이다. 이 두 집단은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이들의 방언적 차이는 매우 심하여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참고로, Aymonier and Cabaton(1906)은 비록 그 연대가 오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용성이 높은 참어 사전이다(Thurgood 2005: 491).

52) Blood(1967)에서 제안된 동부 참어의 음절말 자음 중 ‘c’, ‘b’, ‘s’는 Thurgood(2005)에서 수정되었다. Thurgood(2005: 493)에 따르면, 이들은 표기상의 구별일 뿐이지 음운상의 구별은 되지 못한다. ‘c’는 /-jɪ/로, ‘b’는 /-iɪ/로, ‘s’는 /-jɪh/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성모의 표기]

우선, 참어의 음절초 자음은 통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윗줄은 참조어(Cham祖語)의 음소 목록이고, 아랫줄은 현대 동부 참어의 음소 목록이다. Thurgood(1999: 82-86)에 제시된 목록 중에서 반모음 /j/와 /w/는 본고에서는 모음과 묶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삭제하였다.

[표 73]

p	t	c	k	p ^h	t ^h	c ^h	k ^h	b	d	ɟ	g	b ^h	d ^h	g ^h	s	h	ʔ	m	n	ɲ	ŋ	r	l
↓								↓								↓							
p	t	c	k	p ^h	t ^h	s ^h t ^h j	k ^h	p̤	t̤	ɟ̤	k̤	p ^h	t ^h	k ^h	t ^h	h	ø	m	n	ɲ	ŋ	r	l

위의 표에서 국제음성기호는 아니지만 Thurgood(1999)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기호들을 진하게 표시해 두었다. 이 기호들은 무기무성폐쇄음을 나타내는 ‘p, t, c, k’의 아래에 점을 찍은 형태로서 각각 ‘b, d, ɟ, k’보다는 무성음화되었지만 ‘p, t, c, k’라고 쓰기에는 완전히 무성음화되지 않고 아직 유성성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 듯하다. 이 기호에 대해서 Thurgood(1999)에서는 따로 설명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통해 이 기호의 의미를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첫째, Edwards and Blagden(1939)에서 비슷하게 기호 아래에 점을 찍어 해당 기호가 나타내는 소리보다 무성음화된 소리를 나타낸 점을 통해 추측하였다. 둘째, 현대 동부 참어에서는 폐쇄음에 유성음 계열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53) 참어는 어두 음절(preliminary syllable)과 주요 음절(main syllable)의 음운 체계가 다르다. 이는 참어 음운의 통시적인 변화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다. Thurgood(1999: 60-66)에 따르면 참어는 다음절 어형에서 단음절 어형으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첫 음절의 모음은 탈락되어 어두자음군을 형성하거나 애매모음(schwa)으로 약화되게 된다. 이렇게 단음절 어형으로 변화하는 것은 참어군 언어를 구별 지어 주는 특질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참어와 함께 오스트로네시안 언어인 말레이어는 단음절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참어 각 음소의 음가이지 체계가 아니므로 어두 음절과 주요 음절의 체계를 구분지어 제시하지는 않고 더욱 풍부한 음소가 남아 있는 주요 음절의 음운 체계만 제시하겠다.

추측하였다(Blood 1967: 1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dwards and Blagden(1939)에서는 ‘b, d’를 가지고 ‘b, d’보다는 무성음화되었지만 아직 유성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은 소리를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Edwards and Blagden(1939)에는 국제음성기호로는 나타내기 힘든 후두비음은 ‘ŋ’도 있어 이것도 그대로 본고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참고로, ‘ŋ’는 影母로 사용되었다. 影母는 본고의 분석 대상 사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록 2]에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현대 참여의 음절초 자음군 중 ‘p^h, t^h, c^h, k^h’는 자음군(consonant clusters)에서 유래한 것들도 있다. 본래 참여는 다음절어(disyllabic language)이지만 특정 음운론적 환경에서 전음절(前音節; presyllable)이 통째로 탈락하거나 전음절의 중성이 탈락하여 단음절어(monosyllabic)로 변화되었는데, 그러한 음운론적 환경 중 하나가 바로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h/인 경우인데, 전음절의 모음이 탈락한 이후에는 선행하는 자음에 유기성을 더해주는 기능만을 갖게 되었다(Thurgood 1999: 84–85).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의 음절초 자음이 占城館譯語에서 성모로 표기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4)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見	g	占-171	香	革陋	<u>g</u> ahlău
	k	占-77	樹	格又	<u>k</u> ayău
溪	k ^h	占-127	天晴	空	<u>k</u> haun̄
端	d	占-57	有雨	馬答胡沾	mo'dā hujan
	t	占-7	星	不度	but <u>u</u> k
透	t ^h	占-128	年	吞	<u>t</u> hun
幫	b	占-7	星	不度	<u>b</u> utuk
	p	占-58	無雨	哈波胡沾	<u>p</u> ak hujan
心	s	占-19	天理	喇儀線	laŋik <u>siyo'n</u>
審		占-324	哥哥	賒愛	<u>sa</u> i
穿		占-151	百年	撤喇多吞	<u>sa</u> ratuɰ thun
	dz	占-21	青天	衣陳喇儀	laŋik hi <u>ja</u> u

照		占-4	雨	胡沾	hu <u>jan</u>
穿	dz ^h	占-18茶	逆天	茶喇儀	<u>jha</u> laɲik
精	tɕ	占-84	山高	卽亮	čɔ'k riya
泥	n	占-73	地	打納	tano' <u>h</u>
	ɲ	占-22	黃天	姑尼喇儀	laɲik kuɲik
來	l	占-6	月	仰不藍	yaɲ bu <u>lan</u>
	r	占-84	山高	卽亮	čɔ'k <u>riyā</u>
明	m	占-196	虎	利孟	ri <u>mauɲ</u>
曉	h	占-4	雨	胡沾	<u>h</u> jan

우선, 泥母에 대응되는 /ɲ/는 (5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참조어(Cham祖語)로부터 현대 동부 참어까지 유지되는 음소이다(Thurgood 1999: 84).

心母, 審母, 穿母의 사음 양상이 복잡하다. 이러한 특징은 참어의 통시적인 음운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어와 참어의 /s/는 참조어의 *t^h에 대응되고 나중에 이 음소는 선행하는 모음에 따라 /h/와 /s/로 갈리게 되기 때문에(Thurgood 1999: 7) /s/라고는 해도 [s]로 발음되었다기보다는 [ʃ]에 가깝게 발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운모의 표기]

다음으로, 참어의 모음은 통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Thurgood 1999: 113-114). 윗줄은 참조어(Cham祖語)의 음소 목록이고, 아랫줄은 현대 동부 참어의 음소 목록이다. 占城館譯語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중모음에 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모음의 발달 과정을 제시하였다.

ɛj	i	ɔw	u	a	uj	aj	aw
↓							
ɛ̃j	i	ɔ̃w	u	a	uj	aj	aw

다음으로, 참조어의 모음 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 75]

	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i i:	i	u u:
중모음		ə:	
저모음	a:		

현대 동부 참여의 모음 체계는 아래와 같다(Blood 1967: 26).

[표 76]

	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i	i	u
중모음	e	ə	o
저모음	ɛ	a	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의 모음이 占城館譯語에서 운모로 표기된 양상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55)

韻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a/	a	占-21	青天	衣陳喇儀	la ^h nik hijau
/ə/		占-12	電	者革喇	ča ^h ka ^h la
	ɔw	占-69	河	龍	<u>kra^hu^hn</u>
/i/	i	占-22	黃天	姑尼喇儀	la ^h nik ku ^h <u>ñik</u>
/ji/	i	占-22	黃天	姑尼喇儀	la ^h <u>ñik</u> ku ^h ñik
/jə/	i	占-2	雲	夜阿因	ai ^h a ^h ñin
/wo/	u	占-151	百年	撒喇多吞	sa ra ^h <u>tu^h</u> thun
/u/		占-4	雨	胡沾	<u>hu^h</u> jan
/-n/	n	占-2	雲	夜阿因	ai ^h a ^h <u>ñin</u>
/-ŋ/	ŋ	占-5	日	仰胡銳	<u>ya^h</u> ñhurēi

占城館譯語 시기의 참여 /a/는 현대의 동부 참여에서는 중설저모음으로 자리 잡았지만 참조어에서는 음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占城館譯語에 나타난 참여의

/a/가 중설모음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占城館譯語에 운모 /i/는 대응 예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의 어휘(‘姑_尾’)를 사음하는 데에만 사용되어 유의 미하다고 볼 수 없다.

Thurgood(1999: 114)에 정리된 참어 모음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몽크메르조어(Mon-Khmer祖語;Proto Mon-Khmer)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운모 /ə/에 대응되는 참어의 /ɔw/는 *u였고, 마찬가지로 운모 /ə/에 대응되는 참어의 /a/는 *ə였을 가능성이 있다.⁵⁴⁾ 몽크메르 조어의 *u는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참어군 언어에 달리 반영되었다. 우선, 강세가 오는 개음절에 쓰이는 *u는 참조어에 /ɔw/로 대응되고, 이는 다시 동부 참어에는 /ɔw/로 대응된다. 강세가 오지 않는 폐음절의 *u는 참조어에 /u/로 대응되고, 이는 다시 동부 참어에도 /u/로 대응된다(Thurgood 1999: 120). 운모 /u/로 사음된 참어의 /u/는 몽크메르 조어로부터 유지된 후설고모음 /u/일 가능성이 높다.

[참기]

마지막으로, 占城館譯語의 참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참어의 음절말 자음과 자음군에 관한 내용을 우선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참어의 음절말 자음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Thurgood 1999: 100–103). 윗줄은 참조어의 음소 목록이고, 아랫줄은 현대 동부 참어의 음소 목록이다.

p	t	c	k	s	h	ʔ	m	n	ŋ	r	l
↓											
p	t	c	k	s	h	ʔ	m	n	ŋ	r	l

참조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부 참어의 무성무기폐쇄음은 발화의 끝에서 자주 미파화되고 중화되어 어말의 /t/, /k/ 등은 /ʔ/로 대체된다(Blood 1967: 32).

참어에는 자음군이 매우 다양하였다. 참조어에도 본래 자음군이 존재했으나 조어

54) Thurgood(1999: 130–131)에 따르면, 참조어에는 몽크메르어에서 기원한 어휘에서 아직 /ə/가 보인다.

(祖語) 형성 이후에도 단음절화로 인하여 새로이 자음군이 형성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⁵⁵⁾ 이들은 모두 두 번째 자음이 /l/ 혹은 /r/인 것이 특징이다.(Thurgood 1999: 93-99)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占城館譯語의 첨기 양상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56)

聲	寫	고유번호	1단	2단	2단 재구음
見	k	占-305	轡頭	格令阿謝	<u>k</u> leŋ asaiḥ
端	d	占-371	快走	鬧不答喇	nau pa <u>d</u> rah
	t	占-166	茄	的弄	<u>t</u> raun
幫	b	占-168	米	不喇	<u>b</u> rah
	p	占-567	十	撒不魯	sa <u>p</u> luḥ
兒	r	占-271	鼓	撒根兒	saga <u>r</u>

占城館譯語 시기의 참어에는 어말의 /k/, /t/, /p/, /s/ 등이 존재하였으나 사음에서는 무시되었다. 이것은 참어군 언어에는 전반적으로 통시적으로 어말에 쓰일 수 있는 자음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Thurgood 1999: 100)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참조어에는 /p/, /t/, /k/, /ʔ/, /c/ 등 5개가 어말위치에서 변별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참어군 언어들에는 이들이 대부분 모두 /ʔ/로 합류되었다. 현대 동부 참어의 무성무기폐쇄음은 어말에서 자주 미파화되고 중화된다(Blood 1967: 32). 또한, 참조어에서는 어말의 /s/가 존재하였으나, 어말의 /s/는 통시적으로 어말의 /h/에 합류되게 된다(Thurgood 1999: 100-102).

占-305, 166, 168, 567과 같이 어두자음군 중 첨기된 것처럼 보이는 항들은, Edwards and Blagden(1939)의 재구와는 달리, 어두자음군이 아니라 하나의 전음절(前音節)을 표기한 것일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참어의 어두자음군은 참조어에서부터 그러하였던 경우도 있지만 새로이 형성된 것들도 있는데 이들의 형성 시기

55) 어두자음군을 만드는 단음절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Thurgood(1999: 93-99)을 참고할 수 있다.

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참어는 통시적으로 다음절어(disyllabic language)에서 약강격어(弱強格語, iambic language)로, 다시 약강격어에서 단음절어(monosyllabic language)로 변화해왔다(Thurgood 1999: 61). 이 과정에서 전음절의 중성이 약화되어 /ə/로 바뀌거나 탈락하게 되며 어두자음군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참어와 말레이어를 구분 짓는 여러 특성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Thurgood 1999: 63)⁵⁶⁾. 한편, 대부분 來母로 사음된 ‘pr’, ‘gl’, ‘kr’, ‘kl’ 등은, Edwards and Blagden(1939)의 재구와는 달리, 음성적으로는 [r] 혹은 [l]를 사음했을 가능성이 높다. 참어 구어에서는 인명 혹은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발음할 때에는 아예 전음절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다(Thurgood 1999: 63).

참조어에는 어말에 /r/와 /l/가 존재하고 현재 동부 참어도 그러하다(Thurgood 1999: 101, 103). 참어군 언어(Chamic languages)에서 통시적으로 어말의 /r/는 점차 탈락되어가고 있는데, 이 탈락은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占城館譯語에 채구된 항목들에 ‘l’가 단 한 항목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은 기이한 일이긴 하나 占城館譯語에서 음절말의 ‘r’가 철저히 ‘兒’로 사음되고 있다는 점에서 占城館譯語에서 兒化韻을 이용한 첨기는 ‘r’에 대응된다고 보아야 한다.

56) Thurgood(1999: 63-65)에 따르면, 참어에서 통시적인 단음절화로 인해 어두자음군이 생성되는 경우는 제2음절의 초성에 따라 두 경우로 나뉜다. /h/인 경우와 유음인 경우가 그 두 경우이다. Thurgood(1999)에 제시된 예시를 보면 말레이어는 두 경우 모두에서 어두자음군 생성을 보여주지 않는 반면, 참어는 두 경우 모두에서 어두자음군 생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Thurgood(1999: 63-65)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어두자음군에 있어서 말레이어와 참어의 차이를 언급하긴 하였으나 이것이 ‘말레이어와 참어를 구분 짓는 여러 특성들 중 하나’라는 것은 본고에서 덧붙인 내용이다.

[부록 2]-사음자 통계

1. 성모의 표기

見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250	132	131	133	78	151	76
g	加						14	
	茄					1		
	賈		2				2	
	各	7						
	脚		1					
	干		1	1	2		2	
	幹	2						
	間		2					
	趕					2		
	噉			15				
	敢	1						
	甲						1	
	岡			3				
	扛						1	
	介		1					
	改		1					
	蓋	5						
	羹		1					
	傑	2						
	格				1			2
	見				1			
	更						1	
	經						1	
	計			1				
	鷄				1			
	古			3		4	1	
	孤					1	2	
	故				1			
	稿	1	3					
	谷			11		6	1	
	昆						1	
	棍			2				

k	骨						1	
	公			3				
	共		1					
	拱			3				
	果			3		3		
	過							1
	鍋					3		
	官			1				
	管			1				
	國			4				
	貴	1						
	根			1			2	2
	及				3		1	1
	急	14						
	幾					6		
	機						1	
	吉				6	5	2	
	嘎					4		
	該				1			2
	革				9	9		2
	加	8					24	
	嫁		3					
	柯						1	
	賈		1					
	各	41	3				2	1
	干		11	4	1		6	4
	幹	3	1					
	艮		1					
	葛		6					
	噶			28	2	8		
	甲						1	
	岡			3				
	綱		1					
	介		3	1				2
	改		1					
	皆		3					
	箇		6					2
	蓋	12	2					1
	羹		5					
	傑	4						
	格		4				21	17

見	1						
更						1	
鷄						3	2
告		1					
姑							11
孤		1				22	
故				2			4
稿	8						
高	1	7	2				
谷	64	2	7			7	
昆				20		2	
骨						1	
公	2						1
戈		1					
鍋			1				
貫	1						
刮		1					
光		1					
怪		1					
交	4						
絞						1	
勾		3					
國			1				2
弓		1					2
卷		1					
貴		1					
極						1	
斤	2	1					
根	1	1		1		1	
近	4						
禁		2					
及						1	
急	60						
寄		1					
己		1					
肌						1	
記						1	1
吉		1			1	9	4
金		1				1	
戛		15					
鵠						1	

	該						3	
	革			2		1	4	
	夾		3					
q	趕	없음	없음	없음		1	없음	없음
	噶				43			
	甘				1			
	孤					1		
	高					1		
	滾					1		
	嘎					2		
	革					9		
	y				干	없음		
噶		16						
故		6						
根		2						
跟		1						
革		1						
見母 계		249	111	101	122	68	143	71
影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y	阿	없음	없음	없음	14	3	없음	없음
	惡					1		
	安				3	3		
	昂					1		
	額				3	3		
	奄					1		
	五					2		
	溫				1			
	兀				19			
	玩				1			
	翫				1			
影母 계		0	0	0	42	14	0	0
溪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63	14	59	161	51	6	6
k	可	없음	없음	1		없음	없음	
	刊			7				
	看				2			

	砍					1		
	康	1			1	1		
	强				2			
	鎧				1			
	開	1						
	乞	1			35	3		
	遣				5			
	枯	8						
	考				1			
	苦				7	4		
	哭				2			
	坤				4			
	空	1						
	科				2			
	課				10			
	顆					6		
	克				9	26		
	勤				1			
	企							
	欺				1	2		
	豈					1		
	起				1			
	嗑	33						
	闊				7			
	欠				3			
	欽				1			
k ^h	看	없음		4		없음	없음	2
	渴		1	26				
	堪			1				
	康			9				
	客		2					
	乞				1			
	庫			1				
	苦				2			
	靠			1				
	哭				1			
	坤				1			
	空		2	3				2
	科				1			
	課		2	1				
	克				2			

	闊				1			
	恰		1					
q	刊	없음	없음	없음	5	없음	없음	없음
	坎				1			
	鎧				2			
	客				2			
	庫				5			
	考				2			
	苦				12			
	坤				4			
	科				2			
	課				1			
	塊				4			
	克				15			
	肯				2			
	亢				1			
溪母 계		52	8	46	161	46	0	4
端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122	121	126	130	110	164	108
d	多				1		1	
	爹					1		
	丹			2	1	24		
	單		5					
	旦	1	1			1		
	端			2				
	達		1				5	
	膽			5		1		
	答	4	1	1			17	10
	荅				1	6		
	當		1			2	1	
	黨		7	4				
	大	2	2	3	1		2	
	對		4					
	帶						1	
	德				1			
	倒				1			
	島				2			
	度		1	1				

	觀			14				
	賭							2
	道	2	1					
	都	8			25	14	6	
	毒		1					
	犢						1	
	篤						1	
	讀			1				
	墩					1		
	敦			8				
	冬		1				3	
	動							1
	東		1	7		1		
	董		5	5	2			
	斗		8					
	杜				5			
	得		5		13	41	1	
	登		1					1
	鄧							1
	揲					2		
	低		1					
	底			1		9		1
	的	2		1	64		8	6
	顛		5				1	
	点		1					
	丁				1			
	定		2				3	
	頂					1		
	弟							2
	迭				3			
	疊			6				
	打			2	1	4	2	2
	朶				2	1		
	垛			9				
	鐸		9					
	蕩		1					
	堆		2					
t	多	7	3			없음	2	3
	丹			3			11	
	旦		3					
	端		1	2			3	3

端母	達		1				3	
	淡	1						
	答	44					17	9
	當						5	2
	黨			1				
	大	1		31			2	1
	對		6					
	刀	2	1					
	到						1	
	島	1						
	度	1	1					6
	賭							2
	道		1					4
	都	29		1	2		14	
	篤						1	
	讀	5		1				
	敦						1	
	頓		1				1	
	東			3				
	豆							4
	得		3				9	1
	燈		2					
	登		2				2	
	鄧							1
	底							9
	的	9	1	3	2		15	15
	典		1					
	殿	1						
	店			1				
	丁		1	5			3	
	定	1					1	
	帝						4	
	彫				1			
	地						4	
	疊			1				
	打		2		1		1	19
	柁				1			
	鐸		3					
	搭				1			
	堆		3					
端母 計		121	103	124	132	109	153	105

透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21	30	57	240	89	4	23
t	壇				3			
	倘					1		
	禿	1			20	5		
	屯		1					
	廷				3			
	挺				2			
	條				2			
	剔					2		
	惕				13			
	鐵							6
	忝				15			
	帖				10			
	貼	11				1		
	替				3		1	
	體				3	4		
	他				8	18		
	唾				3			
	陀					1		
	它	4						
	吞				13	1		
	炭				4			
	奪		1	11				
	脫				19			
	貪					15		
	塔				76			
	湯				4	6		
	台				1	1		
	吐						1	
	土				21	6		
	討				6	1		
	桶				3			
	通					1		
	退					1		
	忒				1	20		
th	團	없음		2		없음	없음	
	禿			1	1			
	梯			1				

帖 聽 替 體 駝 托 吞 灘 奪 貪 塔 湯 燙 台 太 泰 土 統 通 退				3			
		1					
			4				
		1					
			3				
		1	1				
							13
			10				
			2				
		1					
			10	2			
			2				
		16					
				1			
		1					
			1				
			2				
		1		1			
			4				
		2					
透母 계	16	26	54	241	84	2	19
幫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45	99	186	145	87	206	129
b	剝	1					
	博		7				
	薄						1
	半	3					
	班				1	1	2
	拔	9					
	邦				3	2	
	拜	1			2	4	1
	背	1					2
	伯			8			
	白	2	4		23		
	邊	2		1			
	別	7	10	10			5
	兵					6	
	并	2					
	寶	1					

p	步						5	
	補		1	1	2		20	
	卜		1	11	24	6	5	1
	本			2				
	不	11					10	22
	奔		5				3	
	崩							1
	卑		1					
	比					4		
	賓		1					
	巴	8	6	2			25	
	把		2	2	55	27		1
	波	3			1			
	擺				1	2		
	跛		3			3		
	板		1					
	埧						3	
	八		13		1		8	6
	霸				3			
	孛				7			
	閉						1	
	包		1					
	布		2				28	
	表		1					
	豹						1	
	稟		2					
	必	7	1		19	9	8	
	畢							
	博			1				
	薄			1				
	伴			3				
	半		3				1	
	班			4			4	
	邦						1	3
	盃							1
	背							2
	伯							8
	卞	1						
	兵	1					4	
	竝						1	
	保				1			

	補				1		1	
	卜			59	4	1	2	
	濮				1			
	不	1			1		10	31
	奔						2	
	比							2
	巴			81			16	
	把				3	1		5
	波	5						9
	罷							2
	跛					1		
	板						1	4
	八						6	5
	敗							3
	閉						6	
	包			1				
	布						10	1
	必	1				1	7	4
V	剝	없음	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半		3					
	帛		5					
	白		1					
	別		1					
	寶		1					
	播		1					
	波		1					
	八		1					
	布		1					
幫母 계		45	92	179	143	84	202	122
非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97	13	1	9	27	2	0
f	放		8	없음				없음
	發				1			
	番				1	1		
	犯					1		
	法					13		
	伏					41		
	夫	1			3			
	府				1			

	符		3					
	粉					2		
	糞					1		
	非				1			
	非	2						
	販						1	
	肺				1			
Φ	法	37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福	14						
	副	1						
	夫	3						
	分	7						
	非	31						
非母 계		96	11	0	8	59	1	0
滂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3	7	24	12	29	0	4
p	帕		없음	없음	8		없음	없음
	拍					11		
	潘					2		
	般							
	潑					2		
	排					2		
	撇					1		
	普				2			
	僕					9		
	批				1	1		
	痞				1	1		
	漂	1						
p ^h	帕	없음	없음	8	없음	없음	없음	
	盆							1
	聘			1				
	坡			12				
	平			1				
	鋪			2				
滂母 계		1	0	24	12	29	0	1
心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137		131	83	76	68	56
S	些		없음		2		1	
	司	20						
	唆	15						
	四			1				
	寫				5			
	寺	1						
	思				2	1		
	斜	3						
	絲						1	
	謝							14
	散	3			3			
	酸			1				
	撒	57			19	18	8	
	薩			17				
	三	3		4		1	2	
	桑	1		4		5	1	11
	塞	6		17	4	19		5
	賽					2		
	索	2		4	5			
	西				1	3	9	3
	夕				2		2	
	席			1				
	昔			1			3	
	錫						1	
	先	2						
	線				2			6
	雪				1			
	性							1
	醒				1			
	洗				3	12		
	細						2	
	小				3			
	掃				4	1		
	蘇			1	1	3	11	10
	騷	1						
	俗			1				
	速				14	6	4	
	孫	4		9	4		2	
	遜							3
	松			2		1	6	

	送			1				
	鎖					1		
	瑣				2			
	宿	1						
	肅				1			
	筭				1	2		
	習				1		11	
	息						1	
	信			1			1	
	新			1				
	心						2	
心母 계		119	0	66	81	75	68	53
審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137		46	55	46	11	20
∫	捨		없음	없음	1	11	없음	
	紗				5			
	舍				9			
	傻					13		
	賒					1		
	捌					3		
	商					1		
	暑					3		
	鼠				1			
	石	1						
	閃					1		
	世	110						
	少	2						
	所				1			
	燒	4						
	受	2						
	手				2			
	收	1						
	順				3			
	濕					4		
	拾					1		
	升	1						
	昇				2			
	申	3						
	慎				1			

	失				22	6		
	甚				2			
	羶					1		
	廈							1
s	沙	없음	없음	16	없음	없음	없음	없음
	山			6				
	扇			1				
	世			2				
	升			1				
	昇			4				
審母 계	繩			5				
	總 계	124	0	35	49	45	0	1
精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33		52	30	53	3	13
ts	子		없음	3	2	없음	없음	없음
	茲			1				
	作			2				
	雜			4				
	醬				1			
	祭	2		1				
	祖	1						
	足	5		2				
	尊			1				
	卒				1			
	宗			2				
	鑽			2				
dz	則			1				
	作		없음	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雜			1				
	足	8		3				
z	宗			1				
	雜		없음	없음	5	없음	없음	없음
	蔣				1			
	宰							
	齋				1			
	節	1						
	接							
	尊				1			
	卒							

	遵				1			
	卽				13	12		
	鑽					2		
	咱					11		
	則					19		
精母 계		17	0	25	26	51	0	0
照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36		118	30	28	78	45	
ㄱ	者						4	
	褚			4				
	正						1	
	貞					1		
	照	2						
	周					1		
	竹					2		
	只	25	없음	없음	없음	12		
	知					2		
	珍						1	
	眞					4		
	着							
	札	3				3		
	沾						1	
	沈			4				
ㄷ	查					1		
	者			2	7	5	14	
	張				1	1		
	章					3		
	振				1			
	占					6		
	正					1		
	貞					1		
	爪			1				
	主				2			
	住			1	1			
	柱			2				
	朱					1		
	竹					5	2	
	中					2		
	只	1		1	2			

	支						1	
	知						1	
	眞						2	
	遮						3	
	札				5	7	6	
	站						1	
	寨				1			
	哲				2			
	綴							6
	沾							10
	招					3	2	
	卓					3		
dz	掌	없음	없음	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阻			1				
	踵			1				
	主			2				
	竹			7				
	支			1				
	止			5				
	吒			7				
	卓			11				
dz	者	없음	없음	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掌			1				
	戰			1				
	占			1				
	主			1				
	止			1				
	吒			4				
기타		없음	없음	tc	ts	없음	없음	없음
	查				1			
	章			3				
	展			2				
	摺			11				
	周			1				
	竹			19				
	着			1				
	札				1			
	治			13				
	吒			4				
照母 계		31	0	100	25	27	67	39

日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16		18	2	0	2	10
ㄷ	壤	없음	없음	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染			2				
	肉			3				
	閨			1				
	認			1				
	日			7				
ㄹ	認	없음	없음	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穰		없음	없음	1	없음	없음	없음
	熱	1						
	遶	1						
	柔	11						
	日	2			1			
日母 계		15	0	17	1	0	0	0
泥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171	54	121	55	48	55	53
ㄴ	懦					1		
	拿			2			2	
	那	95	5	5	1	14	14	3
	拏		1					
	難		7	17	4			
	南	4		4			2	3
	喃		7			2		
	納	23		17	9		6	15
	囊			6				1
	娘						3	
	曩							1
	囊					1		
	內		13					
	奈		4	1	3		1	
	柰						2	
	年	2						
	念	1						
	寧	1					5	
	甯				10			

	努			1	1			
	奴			5	1	4	4	
	怒				3			2
	濃						1	1
	農	2						
	惱					1		
	腦					1		
	餒		1					
	開							17
	耨		1					
	尼	15						
	泥	2			11		1	2
	膩			3				
	你				1		5	
	匿		12			14		
	聶	21			8			
	捏					10		
ㄴ	牛	1					1	
	娘	없음	없음	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年			2				
	寧			4				
	奴			1				
	紐			3				
	膩			12				
	你			27				
	聶			5				
	牛			1				
ㄸ	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泥							2
泥母 계		167	51	118	52	48	47	50
明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181	105	138	89	99	69	68
ㅁ	磨			3			2	
	馬	39		16	5			6
	麻	1	2	43	16		26	15
	媽					34	1	
	莫	15	2		1	1		5
	慢		6		11			12

滿					2	1	
瞞	2						
蠻		2	1		1		
抹				1	3		
末		6	3	2			1
忙	1		2				
芒						1	
莽			1	1			
埋		1					
媒							3
梅		14					
每		9					
罵		1	8	2		5	5
買		1					
挽		1					
脈				6			
麥		13					
孟							1
猛		1					
乜	21	8			3		2
眠						1	
綿	1						
面						1	
滅			9				
名			1				
命				4			
明		3					
帽		2					
暮						1	
母	1	3	2	1	5		1
毛	2	3			1	7	
謨		4				5	
貌		1					
木	28		18	20	4	4	3
目		1					
沒		7				2	
蒙		1	1				
卯			1		1		
妙	1						
苗	1						1
眇		2					

	墨			5				1
	默					31		
	們				1		1	
	門	1	4		2		1	
	捫	3						
	米			5	1	9		4
	迷					1	5	
	悶		2				3	2
	民	10				1		
	泯		1					
	密	51		17	1	2		
	蜜				12			
明母 계		178	101	136	87	99	67	62
來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139	102	186	275	156	178	190
1	喇			16				34
	癩		1					
	羅		2	15	6		1	4
	洛			5				
	癩				2			
	蘭						1	
	刺				27	11	26	
	籃							2
	藍			14	8	4	20	19
	朗		11					
	浪		2	1				
	郎		2	4	3	2	3	
	來		1		3			1
	冷		1					
	良					3		
	黎							4
	力			1	17	9		
	連		3	1				
	列	1		2	1		3	
	令		2					1
	零			3				
	勞						2	
	盧						1	1
	老	1		21				

	魯		2		13	7	2	3
	撈						6	
	祿			4	7		8	
	綠				1			
	論		1					
	壟			2				
	弄		6	9			2	4
	賴		3		1			
	雷		2					
	了				1			
	累		2					1
	陋							2
	柳		1					
	溜		1					
	留		1					
	六		2		4	1		
	侖				1			
	輪			1				
	律				1			
	隆			2				
	勒		4		9	16		5
	凌						2	
	利				2		6	
	梨							6
	里		1	1	18	7		3
	离		1					
	吝		4		1			2
	林				4			
	樂		3					
l	喇			1				
	洛	없음	없음	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濫			1				
r f J	喇	39		13	1			21
	羅	7				10		11
	酪	1						
	爍			1				
	刺				39	21	27	
	濫	1						
	藍			1	1	2	1	
	浪				1		2	

	郎			2	1	7	5	17
	來			1	3			3
	亮							2
	呂			2				
	黎			18				
	力			2	35	15	2	
	連				11			
	列			8	6			
	零			9				
	靈						1	
	領			2				
	盧			1	5			
	老	2						
	路						8	
	魯			2		4	1	5
	撈						2	
	祿	56		2	14		1	
	錄	1		1				
	論						5	
	壘			2				
	弄		1				3	2
	籠						8	
	牢				4			
	賴		1					
	未							2
	龍					2		
	六				1	2		
	侖				1			
	淪							1
	律				2			
	隆			3				
	勒				3	22		3
	利						19	1
	里	14		2	4	6		
	吝			9	1			
	林				4	2		
	立	15						
	樂				1			
來母 계		138	61	186	268	153	168	160
曉母								

		日本館	安南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4	46	5	66	83	20	35
h	下	없음	없음		없음		1	1
	賀						1	
	霞						1	
	說					19		
	寒					1		
	漢					1		
	罕					1		
	哈					5	8	2
	杭					5		
	海							1
	歇					1		1
	乎					2		
	胡			1				23
	蒿					1		
	火			1				
	花							5
	黑						1	
	欣					1		
	吸					12		
	希						4	
x	酣			없음	1		없음	없음
	何		1					
	賀	1						
	說					6		
	鶴		1					
	罕		1		11	3		
	合		2					
	哈				6	6		
	恒		1					
	杭					1		
	亥		2					
	海		1			1		
	行		1					
	享		10					
	兄		1					
	乎					5		
	戶		2					
	胡				1			
	虎		1		1	3		

	或					1		
	混				1			
	忽				4			
	洪					1		
	火					1		
	花				1			
	華					3		
	活	3						
	滑		10					
	豁				18			
	回		1					
	灰		4					
	侯		3					
	喉		1					
	黑				7			
曉母 계		4	43	2	51	80	16	33

* ‘총 개수’는 譯語에서 각 성모로 사음된 경우를 모두 센 것임.

** ‘/성모/ 계’는 표에 분석된 수를 합한 것임.

*** ‘없음’은 해당되는 경우가 譯語에 없음을 뜻함.

**** 본문 3장에서 제외되었던 사음 양상은 대체로 제외되었음.

2. 음모의 표기

/a/							
		日本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293	455	407	244	355	269
a	刊	7		4			
	干		5	3	1	6	
	幹	5					
	看		4		2		2
	趕				3		
	坎			1			
	堪		1				
	甘			1			
	酣			1			
	砍				2		
	岡		6				

康	1	9				
拿		2			2	
那		3	1	4	16	
難		17	4			
南	5	4			3	3
喃				2		
納	22	17	7		9	3
囊		6				
曩						1
茶		1			1	4
丹		5	1	24	11	
壇			3			
旦	1			1		
担				1		
達					8	
淡	1					
膽		5		1		
答		1			33	12
荅	46		1			
當					6	2
黨		5				
喇	39	30	1			47
闌					1	
刺			68	2	53	
濫	1	1				
籃						2
藍		15	10	6	22	19
浪		1			2	1
郎		6	4	4	8	17
馬	39	16	5			1
麻	1	43	16		26	
慢			5			
蠻		1		1		
忙	1	2				
芒					1	
莽		1	1			
罵		8	2		5	
班		4		1	5	2
發			1			
邦					3	8

番			1	1		
犯				1		
法	35			13		
查			1		1	
沙		18			3	
紗			5			
絲					1	
山		6			1	
散	3	8	3			
撒	59		19	6	8	
殺					1	
薩		20				
三	3	4		1	2	
桑	1	4		5	1	11
安	2	2	14	3	20	5
暗	1					
菴		1				2
昂		1		2	1	
簪			1			
雜		5	5			
藏		3		1		
叉		22	21			
擦		6				
札			6		9	
站					1	
打		2	2		3	21
吒		19				
灘		10				
炭			4			
貪				16		
塔		10	78			
搭		1	1			
巴	8	83			39	
把		2	58	1		6
板					1	4
販					1	
八			1		11	10
寒				1		
罕			11	3		
哈			16	3	9	2

	亢			1			
	杭				2		
기 타		없음	없음	ä	ā	없음	œ
	干			2			
	剛				1		
	康			1	1		
	那				8		
	納			3			10
	囊				1		
	荅				6		
	當				2		
	刺				30		
	浪			1			
	郎				5		
	馬						5
	麻						10
	慢			6			11
	罵						4
	方						1
	邦				3		
	撒				11		
	昂				2		
	簪			1			
	藏				1		
	叉				2		
	札				7		
	打				4		
	塔			1			
	把				28		
	罕				1		
	哈			1	8		
	杭				4		
/a/ 계		281	446	404	239	334	226
/ə/							
		日本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144	238	242	277	88	126
ə	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	없음
	格					20	
	更					2	

0	克					2	
	根					2	
	能					1	
	得					8	
	登					2	
	弄					1	
	悶					1	
	兒					1	
	恩					3	
	參					1	
	鵠					1	
	各	28					
	公		2				
	空	1	2				
0	科			2			없음
	根	1					
	農	2					
	冬					2	
	東		3				
	董		4	2			
	得					1	
	羅	6	15	3		1	
	洛		6				
	壟		3				
	弄					2	
	籠					8	
	磨		3			1	
	末		3	2			
	捫	2					
	悶					1	
	博		4				
	索		20	4			
	所			1			
	送		1				
	僧		2				
	兒			1			
	我		2	2			
	餓			1			

	鵝	3	3				
	翁	1		1			
	作		3				
	宗		3				
	卓		12				
	托		1				
	桶			3			
	通					1	
	波	5					
	孛			4			
	賀	1				1	
	衡		1				
a	各	19					
	渴		26				
	葛						
	噶		43	60			
	格						17
	公						1
	克				27		
	根					1	2
	農						1
	得				35		
	羅						1
	勒				38		4
	抹			1			
	末						
	帕		8	8			
	默				31		
	博		4				
	滲						
	兒				1		
	我				1		
	額				2		
	恩						4
	入					1	
	喀		1				
	參		7				
	拓		1				
	則				20		
	忒				20		

	巴			1			
	波						1
	合						
	嗑	44					
	革				14	1	6
	噶			1	볼드는 장음		
u	格						1
	公	2	1				
	空		1				
	根		1				
	肯						1
	濃					1	
	冬					1	
	動						1
	東		7		1		
	董		1				
	得				2		
	羅				9		
	壟		1				
	弄		9			2	1
	籠					1	
	龍				2		
	勒				1		
	磨					1	
	抹				3		
	文	1					
	捫	1					
	悶					1	
	白				1		
	分	3					
	粉				2		
	糞				1		
	索	2					
	翁	3					
	陀				1		
	卓				3		
	通		4		1		
	特		1				
	波	1					5
	洪				1		

기 타				ä	ā	e	ɔw
	噶				10		
	可			1			
	各						1
	箇						2
	格			1			
	恭			1			
	空						2
	克			9			
	德			1			
	得			13		1	
	羅	없음	없음				11
	弄						18
	龍						7
	勒			10			1
	孟						1
	兒					6	
	額			27			
	塞				1		
	卓						1
	忒			1			
	郝						1
	革			9	1		
	黑			1		1	
/ə/ 계		126	209	171	229	82	91
/jə/(眞文韻 開口呼)							
		日本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20	20	14	10	29	31
i	勤			1			
	斤	2					
	近	3					
	吝		9	2			2
	民	10			1(ī)		
	賓						
	信		1				
	新		1				
	申	3					
	贍						

	慎			1			
	銀						
	印			4		1	
	因			1	3(ī), 1(i)	17	17
	引			3	1(ī), 1(i)		
	認		1				
	噀			2			
	珍						1
	盡						
	眞					5	
	軫						
	陳						
	欣				1(i)		
/jə/ 계		18	12	14	8	23	20
/i/							
		日本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76	38	5	3	18	3
i	尼	15					3
	司	1					
	四		1				
	思		1		1		
	翅		8				
	子		3				
	茲		3				
	齊	3					
	只	28		1	1	12	
	支		1				
	止		6				
	知					3	
	治		13				
	癡		1				
기타		u	o	1	ī	ə	없음
	司	27					
	寺	1					
	思			2			
	色		1			1	
	子			2			
	只				1	1	
/ɪ/ 계		75	38	5	3	17	3
첨	糸	없음		3			없음

기	思		13	36	49	7	
	子			58	19		
	只				7		
첨기 /i/ 계			13	97	75	7	
/ji/							
		日本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381	149	451	193	181	117
i	乞	1		36	1		
	計	65	1				
	鷄		2	1		3	
	及			3		2	
	急						
	企					1	
	器		2				
	幾				5		
	機					1	
	欺			1			
	肌					1	
	記					1	1
	豈				1		
	起			1			
	吉		16	6	4	9	4
	泥	2		12		1	2
	膩		15				
	你		27	1		1	
	匿				8		
	黎		18				4
	力		3	43	13	2	
	利			2		24	1
	梨						6
	里	13	3	11	2		3
	立	14					
	米		5	1	6		2
	迷					4	
	密	45	17	1	2		
	蜜			12			
	批			1			
	比				1		
	痞			1	1		

西		1	1		7	3
夕			2		1	
席		1				
昔		7			1	
石	1					
錫					1	
世	113	2				
洗			3	7		
細					2	1
習	1		1		2	
息					1	
失			21	2		
亦	64		10	7	1	
易					3	
依						3
儀						10
宜					1	
義			1			1
衣	1				2	10
以		1	21	2		
姨						1
一						5
日	2	7				
場			1			
齋			1			
底		1		1		4
的	2	4	63		18	17
赤			41			
帝					5	
弟						2
祭	7	3				
齊	3					
卽			12	5		
地					4	
執			1			
尺				2		
惕			13			
替		4	3			
體			3			
閉					7	

	彼		1				
	必	8		19	9	11	
	畢		4				
	吸				9		
	希					4	
기 타		e	없음	ĩ	ī	e	없음
	乞				2		
	急	9					
	幾				1		
	欺				2		
	吉				2		
	你					4	
	匿				5		
	力			9	10		
	禮			1			
	利					1	
	里	1		12	11		
	立	1					
	米				3		
	迷				1	1	
	密	7					
	批				1		
	比				3		
	西				3	1	
	夕					1	
	昔					2	
	世	1					
	洗				4		
	濕				4		
	失			1	3		
	亦				1		
	底				8		
	的	9				6	
	赤			14			
	卽			1	7		
	剔				2		
	尺				2		
	惕			19			
	體				4		
	必				1	2	

	吸				3		
/ɣ/	계	370	145	407	171	139	80
/wo/							
		日本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127	106	79	22	12	14
O	果		3				
	課		1	1			
	鍋		1				
	郭		6				
	官		1				
	管		1				
	國		5				
	那	90					
	多	7		1		2	
	團		2				
	端		4				
	爨		1	1			
	伴		3				
	唆	14					
	酸		1				
	鎖		1				
	瑣			1			
	幹			3			
	窩		2				
	臥		4				
	玩			1			
	翫			1			
	剉		25				
	撮		3				
	唾			3			
	朶			2			
	柁			1			
	垛		9				
	奪		14				
	脫			19			
	坡		4				
	玻		1				
	火		1				

	活	3					
	豁			9			
기 타		u	a	ö	ü	u	u
	果				3		
	課			10			
	鍋				3		
	國						2
	儒				1		
	那	8					
	多	1				1	3
	沒					1	
	潑				2		
	唆	1					
	鎖				1		
	幹			1			
	鑽		2				
	唾			4			
	朶				1		
	奪					1	
	坡		8				
	或				1		
	火				1		
	豁			8			
	闊			7			
/wo/ 계		124	103	73	13	5	5
/u/							
		日本館	西番館	畏兀兒館	回回館	滿刺加館	占城館
총 개수		261	205	298	120	210	84
u	古		2		3		
	姑						9
	孤					19	
	庫		1	5			
	故			8			4
	枯	8					
	苦			15	4		
	哭			1			
	谷	58	18		6	6	
	骨					2	

努		1	1			
奴		6	1	1	3	
怒			2			2
度	1	1				6
覩		14				
賭						4
都	20	1	23	4	15	
禿	1	1	17	4		
讀	4	2				
杜			5			
廬		1				
路					7	
魯		2	18		2	8
祿	29	6	13		4	
暮					1	
母	1	2		2		
謨					5	
木	11	18	9	3	1	2
霧		1				
物					1	
普			2			
步					5	
補		1	3		9	
伏				2		
僕				7		
卜		72	27	4	3	1
福	11					
濮			1			
副	1					
夫	3		3			
府			1			
蘇		1	1	1	10	10
速			14	5		
數						1
五			21	2		
吾	29					
烏		34	1		12	1
悞					1	
兀			26	3		
祖	1					

	租					1	
	阻		1				
	卒			1			
	吐					1	
	土		2	8	3		
	布					36	1
	鋪		2				
	乎				4		
	弧					1	
	狐					1	
	胡		1	1			23
	虎				3		1
	忽			2			
기 타		o	없음	ü	ū	ə	없음
	古				1		
	孤				2	3	
	故			1			
	苦			6			
	哭			2			
	谷	6					
	骨					1	
	奴				3		
	怒			1			
	都	15		4	9	1	
	禿			4	1		
	篤					1	
	讀	1					
	魯				11		
	祿	23		8			
	母			1	1		
	謨					1	
	木	18		11	1	1	
	補					12	
	伏				4		
	卜			1	1	4	
	福	3					
	夫	1					
	蘇					1	
	速				1		
	五			1			

	兀				2		
	卒			1	2		
	土			14	3		
	布					1	
	乎				3		
	虎			1			
	忽			2			
/u/ 계		245	191	288	106	172	73

* ‘총 개수’는 譯語에서 각 운모로 사음된 경우를 모두 센 것임.

** ‘/운모/ 계’는 표에 분석된 수를 합한 것임.

*** ‘없음’은 해당되는 경우가 譯語에 없음을 뜻함.

**** 본문 3장에서 제외되었던 사음 양상은 대체로 제외되었음.

3. 운모의 구체자 검증

字	재구음	回回館	畏兀兒館	滿刺加館	占城館
/ㅅ/					
色	sRə~sRaj	—	—	ə(1)	제외(7)
格	kə~kjaj	—	ä(1)	ə(19) 未(3)	
得	tə~təj	a(35) i(4) u(2) ø(58) 未(6)	ä(13)	ə(9) e(1) 未(3)	
額	ə~jaj	a(2) i(1) ø(11) 未(2)	ä(27) i(4) ö(2)	—	
墨	mə~məj	— [默 a(31)]	—	—	
勒	lə~ləj	a(38) u(1) ø(2) 未(2)	ä(10) ε(2) ø(16)	—	
迫	pə~paj	—	—	—	
白	pə~paj	a(22) u(1) ø(1) 未(5)	—	—	
黑	hə~həj	—	ä(1) i(6) ø(18)	e(1)	
/ㅡ/					
沁	chjən~sRən	—	—	제외(21) 未(3)	제외(28) 未(28)
黑	hə~həj	—	ä(1) i(6) ø(18)		
害	haj	—	—		
得	tə~təj	a(35) i(4) u(2) ø(58) 未(6)	ä(13)		

捐	khən	—	—		
根	kən	—	ĩ(2) ə(1)		
本	pən	—	—		
悶	mən	—	—		
勒	lə~ləj	a(38) u(1) ø(2) 未(2)	ä(10) ɛ(2) ø(16)		
自	cĩ	—	—		
立	ljĩ~ljəj	—	—		
額	ə~jaɣ	a(2) i(1) ø(11) 未(2)	ä(27) ĩ(4) ø(2)		
亨	həŋ	—	—		
色	sRə~sRaj	—	—		
吉	kji~kjəj	i(4) ĩ(2) ø(1)	i(6)		
恨	hən	ø(2)	—		
迫	pə~paj	—	—		
/ . /					
嫩	n(w)ən	—	—	—	—
得	tə~təj	a(35) i(4) u(2) ø(58) 未(6)	ä(13)	ə(9) e(1) 未(3)	i(1)
把	pa	ā(29) 未(1)	a(57) 未(1)	—	a(6) ā(1) 未(4)
墨	mə~məj	— [默 a(31)]	—	—	o'(1)
格	kə~kjaj	—	ä(1)	ə(19) 未(3)	a(17) ai(1) u(1) ø(1) 未(1)
悶	mən	—	—	o(1) ə(1) u(1)	o(2)
燦	chan	—	—	—	—
赧	—	—	—	—	—
刺	la	ā(30) a(2) ø(2) 未(5)	a(68)	a(52) ə(1) ø(4) 未(9)	—
黑	hə~həj	—	ä(1) ĩ(6) ø(18)	e(1)	未(4)
色	sRə~sRaj	—	—	ə(1)	—
噴	phən	—	—	—	—
迫	pə~paj	—	—	—	—
勒	lə~ləj	a(38) u(1) ø(2) 未(2)	ä(10) ɛ(2) ø(16)	—	a(4) ā(1) au(1) o(2) 未(10)
根	kən	—	ĩ(2) ə(1)	ə(2) a(1)	a(2)
罕	han	a(3) ā(1) 未(2)	a(11)	—	—
冊	cRhə~cRha j	—	—	—	—
滲	sRən	—	—	—	—

敢	kan	—	—	—	—
怎	cən	—	—	—	—
恨	hən	a(1) ø(3)	—	—	—
哈	ha~ho	ā(7) a(3) ø(2) 未(1)	a(16)	a(9)	a(2) 未(5)

* ‘사음 음가(개수)’로 나타냄.

** ‘未’는 미해결항임을 나타냄.

*** ‘ø’는 종성 사음자로 쓰였음을 나타냄.

4. 첨기

		回回館	畏兀兒館	西番館	韃靼館	滿刺加館	占城館	日本館
‘p’								
幫	卜	1	10	11				
	補		9					
	不						2	
滂	批		1					
‘b’								
幫	卜	31	1	9				
	白	1		3				
	補			1				
	鋪			1				
	不				●		4	
‘t’								
端	的					3	2	10
	答							
透	忒	26	27					
	剔	14						
	惕		6					
	禿		1					
	帖		1					
‘d’								
端	的		2					
	得	58						
	都	1						
	答						1	
‘k’								

見	格						1	
溪	克	19	29		●			
	闊		2					
	乞		1					
	苦	1						
‘g’								
見	革	17						
	吉	1						
溪	克	3						
‘q’								
見	革	9						
溪	克		12					
	苦		3					
‘f’								
非	夫		3					
	伏	25						
‘s’								
心	思	51	36	13	●	14		
	習		7			1		
	糸		3					
	西		3					
	速		2					
	桑	1						
‘ʃ’								
審	失	41	70		●			
‘z’								
精	子	19	58					
	聚		1					
	則	1						
‘ʒ’								
日	日	1						
‘tʃ’								
穿	赤		9					
	除		5					
	出		2					
照	褚		1					
‘dʒ’								

照	只	7						
日	日	1						
‘x’								
曉	黑		18					
	誑	16						
‘y’								
見	良		1					
	故		1					
	果		1					
	革	1	1					
溪	克		1					
曉	黑				●			
	蛤				●			
影	額	11						
	兒		2					
‘h’								
曉	誑	33						
	哈	1						
	吸	1						
‘l’								
來	力	43	14					
	勒	1	16	1	●			
	里		29		●			
	魯		2					
	綠		1					
兒化韻	兒	2	28		●			
	二				●			
‘r’57)								
兒化韻	兒	146	221	124	●	19	10	
	二				●			
來	勒	1						
	刺	1				3		
	力					1		
	羅					1		
	路					1		
	弄					1		
	利					1		

‘m’								
明	密	11						
	母	1						
	木		1					
‘n’								
/-n/	音	12						

57) /r/과 /r/이 한 譯語에 존재하는 경우도 없거니와 ‘r’로 재구된 것들이 전동음인지, 탄설음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r’과 ‘r’은 서로의 변이음이 되기도 하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 꺼번에 정리하였다.

[부록 3]-사음자 목록

加	可	哥	嫁	家	柯	茄	賈	乚	却	各	脚	刊	干	幹	看	艮	間	趕	喝	渴	葛	噉
坎	堪	敢	甘	歛	酣	砍	甲	剛	岡	康	强	綱	扛	介	改	皆	箇	蓋	鎧	開	客	羹
巾	乞	傑	格	見	遣	缺	謙	更	經	頃	驚	計	鷄	古	告	姑	孤	庫	故	枯	稿	考
苦	高	靠	哭	谷	谷	困	坤	昆	棍	滾	骨	公	共	恭	拱	空	串	戈	果	科	課	過
鍋	顚	吭	郭	官	款	管	貫	刮	光	塊	怪	交	咬	教	絞	勾	驅	國	菊	弓	卷	貴
克	極	勤	斤	根	近	跟	今	禁	及	急	肯	企	器	寄	己	幾	機	欺	肌	記	豈	起
飢	吉	金	懦	拿	那	難	南	喃	納	囊	娘	膩	你	乃	內	奈	柰	年	念	寧	宵	努
奴	怒	濃	農	惱	腦	鬧	紐	鈕	能	尼	泥	膩	帶	德	倒	刀	到	島	度	團	壇	旦
端	担	達	淡	膽	答	荅	當	黨	倘	大	對	帶	東	董	斗	杜	豆	肚	覷	賭	道	都
陶	滔	毒	犢	禿	篤	讀	墩	敦	頓	冬	動	籃	藍	浪	郎	來	略	亮	得	燈	登	鄧
喇	羅	兄	洛	酪	欄	樂	鸞	闌	刺	濫	籃	魯	滂	律	隆	鹿	綠	呂	黎	力	連	
列	令	嶺	零	靈	領	苓	禮	勞	盧	老	倫	淪	輪	律	隆	勒	綾	利	李	梨	里	
牢	賴	雷	未	了	龍	累	蔓	陋	六	侖	灣	淪	萬	蠻	抹	末	襪	忙	芒	莽	埋	
吝	林	立	磨	馬	麻	媽	莫	彎	慢	滿	灣	瞞	萬	蠻	抹	末	襪	忙	芒	莽	埋	
媒	罵	買	賣	呆	脈	孟	乜	糸	眠	綿	面	滅	名	命	鳴	暮	母	毛	謨	木	沒	蒙
卯	妙	苗	巫	霧	墨	默	們	文	門	捫	物	尾	微	未	米	迷	悶	民	密	蜜	博	
拍	薄	伴	半	潘	班	般	飯	撥	潑	發	放	方	邦	拜	排	盃	背	伯	白	番	犯	法
卞	邊	別	撇	丙	兵	竝	保	普	步	補	鋪	伏	僕	卜	福	濮	本	奉	鳳	不	副	夫
府	分	奔	盆	粉	糞	崩	批	比	非	非	痞	閤	聘	事	些	司	唆	四	寫	寺	思	捨
斜	查	梭	沙	紗	絲	舍	謝	邪	傻	賒	削	朔	擲	山	散	酸	撒	殺	薩	三	滲	挿
上	商	想	桑	相	祥	賞	塞	賽	索	色	生	暑	西	鼠	夕	席	昔	石	錫	先	扇	禪
線	雪	撲	閃	聶	聶	性	成	星	盛	省	醒	世	洗	細	小	少	所	掃	昭	燒	蘇	騷
疏	俗	束	速	孫	遜	松	送	鎖	瑣	噴	受	嫂	手	搜	收	數	樹	袖	讐	須	宿	肅
順	笋	術	濕	拾	習	僧	升	昇	繩	施	猜	翅	息	信	新	申	贖	慎	失	悉	心	深
甚	十	亞	兒	我	牙	衙	阿	雅	餓	鵝	丫	惡	樂	安	岸	眼	顏	幹	憂	噯	歹	巖
暗	菴	壓	押	仰	昂	哀	愛	艾	靄	厄	額	也	夜	惹	耶	弱	約	壤	楊	洋	穰	羊
陽	養	魚	言	奄	與	亦	易	演	然	煙	硯	熱	捏	厭	染	葉	影	榮	永	泳	盈	詠
銳	五	吾	敖	烏	襖	悞	玉	溫	兀	擁	翁	雍	瓦	窩	臥	哇	窪	完	宛	玩	碗	翫
曰	旺	汪	倭	歪	矮	倭	外	畏	腰	要	遶	欲	容	又	右	牛	雨	郁	運	雄	遠	院
月	越	委	威	違	蹊	幼	有	柔	由	諭	肉	允	閏	恩	銀	乙	吟	蔭	音	依	儀	宜
義	衣	以	姨	而	印	咽	因	引	忍	認	裊	一	日	入	仍	子	字	滋	炙	者	資	茲
作	勻	爵	綽	簪	簪	雜	匠	場	將	張	掌	章	莊	蔣	藏	醬	長	宰	載	齋	低	姐
底	這	褚	的	籍	赤	典	剪	展	戰	殿	氈	顛	羶	振	切	節	絕	呂	占	店	點	接
摺	丁	定	廷	征	挺	整	正	貞	靜	頂	帝	弟	梯	濟	祭	除	齊	躋	咿	彫	曹	條
照	爪	祖	租	槽	遭	阻	鳥	阜	罩	足	尊	卒	宗	從	踵	坐	座	剗	主	住	呪	周
朱	柱	竹	俊	遵	中	重	卽	怎	只	地	支	止	知	直	職	噴	珍	盡	眞	軫	陳	蓁
臻	轅	迭	斟	執	借	又	車	遮	扯	着	鑽	擦	札	咱	參	站	攙	唱	昌	寨	綵	菜
踩	剔	尺	拓	惕	千	哲	徹	撤	綴	輟	鐵	沾	詔	忝	帖	疊	貼	黏	替	體	哨	
抄	招	焦	稍	肖	草	超	醺	鈔	寵	豕	撮	推	醜	畜	祝	春	出	充	沖	取	嘴	聚

